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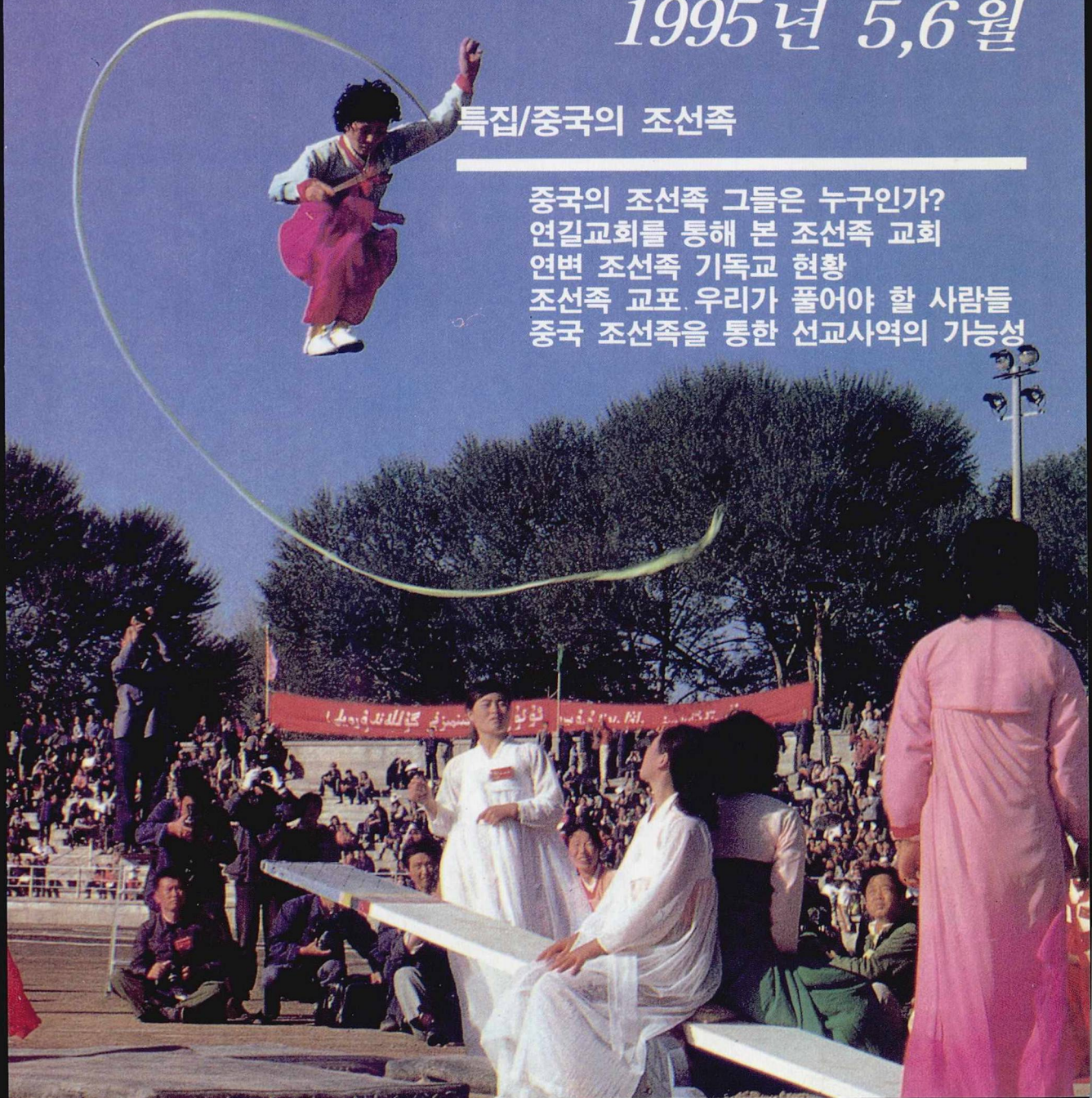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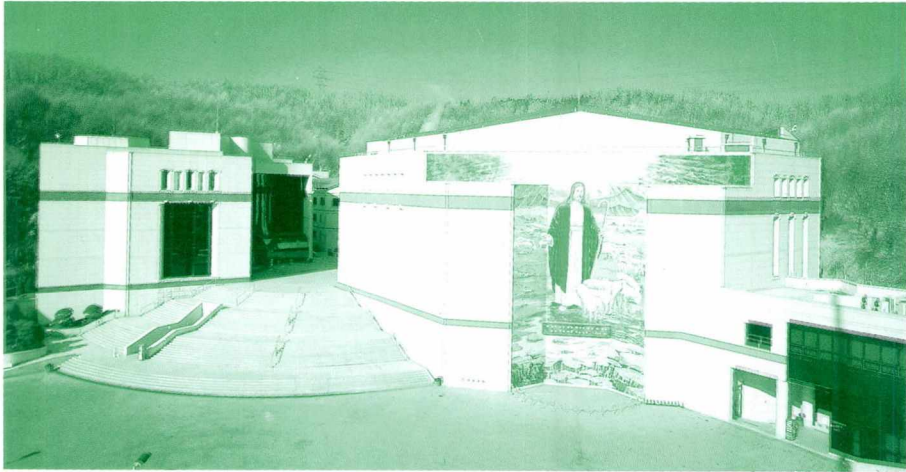
1995년 5,6월

특집/중국의 조선족

중국의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연길교회를 통해 본 조선족 교회
연변 조선족 기독교 현황
조선족 교포 우리가 풀어야 할 사람들
중국 조선족을 통한 선교사역의 가능성



햇불선교센터는 AD2000년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햇불연합회

- * 매주 한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으로서 목사, 전도사 및 신학생, 일반부부, 목사사모, 미술인, 육·해·공군 현역 및 예비역 부부, 군인가족, 평신도 등 성격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570-707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각 햇불회가 연합해서 1년에 한번씩 햇불대성회와 매월 햇불 연합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제주에도 햇불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

- * 세계선교 전략의 흐름에 따라 중족을 단위로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 해외선교국은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전도 중족복음화를 위해 선교정보를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으며, 둘째, 유능하고 숙련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훈련하고, 셋째, 미래의 선교사와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해외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지향하는 타 선교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효과적인 복음 전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

- * 한국 축구 발전에 공헌했던 할렐루야 선교축구단이 국내외를 순회하면서 친선경기와 함께 간증을 통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업 및 장학사업 지원

- * 해외유학생, 국내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회사업 시설 수용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년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햇불합창단

- * 신앙이 투철한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한국교회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순회연주 활동으로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 및 연합집회시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햇불성경연구소

- * 본 원의 부설연구소로서 국내외 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신학을 목회현장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하며, 목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원서번역 및 성경공부 교재 집필, 세미나 개최, 평이하고 실제적인 성경강해 시리즈 발간, 강사발굴, 목회현장에 필요한 주제 및 프로젝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햇불도서관

- * 목회자, 신학교 교수, 신학생,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전문 도서관으로 소장능력 10만권, 550평의 규모로 많은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신학생과 목회자만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햇불기독교백화점

- * 국내 최대의 주차장 시설을 구비하여 각종 기독교 서적 및 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송선교, 기독교 종합유선방송사업

- * 전파를 통하여 북방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국내 유선방송시작과 관련, 21세기 선교매체의 종자인 TV를 통한 시청각 선교를 하기위해 기독교 종합유선방송사업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중국인가, 중국인인가?

이동화

최근 우리 사회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문제가 될 만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더 이상 적은 무리가 아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 교회에 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역사 지리적으로 보나, 숫적으로 보나 또한 선교 파급효과로 보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 교회가 심혈을 쏟아 감당해야 할 최대의 추수밭이요 땅 끝이다.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는 선교사들은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아직도 적지만 그래도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시키며 파송하고 재정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는 몇 안 되는 교회, 선교 단체 사역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교회의 인식이 국내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선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으로 파송해 보낸 선교사 만큼, 어쩌면 그들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물론 중국 현지의 선교 사역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남아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부르심 받은 사역자도 꼭 필요하다.

우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어디서 일하건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은 선교사요, 그들을 거교회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일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특집/ 중국의 조선족

- 17 중국의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 석은혜
- 27 연길교회를 통해 본 조선족 교회 / 장하은
- 34 연변 조선족 기독교 현황 / 류연산
- 44 조선족 교포,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 / 권수영
- 52 중국 조선족을 통한 선교사역의 가능성 / 김성태

초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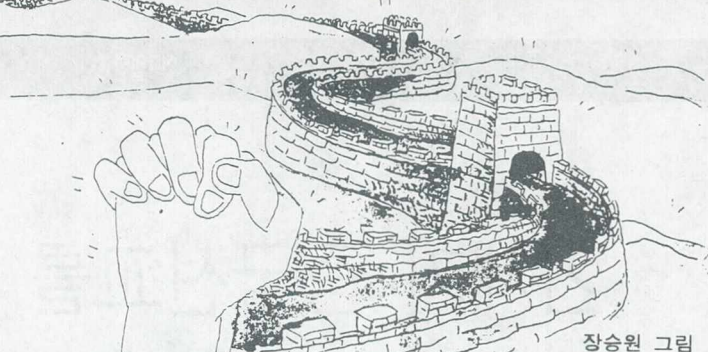
- 56 중국선교의 선두주자 조나단 차오 목사 / 석은혜

선교 · 전략

- 1 발행인 칼럼 중국인가, 중국인인가? / 이동화
- 4 선교일언 21세기 중국선교를 위한 제언 / 금병달
- 7 중국선교 돋보기① 중국에서의 전문인 선교 / 박성주
- 10 중국선교 돋보기② 한 현지 사역자가 본 중국선교 현황 / 주피득
- 66 현지에서 온 소식 마약에 흔들리는 중국인들 / 강성광
- 90 중국선교의 발자취 부덕(父德)의 그늘 / 방지일
- 105 선교와 소명 선교사로서의 소명 - 실상과 허상 / 다니엘 베이컨
- 112 묵상의 샘 / 위대한 포기

선교 정보

- 62 중국 교회 현주소 “저는 6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왕쓰웨이
- 71 오늘의 중국 내가 본 중국, 중국인 / 홍윤표
- 79 중국을 알자 중국과 중국 교회 개황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84 중국유학 안내 중국 서남·서북지구의 주요대학 / 박명수



- 124 중국선교 참고도서 『중국, 그리고 중국인』 외 2권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128 중국 교회 소식 중국 대학 내의 기독교 물결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129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인물·간증

- 92 한국교회 중국선교사 인물연구(2)
 한국 최초의 중국선교사 김영훈 목사 / 김교철
 108 중국선교사의 간증 초기의 선교 경험 / 허드슨 테일러
 111 대륙성도의 간증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발견한 영원한 생명 / 領恩

선교마당

- 118 중국의 문화 중국 무술·쿵후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120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在緊閉的房間裏(꼭 닫힌 방 안에서)
 122 내가 사랑하는 선교도서 선교현장 이야기 / 정승태
 126 선교중국어 한마디 王先生是基督徒嗎?(왕선생은 기독교인입니까?)
 127 중국어로 찬양을 讓神兒子的愛圍繞你(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기도·선교단신

- 134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139 선교단신

선교자료실

- 142 연변 기독교 시행 장정

표지설명

매 4년마다 열리는 소수민족운동회(少數民族運動會)에서 널뛰기 시범을 보이고 있는 조선족 부녀자들. 조선족들은 명절이나 집회 등에 반드시 한복을 입고 나와 한민족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자랑한다.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을 한국보다 더욱 잘 보존하고 계승해 온 조선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문화, 생활 수준 면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21세기 중국선교를 위한 제언

금병달

선교의 목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날 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명령(至上命令)으로 기억한다. 이 명령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이다. 제자를 삼기 위해 우선 가라고 하셨다. 가서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곧 전도와 제자화 사역을 통해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세계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는 중국의 한족과 소수민족들을 복음화하고 제자삼는 일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제 본란을 통해 몇 가지 선교 전략적 아이디어를 나눠 보고자 한다.

단기선교

20세기에 발달된 교통 통신의 체제는 전통적인 선교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어떤 선교사가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여 일생을 보내며 선교에 헌신하던 것과는 달리 일시적인(때로 몇 주에서 몇 개월) 방문을 통해 필요한 사역을 감당 한 후 그곳을 떠나는 형태의 단기선교가

활성화되고 있다.

야구 경기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 치고 달리는 “Hit and Run” 전략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적 역량과 함께 세계를 향하는 젊은이들의 열기는 한창 고조되고 있다. 할 수 있다면 이들 자원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본인이 소속해 있는 선교기관에서 1990년부터 마닐라, 홍콩, 대만, 일본 등지에 2주 내지 4주의 단기간 동안 현지 교회들과 연결하여 전도와 제자화사역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놀라울 정도이다. 여러 가지 한계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열매에 있어서 참가하는 본인들의 헌신도가 높아지고 또한 현지 교회 및 성도 주민들의 변화와 헌신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여러 상황-정치·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전문적인 선교사가 장기간 체류하기보다는 여행자의 신분으로 일시적이거나 단기간 동안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현지에서 안내해 줄 현지동역자의 역할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인(직업)선교

현 세계의 추세는 대부분의 미전도지역인 나라들이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므로 잘 훈련된 평신도들이 직업을 가진 채-학생이나 교수, 기술자 등-지에 파송된다면 보다 안전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들-섬유·식품·가공·미용·건강·전자 등-을 가르쳐주며 그들과 삶의 현장을 공유하며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생활전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나 한족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그들이 변화되어 귀국할 때에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바울과 그 일행이 당시 장막업을 부업으로 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접근방식은 상당히 성경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쪽 복음을 팔고 다니는 전도인 격의 “권서인”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협력선교

현대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선교에 있어서도 다원화 집중화가 필요하다. 밖으로 나간 선교사를 위해 국내의 동역자들은 정기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선교현지에서도 경쟁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교단의 장벽을 넘어 서로 유기적인 협력과 우호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단기선교적인 전략을 활용할 경우 일시적이긴 하지만 전도 및 양육·제자화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준다면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다.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



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의 수가 119개 국가에 3,272명으로 숫자적으로 본다면 세계 7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참 고무적인 현실이기는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순위가 될지 의문이기도 하다.

사역자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풍토와 교회나 교단끼리 경쟁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서로 협조·협력하여 좀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피선교지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정선교

우리 나라를 비롯, 세계선교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온갖 문제들-주택·교통 환경오염 등이 심각하고, 또한 세속화 물결로 인해 전통적인



성경적이고 건전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가정선교가 21세기 중국선교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작년(1994년)우리 나라의 이혼율이 25%,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65%~75%,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권에서도 70%~75%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통계는 모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위기를 느낄 만큼 악화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역대상은 도시의 빈민들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과 아울러 가정문제, 부부 갈등, 이혼, 기아문제에 빠져있는 이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서 인간다운 삶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이고 건전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또한 가정들이 모여 건고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게 해야 하겠다.

결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도 크고 막중하다. 한편 우리의 역량은 부족하고 여러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무한한 능력과 자원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기도와 준비, 순종과 행동-을 통해 열심을 다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중국에서의 전문인 선교

박성주

전문인 선교사를 통한 전문인 선교는 20세기에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선교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선교방식이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초의 중국 개신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도 동인도회사의 통역원으로 일하면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중국은 불평등조약으로 인해 한때 전통적인 선교사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모든 교회는 폐쇄되고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으며 외국 선교사들은 대거 추방되었다. 종교에 대한 핍박은 문화대혁명시기에 이르러 더욱 가열되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와 각종 미신, 그리고 조상숭배까지도 거의 말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로 이 기간에 중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중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것은 실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교회의 부흥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중국 선교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선교사로서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994년 1월 31일 중국은 국무원령 제144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과 제145호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례”를 이붕 총리의 명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것은 결국 법적 장치를 동원해 외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당분간 중국에서 전통적인 선교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현상황에서 복음이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전문적인 직업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들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개념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바람직한 전문인 선교사는 어떠한가 하는 지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다. 혹자는 전통적인 선교사인 목사가 단지 어느 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중국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직업과는 무관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혹자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중국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회와 능력을 따라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실제적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전문인 선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선교 자세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22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말한 바처럼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특히 중국에 전문인 선교사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곧 영적인 준비일 것이다. 마음대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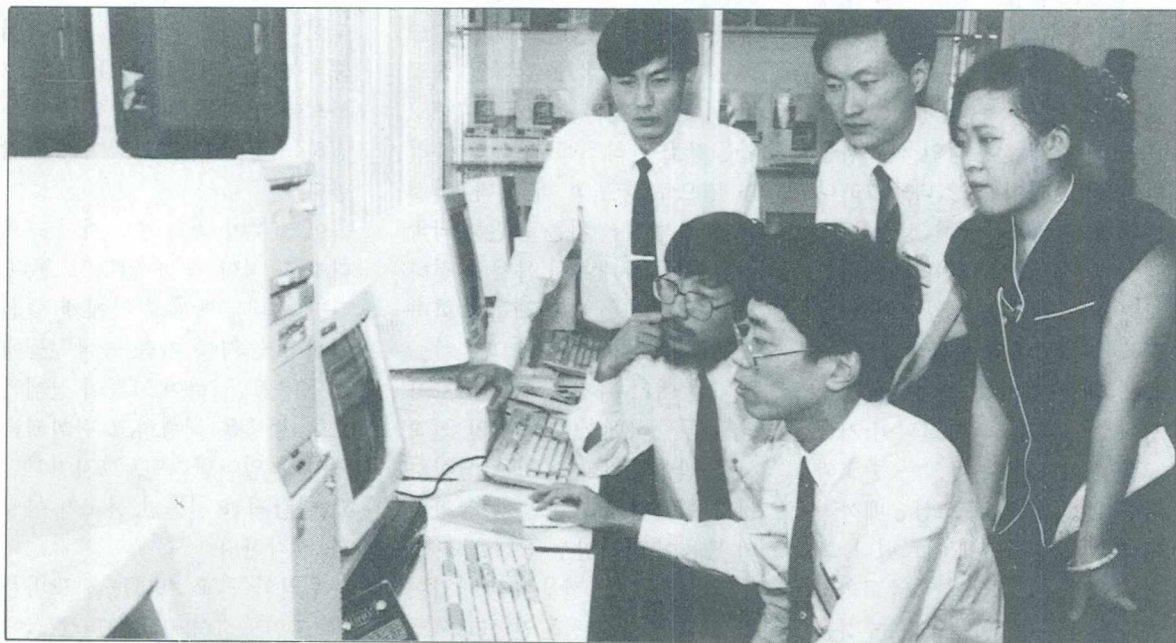
신앙생활을 하다가 폐쇄된 사회에서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 가지 않아 영적인 갈급함과 곤고함에 빠지게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선교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마귀의 꾀계에 쉽게 넘어진다. 본국에 있을 때 영적으로 잘 훈련,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또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와 언어에 준비되어 있다면, 문화충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사역의 성과도 보다 쉽게 올릴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경제적인 방면에서 비교적 낙후되어 있지만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이

라는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관계(關係)중심의 사회이므로 무엇보다도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앞서야 한다.

언어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현지에 들어가서 전문인 선교사로 직업을 가지게 되면 바쁜 일과 때문에 언어를 좀처럼 배우기가 어렵고, 배우게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경험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현지에 나가기 전 반드시 전문적인 중국선교 훈련기관을 찾아 중국문화 적응과 언어훈련을



관계(關係) 중심 사회인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 경제특구의 한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 직업인들.

받는 일과 중국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선교사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갈 직업이나 기술에 대한 성실한 준비이다. 주님의 선교사역의 자취를 살펴보다라도 복음사역은 꼭 필요한 영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대부분 주님은 그를 만나러 온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결국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사역을 하셨음을 본다.

전문인 선교사가 중국의 장벽을 넘는 한 방편이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이 많은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전문인 선교사는 실제로 중국사회가 요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나가려 하는 전문인 선교사에게는 자기가 지닌 기술이나 직업에 있어서 최고를 지향하겠다는 열의와 더불어 성실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중국인을 섬기는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전문인 선교와 전문인 선교사에 대해 잠깐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문인 선교와 전문인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후원의 문제이다. 한국 교회는 중국 선교가 공산권 선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전



전문인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의 끈기있고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문인 선교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하는 전통적인 선교사만큼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태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아직은 전통적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중국의 벽을 넘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 선교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전문인 사역자들의 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까지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선교사에게 보내는 후원 못지않게 전문인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끈기있게 지속해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들은 대체로 신학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선교훈련 역시 부족하여 전문적인 선교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칫 사역보다 자신의 직업에만 충실하다가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인 선교사 자신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해서, 전문

인 선교사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후원과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인 선교사는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특별히 교회의 기도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전문 선교단체에 소속되거나 협력하며, 후원 교회를 동역자로서 사역의 선상에 동참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크리스천 기업가들과 잘 협력한다면 중국에 거주하는 데 따르는 보안상의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고, 전문인 선교사와 연결시켜 주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전문인 선교는 현지점에서 중국 선교의 최선의 방편으로서 한국 교회가 힘써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 방면의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성주/ 장로, 중국어문선교회 대표

한 현지 사역자가 본 중국선교 현황

주피득

머리말

이미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지만 현재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의 숫자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다만 이곳 저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그 숫자를 대략 550명 내지 700명 가량으로 추정할 뿐이다.

연길(延吉)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길림성(吉林省)의 여러 지역에 약 350~45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그 중 200명 정도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역자들이다), 심양(瀋陽)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요녕성(遼寧省)에 100명~15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북경(北京)과 천진(天津), 청도(靑島)를 포함한 그 일대에는 대략 100여 명 정도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부름을 받고 헌신하여 교회와 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나갔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갔든지간에, 선교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중국에 간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면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혹은 한국인들에 의한 중국선교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중국선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중국이 개방되면서 1980년대 초 미국의 한인교회로부터 다시 중국선교가 시작되었다. 필자가 알기로 재미 한인교회에서 파송하여 중국선교를 위해 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70명에서 100명에 달한다. 이들은 과거 지금보다 더 제한된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달성하였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전후하여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재미 한인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보다 월등히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에 의한 중국선교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사역자들의 입국 시기는 대부분 지난 1~2년으로, 아무리 오래 상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3~4년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역 내용과 대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삼자교회(三自教會)와 연관되어 일하거나 이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병원 등 큰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일하거나, 언어연수 학습을 필두로 하여 성경번역 등을 추진하는 이들도 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역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역이 지금 어떤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 현 시점에서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한국인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 조금씩 공헌한 점도 있겠고 또 부정적인 모습,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을 터이지만 어차피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할 일이고 또 지금이 초기인만큼 장점은 얘기하지 않겠다.

여기에서는 중국선교를 하는 우리들이 자성할 점에 대해,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활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 동안 여러 신문, 잡지 등에서 잘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필자가 설명하는 것에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있지는 않다. 다만, 중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실제적으로 느끼며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중국선교 이래서는 안 된다

첫째, 물질위주의 사역에서 갖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조선족 선교지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선교계나 잡지 등에서 술하게 지적해 온 사실일 뿐 아니라, 실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길같이 조그만 도시에 약 200명 가량의 사역자(선교사)들이 몰려 있고 각종 교파들이 서로 최고의 빠른 선교 교두보를

점거하겠다는 생각으로 팍 차 있다. 요즘 들어서는 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스스로 힘들다고 느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한국인 사역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질 것 같다.

셋째, 조선족을 중국선교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조선족이 중국 선교의 도구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



하얼빈시(哈爾濱市) 기독교회

동안 도구를 참으로 도구되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에 있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실패를 거두었다는 데 있다.

이 도구로 사용하는 일을 올바르게 하려면 조선족들을 순수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섬기며 지혜롭게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일은 안하면서 당신들은 한족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도구 역할만 해내라고 다그치는 태도가 오히려 그들과 조선족 교회를 망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넷째, 현지의 사정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연속성이나 올바른 양육의 준비도 없이 단번에 급격히 떠나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난 사람들의 사역이 현지의 여러 도시, 동일한 소그룹과 교회들에 일관성이나 연속성 없이 계속되는 바람에 중국인들의 참된 성숙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다섯째, 중국 교회의 현재와 장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온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곤 한다.

여섯째, 아무 준비없이 무턱대고 현지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 교회의 잡지, 언론들이 지나치게 비객관적이거나 왜곡된 내용의 보도를 상당히 권위있게 각색하여 싣는 것이다.

확인도 안 된 사실이 보도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여덟째,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중국 현상을 무조건 꿰어맞추려는 태도이다. 중국이 아닌 다른 선교지라면 이런 태도쯤이야 별 문제되지 않겠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라면 문제가 된다. 아직도 한국적인 전통적 선교관을 갖고 중국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현지의 선교를 위해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에 관해 7가지 정도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사역 대상지인 중국과 중국교회에 대한 무지이다.

존 스톱트(John Stott)가 말했다시피 교회는 '거룩성'과 '사도성'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다.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는 사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전파와 사역이 세상 혹은 복음 증거의 대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역의 대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분석하면서 순종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 중국선교에 있어 이 두 가지 요소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과 중국 교회에 대한 무지에 가득차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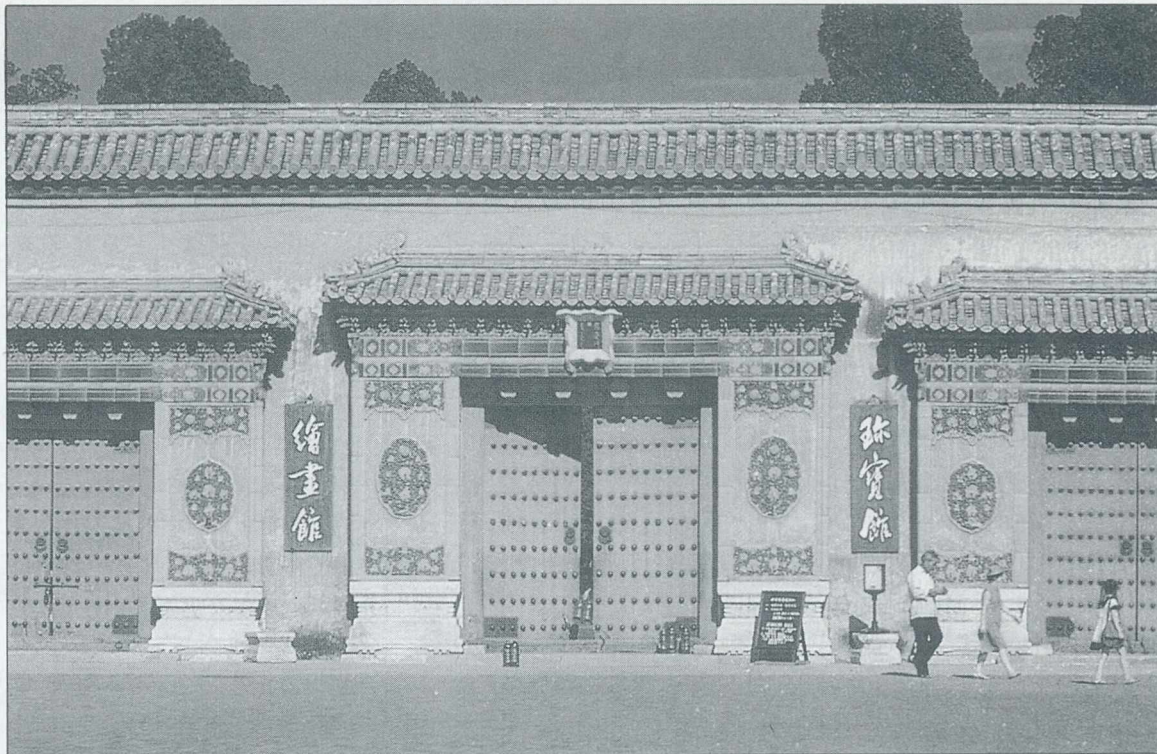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중요한 자료들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우리 모두가 접하는 일,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 등은 너무나 중요하다. 또한 현지에 들어가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미 갖추어진 지식과 함께 생생한 현장감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본국에서는 문서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총체적인 종합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하다보면 중국의 상황은 다 캄캄한 것 같고 도무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믿음의 눈을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대해 바른 분석을 함과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밀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일부 사역자들의 돈키호테식 소영웅주의, 현대 한국 교회관 선교졸부 현상이다.

셋째,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체계의 준비, 신학적 체계의 준비, 실천적인 체계의 준비와 훈련의 결여이다.

넷째, 중국의 언어와 문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이다. 중국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개 알팍하고 피상적인 지식을 갖



중국선교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지혜롭고 철저한 준비가 전제된다면 창의적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서 자만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교회와 선교부의 성급한 기대, 또 성취에 대한 사역자 본인의 성급한 반응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여섯째, 무분별한 개교회, 개교단 중심주의 위주의 사역자 심사 및 선정 등이다. 또 훈련, 파송, 관리에 있어 비전문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파송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잘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곱째,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개교단 혹은 각자 자기 기관 중심의 편협된 사고와, 그

에 따른 경쟁적인 현지 교두보 점거 계획을 시도하는 것이다.

중국 선교 시장(?)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중국 사역이 정말로 쉽지 않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안문제 때문이다. 앞으로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어떻게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들 중국이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가장 개방된 것같이 보이는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시장이 아직 개방된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폐쇄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개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나온 중국경제 관련 서적을 쓴 경제 전문가는, 중국 시장이 아직도 개방된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6가지로 밝히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와 너무나 유사하게 연관되는 듯하다.

‘중국이 개방된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는 첫째, 관세 부담이 너무 커서 한국의 대 중국수출의 상당부분이 아직도 정상 수출이 아니고 홍콩을 통한 간접 수출인 점이다.

둘째, 중국인들마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중국의 복잡한 유통구조이다.

셋째, 일반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과 너무나 다른 기업구조, 또 기업들의 상황에 따른 가변적 형태들의 변화가 무쌍하여 혼란

된 상태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지대한 경제 상황의 차이에 따른 온갖 변수를 보여주는 각 지역의 상이한 지역성 때문이다.

다섯째, 내부적인 정책의 잦은 수정으로 인해 교역환경이 극심하게 변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중국화된 기업이 아니면 교역을 제대로 하기 힘든 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즉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며, 중국인들 자체가 정보노출을 무척 꺼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전통적인 중화사상과 더불어 사회주의 중국의 사상적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제인의 의견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인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해도, 전반적인 느낌은 중국이 정말 단순한 평가를 내리기 힘들고 변수가 많은 나라라는 것이다. 변수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일하기 쉬운 곳이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이 '보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 쉽게 되지 않는다. 지체롭게 사역하는데 있어서 보안문제는 생명이다.

보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

지 않는 기관들과 개인들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각 개인, 교단, 기관마다 이 보안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중국선교, 이렇게 하자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 상황을 개선하고, 올바른 중국선교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의 방향성 수립과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는, 첫째, 현대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선교학 이론을 수립하여 실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혹은 공산권 선교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특별히 타지역대상 사역과 비교하고 대조해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만 특수하고 다른 나라는 특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다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특수성을 비교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전통적인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성경적이기만 한다면 전통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수용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갖춘 상태에서 창의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중국사역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인 중국선교 철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학을 연구해야 한다. 중국 언어는 물론이고 언어 문화와 관계되는 것, 또 문화, 사

회, 정치, 경제 등을 연구해야 한다. 중국과 중국교회에 대해 역사적으로 통시적인 연구가 행해지는 동시에 현상적, 공시적으로도 연구하는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역자 인선, 허입, 파송, 관리에 대한 공신력 있는 체계를 정립하고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선교방법에 대한 제한성을 인식해야 한다.

전통적인 선교방법이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고 현실과 적용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서양 선교사들의 경험을 듣고 배워야 하지만 무조건 그들의 것을 다 수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인 선교사로 나아가갈 때 그들에게겐 열려 있지만 우리에게겐 닫혀있는 직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열려진 다양한 방향과 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다 창의적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회와 기관, 파송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기대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애써야 한다.

일곱째, 잠재적인 사역자들을 미리 발견하고 교육, 훈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현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무엇이 우선이나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현재 필자가 중국에 와서 일하는 것과 관련지어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바와 공통되는 의견이다. 제자훈련, 지도자 교육,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선교를 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 참으로 특별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고는 안 되며 절대 길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일을 하려면 제자훈련, 소그룹 운동, 지도자 양성 등의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구체적 이야기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해진 다른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몇 가지 의견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선교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13억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특히 교회와 중국 사역자들과 기관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와 각종 협력단체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 사역에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 모든 개인들과 가정과 교회와 협력체들이 어떻게 일을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단이나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시간, 자원의 낭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전문 중국사역 연구기관과 함께 동역하여 일하며 연구해야 할 것이다.

잠깐 동안은 번듯하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 3~4년 짧게는 10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중국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장기적인 사역이 가능하겠는가? 4, 5년 동안 상황이 긍정적으로 잘 진행된다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나라와 또 현지에서 동시에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민하게 꾸준히 살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개교회 중심주의나 교단 중심주의를 떠나 참으로 성경중심적인 자세를 갖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정 중국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엔 없다.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그들에게 담대하게 맡기는 용기도 필요하다. 분명한 사역철학이 서 있다면 어느 교회든지 교단이든지 전문가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 한국 교회가 전문가들을 키우고 관리하며, 연구하고 일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사역자를 파송해야 한

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사역을 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장기 사역자를 파송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 사역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좁고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현지의 사역자들이 얘기한다. 이것은 동시에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명을 확인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말이라 하겠다. 파송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정말 중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열매를 확인하고 먼저 작은 일을 시켜 본 후에 열매를 조금이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

선교지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사역 경험자 중에서 오히려 우수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 개척사역을 위해 부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왕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여 보내는 것이다.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것은 중국의 특수

성과 연관하여 볼 때, 보안문제에 있어 위험부담이 크고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왕이면 교회와나 가까이에 있는, 이전에 알던 이들을 훈련시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교회와 각 개인들에게 맡기신 자원을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선교를 위해 물질을 확실히 사용하기 원한다면 차라리 한국에서 중국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들에 투자하길 바란다.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재정과 확실한 정신을 갖고 사역하는 전문사역 기관들을 설립 또는 지원하고 만들고 후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원하지 않으면 모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간에 함부로 쓰이게 된다. 건물 하나 크게 지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국선교를 하면서 중국정부에게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된다. 북경과 천진에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연관되어 투자하여 지은 선교관련 건물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 두 건물이 중국정부의 소유로 넘어갔다. 쉽게 말해서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던 정부에 의해 소유권을 빼앗긴 것이다.

최근 중국 공사로 가 있는 한 분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자리가

있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중국 정부에서 최근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왔는데, 현재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족 교회에 돈을 많이 가져다주는 기관이나 교회, 개인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투자가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기 때문이란단다.

대부분의 기관, 교회, 개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각종 현금을 하는 것이지만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한국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쏟아붓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인 공공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 신학교 건물 등을 지으면서 무슨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말이다.

현재 중국은 무슨 돈이든 외국에서 돈을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제약들은 자기들의 문건에서 다 제외해 버리고 자양(自養)의 개념도 많이 타협을 본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을 원하긴 하지만 정치적인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의 액수가 크면 이 사람들은 받을 때부터 무조건 의심한다.

맺는말

중국 정부는, 유럽이나 동구에 의해 일어났던 일이 중국에서도

기독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기독교를 주시한다는 말에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혜롭게 믿음을 갖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격대처럼 일하든지 정탐꾼처럼 일하든지간에, 현지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일하게 해도 늦지 않다. 이미 파송하고 후원하기 시작한 사역자나 기관과 긴밀히 연락하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중국교회와 중국 정부 종교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상황과 동태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총체적인 변화와 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잣대로 각종 분석하고 접촉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구술:주피득/ 중국 선교사
정리:권수영/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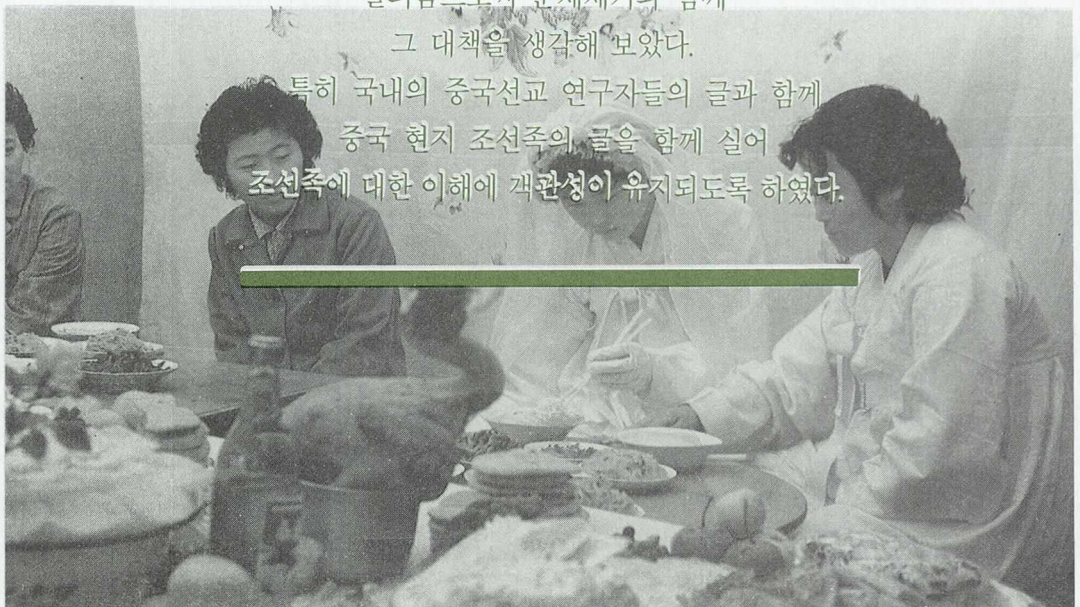


특집/ 중국의 조선족

조선족은 우리와 피를 나눈 동족으로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대상이며,
동시에 중국선교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할 동역자이다.
이런 까닭에 조선족의 과거와 현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중국선교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과거와 현재를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연변을 중심으로 조선족
교회상황과 그들의 삶, 방한(訪韓)형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제기와 함께
그 대책을 생각해 보았다.

특히 국내의 중국선교 연구자들의 글과 함께
중국 현지 조선족의 글을 함께 실어
조선족에 대한 이해에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중국의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석은혜

조선족 이주 역사

중국의 동북 삼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는 많은 조선족이 모여 살고 있다. 북경, 천진, 상해, 항주,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도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으나 조선족 약 2백만 명 중 40%인 80여만 명이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다.

조선족은 17세기 말부터 조선반도에서 산발적으로 중국 동북 삼성으로 이주하였고, 19세기 후반(특히 1889년 한반도 북부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이주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자, 일본의 통치를 피해 우국지사들이 또다시 대량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 공산당 건립시 우리 조선인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편에서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해방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 1952년 9월 3일 재중 한인들은 연변에 자치주를 얻었다.

그러나 문화혁명으로 많은 수난을 당했고 소수민족의 비애를 경험해야 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집체주의가 개체주의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하면서 중국은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연길시는 “작은 서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높은 소비열과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고 있다. 연길 서시장의 규모는 엄청나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정도이다. 연일 봄비는 소비자들을 보면 그들의 소비수준을 짐작할 수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조선족들의 삶을 엿볼수 있다.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오늘날 중국의 조선족이 “우리 나라”라고 할 때는 거의 예외없이 현재의 중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국가관이나 의식에서, 그리고 그

들의 현실적인 지위에서 재일동포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identity) 의식은 한국 방문객과의 대화에서도 언제나 쉽게 확인된다. 중국 조선족이 거의 대부분 한국말을 쓰고 조선족끼리 모여 살면서도, 중국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체의식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조선족의 국가의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 중국 조선족은 이민 이전부터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중국의 새 사회주의의 창건으로 먹고 살게 되자 그들은 이 사실을 공산당의 은혜로 여기게 되었고, 현 국가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둘째, 중국 조선족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였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제가 패망한 이후 중국 내란기에 조선족은 공산주의의 세력을 도와 싸워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는 쉽게 스스로를 중국 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소수민족을 중국 사회에 통합시키고 이들에게 국가의식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한국과 적대관계에 있고 북한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족도 북한과 친밀하게 지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교류가 시작되면서 친척 방문이 가능해지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서울 개최 이후 북한보다 한국이 더욱

대부분 한국어를 쓰고 조선족끼리 모여 살면서도 중국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한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직·간접으로 각종 물자와 사람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요소들이 중국 조선족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에 상당히 깊숙히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여성한복은 물론 한국의 유행가, 음식이 유행하고, 한국의 어린이 동화책이나 교재가 소개되고 있다.

홍청거리는 조선족 거주지역 경제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성이 모인 곳으로 지역내에 눈이 쌓여 있는 높은 산, 울창한 산림, 밀집된 하천과 비옥한 토지, 습한 기후를 갖추고 있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등이 발전하였다. 연변은 중국의 유명한 벼농사 지역으로 우수한 벼품종을 배양하였다.

연변 사람들은 지난 1983년 8월 당시 80 고령의 등소평(鄧小平)이 연변을 시찰하고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더욱 빨리, 더욱 훌륭하게 건설하자”고 격려문을 휘호한 것을 연변개발의 시발점으로 잡고 있다. 그로부터 만 10년을 넘긴 93년 말 현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경제 건설은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중국 당국은 최근 연변자치주의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훈춘 지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열린 조선족 축제행사

현재 연길시 등에서는 삼자(三資: 외국자본의 단독투자, 합자, 합영)기업 개체호가 많이 있다. 또한 한국의 유수한 건설회사가 연길에 한국식 아파트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있고, 대규모 방직공장이 한중합작으로 세워져 있다.

연간 수만을 헤아리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이 연길시의 소비성향을 부추기고 있다. 연길에 살고 있는 한 지식인은 “현재 연길시 경제는 한국으로부터 유입된 돈을 바탕으로 흥청거리는 거품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개방화 추세를 이용해 해외의 많은 기업이 연변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연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그들의 “만만디”식 업무처리와 약속의 불이행, 수송의 불편 등을 들 수 있다.

돈보다 지위?

한족과 조선족은 상당히 다른 가치지향을 보인다. 먼저 한족과 조선족의 직업관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족은 “놀면 놀았지 어려운 일은 하려 하지 않는다”든가, “농촌에서 똥지계를 지고 다니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한족”이라는 등의 얘기에서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조선족은 그들이 비록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치에 젖어 있고, 따라서 교육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선족은 사회적 지위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돈보다 지위를 중요시하고 보통 높은 사회적 지위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금전보다는 지위를 택하는 경향이 조선족 사이에 널리 관찰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한

다. 그러나 조선족 가운데에는 아직도 장사를 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선족은 매우 조급하고, 현실적인 이익에 매달리며, 매우 다혈질이고, 싸움을 잘하며, 남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족과 비교할 때 조급성과 상호불신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한다. 한족은 한 가지 일을 계속하고 어떠한 일에도 만족하고 지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조선족은 주어진 일에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더 나은 일이나 자리를 바라보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선족에게 있어서 금전적인 성공에 대한 열기는 대단하다. 한국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의 급속한 상승의 가능성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조선족에게 있어서 금전적 성공은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금전적 성공이 조선족 사이에서는 사회적 존경이나 지위의 지표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의 괴리는 조선족 사회에서 광범한 지위 불일치 현상과 함께 갖가지 사회적, 규범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위협받는 조선어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의 특성 하나는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의 언어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문법체계와 용어 표현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가령, 한국에서의 ‘아내’를 ‘안해’, ‘채소’를 ‘남새’, ‘역사’를 ‘력사’라고 하는 등이 그것이다.

통상적으로 요녕의 평안도 방언 집단,

앞으로 연변 지역의 발전은 조선족의 중국어 사용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흑룡강성의 경상도 방언집단과 더불어 연변의 함경도 방언집단은 중국 조선족의 세 개의 대표적 조선어 집단으로 꼽힌다.

농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조선어를 사용하는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한어(漢語)를 사용하기도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한어에 대한 요구는 중국 사회의 개혁, 개방 이후에 더 강화되었다. 개혁, 개방은 새로운 기회와 확대를 가져왔다. 새로운 직업과 일이 생기고 사회적 이동의 기회도 많아졌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확장된 영역에서의 진입이나 여기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 조선족에게는 한어에 통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족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방편으로서 한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 연변지역의 발전은 조선족의 중국어 사용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연변 이외 지역에서는 조선족 학교 가운데 이미 완전히 한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고, 그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 가령 길림성의 수도인 장춘에서는 모든 조선족 학교가 조선어 시간 이외에는 전적으로 한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 교육 담당자

들은 민족문화와 민족의식의 유지를 위해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농촌의 조선어도 이미 상당한 부분이 한어화되었지만, 도시에서의 한어화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한어화의 가장 초보적인 유형은 한자로 구성된 단어를 한어로 발음하는 것이다. 개황(開荒)을 “개황”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두 번째 한어화의 유형은 조선어 대신 한자어를 삽입하여 쓰는 현상이다. 출근과 퇴근을 상반(上班), 하반(下班)이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조선말을 하는 중간 중간에 한어를 섞는 경향이다. “어머니 워 저우라(我走了)”(어머니 나 갈게요), “그래 니 꺼라이(你過來)”(그래 너 와라)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돌보이는 교육열

조선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민족으로 조선족 내에는 거의 문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 10대들은 우리 나라와 같이 과도한 학교 수업에 주눅들어 있다. 그들은 한족과 마찬가지로 6세 때 유치원에 들어가 2년과정을 거쳐 8세 때 6년제 소학교에 입학한다.

소학교에서는 하루 6~8교시 수업을 하는데, 조선족의 경우 국어시간에 조선어와 한어를 동시에 배운다. 소학교를 졸업하면 의무교육인 3년제 초급중학교를 거쳐 3년제 고급중학교나 직업중학교 등으로 진학하게 된다.

초중, 고중에서는 하루 8~10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국어(중국어)와 일

어, 영어 등 외국어, 물리, 화학, 지리, 역사, 생물 등을 배운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도 과도한 숙제 때문에 제대로 쉴 시간이 없다.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영어, 수학 등 핵심과목의 과외수업을 받기도 한다.

조선족 3, 4세대인 10대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등 생활습관이 한족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최근에 조선족 가운데 자녀를 한족 학교에 보내거나 보내려는 부모가 상당히 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한족 학교를 다녀야 한어에 능통하게 되고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출세의 전망도 훨씬 더 좋다는 데 있다.

조선족 학생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연변대학교가 주로 조선족 졸업생들의 요청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한어로 교수하기 시작한 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조선족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학에 입학한 후, 특히 연변지역을 벗어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을 한어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고등학교 이하에서도 한족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족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들에게 한족 학교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조선족과 개고기

중국에서는 조선음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수(냉면 포함)와 불고기, 그리고 개고기로 인식되고 있다. 북경이나 다른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도

시에서도 조선음식점이라고 이름이 붙은 곳에서는 주로 이러한 것들을 음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선음식은 밥, 김치, 국, 매운맛으로 흔히 특징지어진다. 한족도 밥을 먹지만 그들의 주식은 빵이다. 그들은 아침에도 주로 빵과 죽을 먹는다. 그리고 김치 등 매운 음식은 별로 없다. 조선족의 식사 전통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추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춧가루에 의존하고 있다.

조선족의 음식은 짭맛을 특징으로 한다. 농촌에서는 장을 자체 생산하며 토장을 만들어 먹는 집이 많다. 국이나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거의 전부가 콩기름이다. 조선족은 잡곡밥보다는 쌀밥을 선호한다. 한족은 돼지고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 반해, 조선족은 쇠고기나 개고기를 더 고급으로 생각한다. 조선족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흔히 개를 잡거나 개를 통째로 사와 요리한다.

10년 전만 해도 한족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비웃으면서 조선족을 욕할 때 “개장국”이라고까지 불렀으나 지금은 훌륭한 음식이라고 칭찬하며 즐겨 먹는다. 접시에 향채라는 채소를 밑에 깔고 개고기를 삶아서 내놓아 향채와 같이 고추장에 찍어먹기도 하고 보신탕처럼 개고기와 채소를 넣고 끓이는 개장국으로 먹기도 한다.

김치 하면 조선족을 연상하고, 조선족 하면 김치를 연상할 정도로 김치는 어디서나 조선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김장은 조선족 생활양식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국을 방문한 동포들이 불고기를 전파, “서울반점”, “부산반점” 등의 상호를 달고 불고기 전골을 파는 식당도 늘어났

개혁개방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취업영역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

만만찮은 여성의 사회참여

중국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당연히 되고 보편화되어 있다. 음식점에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부르는 모습이 흔하며 주부가 무도청(댄스홀)에서 외간 남자와 춤을 추는 것도 흔이 아니다.

본래 조선족은 남성 지위가 여성보다 높고, 남성은 밖의 일을 주로 하고 여성은 집안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78년 공산당 11기 3차 전인대에서부터이다. 덩소평은 이 회의에서 “철밥통(국가공무원 평생직장제)을 부숴버리고 계약제를 실시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개혁개방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다양한 취업영역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직장여성들은 부녀절인 3월 8일 하루 동안은 일터에서 해방돼 집에서 쉬며, 남성들로부터 선물을 받곤 한다.

조선족 여성들은 북경, 상해 심지어 개방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는 먼 남부 광둥성에까지 가서 국내의 물자를 구입해옴으로써 자치주 8개 시, 현의 상품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호텔 복무원은 거의가 여성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소학교의 교원 95% 이상이 여성이다. 연변TV 방송국의 3분의 1이 여성이며, 안전국, 검찰, 법원 등도 10% 정도가 여성이다.

연변 조선족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도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 시나 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부서기, 부현장, 공장, 사업단위의 여성간부는 총간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엔 어느 나라에서나 보이지 않는 성차별이라는 엄연한 현실의 두꺼운 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혼은 개방의 물결을 타고

가족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의 대부분의 조선족 남녀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혼인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은 일부일처제이며, 전통적으로 근친, 동성동본 등의 결혼을 피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의 결혼식을 올리는 전통혼례가, 최근에는 혼례청을 이용한 현대식으로 바뀌고, 결혼식의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혼수가 호화스러워지는 등 결혼예식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성’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서는 혼외정사와 이혼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력하다. 가령 부부가 여행을 하며 초대소(여관)에서 한방을 쓰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결혼 또는 부부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는 신혼 여행때에도 마찬가지여서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을 가고자 하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혼외정사가 알려지

면 당사자들이 속한 단위로부터 엄중한 문책을 받는다. 조선족의 경우 문화적 전통 때문에 그 규제는 특히 심하다고 한다.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또 주위의 친구나 친척, 동료들로부터 각종 설득과 압력을 받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족이나 조선족이 다 마찬가지다. 1980년 개정된 법률에 “감정차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간 이후 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년 정도 별거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통례이며, 직장인은 이혼을 할 경우 상사의 협조문을 받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 같으면 이혼을 말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쉽게 협조문을 써 줄 만큼 달라졌다.

쌍방이 합의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하게 된다. 법원은 자녀교육 재산분할 문제 등을 이혼판결서로 판시하는데, 자녀양육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맡는다.

농촌에 사는 부인들은 농촌을 떠나기 위해 여자가 먼저 이혼을 소송하고 도시에 직장과 집을 가진 남자와 전략적으로 혼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농촌 여성들이 정신생활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남자보다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다. 또한 최근 무도청이 많이 생기면서 남자에게만 여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도 가끔 문제가 되고 있다. 무도청에 드나들다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60이 넘는 남자가 이혼하는 경

우도 있다고 한다.

돈을 많이 번 개혁호 가정에서는 이른바 “고가이혼(高價離婚)”도 생겨나고 있다. 돈을 많이 준다고 부인을 설득해 이혼을 성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이혼의 주요 사유는 모두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부모와 별거하는 자녀의 수가 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순결 의식이 약화되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

개혁, 돈, 범죄 - 사회가 흔들린다.

개혁개방의 부작용으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각종 범죄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연길 사람들은 “서울보다 규모가 작거나 빈도가 낮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연길에서 있을 건 다 있다.”고 범죄증가 현상을 개탄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훔쳐가는 도둑은 물론, 조직폭력과 사기, 강도, 살인,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와 지능범죄는 갈수록 늘어나 인심을 사납게 한다.

또 대부분이 돈 문제로 인한 것인데다가 범인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악의 확산과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개혁개방과 함께 홍콩, 대만에서 들어오는 비디오는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다른 세상을 보여주면서 중국 조선족 10대들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도청, 오락청, 커피청 등은 10대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범죄환경이 되기 십상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3청을 드나들면서 놀고 즐기며 범죄수단을 익히게 된다. 또 돈을 벌겠다고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



개혁·개방, 서울에서 전파된 각종 향락·퇴폐 문화가 조선족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 사진은 고급 가라오케의 모습.

또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놀고 있는 구직(求職)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급증,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0대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의 72.5%가 돈과 관련한 것으로 밝혀져, 10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해외 나들이를 이용한 범죄는 보다 지능적이다. 한동안 한국붐이 불다가 한국의 입국심사가 강화되자, 요즘은 구소련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에 편승, 구소련에 있는 친척의 초청장을 만들어 주는 직업적 위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걸어

우리는 이 글에서 조선족의 이주 역사와 그들의 삶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이것들이 전부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선족 사회의 변모해 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개혁 개방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내왕이 잦아지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가는 곳마다 유흥업소, 가락오케 등이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사회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다녀온 한 사업가는 한국 사람들이 연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개탄하였다.

지금은 중국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렇지만 같은 조상의 피를 나누고 남겨진 겨레를 이어온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자.



비록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이들의 핏줄에는 우리와 같은 겨레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연길교회를 통해 본 조선족 교회

장하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기독교가 전해진 과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선인들이 만주로 대량 이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들에게는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필요했고, 기독교야말로 그러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주에서 직접 전도하여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6년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구레선 선교사가 중국 조선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06부터 1911년까지, 북간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는 교회 성장의 황금기였다. 역사적 변혁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북간도 교회는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1912년에 원산 상지교회에서 함경노회를, 1917년 용정교회에서 함남노회를 조직하고, 1921년에 간도교회를 설립,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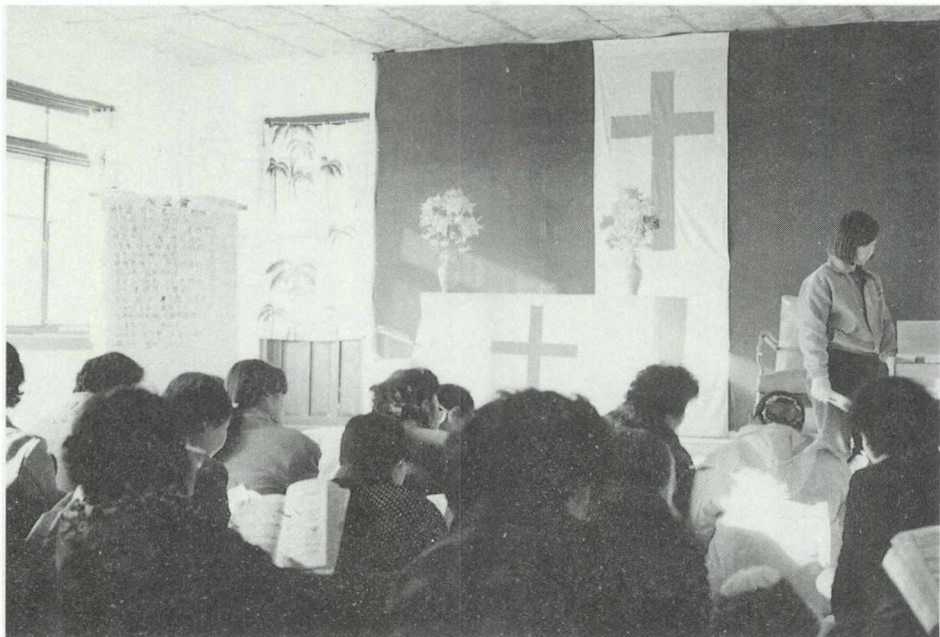
다.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은 조선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종교성이 강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조국 독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의 기초가 종교단체였기 때문이었다. 1945년 해방 이전의 중국의 조선족은 어느 누구나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던 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당시 조선족의 70%가 기독교 신자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되면서 기독교 박해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조선족 신도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종교생활도 약화되었다.

가장 큰 시련기였던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에는 많은 신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교회도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다. 외형적인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지하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셨다.

용정시(龍井市)
삼합진 북흥기독교회



조선족 기독교 현황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7년 3월, 국무원 소속의 종교사무국이 회복되면서 삼자 애국운동위원회가 다시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닫혔던 교회가 하나하나 문을 열었고 교회가 다소나마 예배의 자유를 갖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

1979년 4월 영파(寧波)의 백년당교회가 문을 열면서 1979년 11월부터 조선족 교회도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1981년 연변의 연길교회와 심양의 서탑교회도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심양 서탑교회는 최근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당을 증축하여, 중국에서 제일 큰 조선족교회로 오아은 여목사가 시무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교세가 신장되고 있다.

1982년 유일한 조선족 신학교인 동북 신학원이 다시 문을 열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요녕성의 한 삼자교회에서

1982년 1만 권의 조선어 성경책을 인쇄하였는데 조기에 매진되었고, 한국에서 많은 성경책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성경책이 부족한 상태이다.

'80년 이후 중국 조선족들의 기독교 발전 상태를 살펴보자면, 중국에서 비교적 조선족이 집중된 연변에서는 이미 2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며 요녕성과 흑룡강성에도 기독교신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심양, 연길을 비롯한 목단강, 도문, 무순, 안산, 철령새 등에 교회당들이 세워져 있다. 조선족들 가운데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은 조선어 찬송가인 <연변 찬송가>의 발행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조선족 통계에 의하면 현재 조선족 200여만 중 조선족 성도수는 12만 명이라고 하나 한국 교회 측의 발표에 의하면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1994년 한국을 방문한 유두봉 목사(연길교회 담임)의 말에 의하면 길림성에만

60여 개의 공인교회와 1천여 개의 처소가 있으며, 15명의 목사, 3만 5천명의 신도가 있다고 한다.

신도들은 주로 할머니 등의 노년층과 장년층이었지만, 최근 대학생 신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자신을 회생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에 큰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연길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일어난 건축 문제의 전말을 알아보기로 한다.

연길교회 연혁과 신앙

1915년에 설립된 연길교회는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교회 공식적인 명칭은 “조선족 예수교 장로회 국자가교회”였다.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교회가 폐쇄당했다가, 1981년 등소평의 개방 정책에 의해 교회가 회복되었고, 그 해 9월 20일 유치화(유두봉 목사의 아버지) 집사와 김원배 장로 등이 복당 기념예배를 드렸다.

1984년 김성하 목사가 취임하였고, 1988년 유두봉 전도사가 동역하게 되었다. 1992년 9월 김성하 목사가 별세하자, 1992년 1월 5일 유두봉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조선족 기독교인들은 지난 80여 년 동안 연길교회를 이끌어 온 유일한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역대 지도자들의 숭고한 신앙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연길교회는 두 번의 커다란 고난기(일제시대, 문화대혁명)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연길기독교교회를 소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유치화 장로와 임경업 장로, 김성강 등이다.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반정부주의자들로 색출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우파모자(右派帽)”를 쓰고, 죄패를 목에 걸고 거리를 끌려다닐 때마다 당해야만 했던 수모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갖가지 옥설, 침뱀음, 돌던짐, 구타 등을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 또한 일제 시대 “신사참배강요”는 그들의 신앙을 점점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연길교회 건축에 따른 문제

연길교회는 1994년 10월 기존의 예배당에서 현재(연길시 삼꽃거리 109호)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기존에 있었던 예배당은 서쪽으로는 연길내 시장이, 동쪽으로는 연길 백화점 그리고 시장통에 있는지라 주변 공간이 전혀 없었다. 사실상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배당 이전은 시기 적절한 일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현재(연길시 삼꽃거리 109호)의 위치로 옮길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는 그 건축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전이었다.

연길교회는 몇 년 전부터 교회건축과 관계되어 큰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 진통의 원인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건축비 사용에 관한 문제”였다. 건축비 지정 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적이 있었고, 환전 과정에서 건축 현금을 횡령하여 달아난 경우도 있었으며, 교회 건축장부에 미기입된 금액(외국으로부터 건

**결국 모든 신도들이 쓰라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시대적 요청 앞에 회개운동에 동참했다.**

축비 명목으로 받아 왔지만 교회 재정부에 채 입금시키지 않은 일)이 있었음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실 건축비 재정 감사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연길교회 건축비에 관한 여러 뜬소문이 있었기에 새로운 건축부지로 옮겨가기 전 풀어야 될 커다란 숙제였다. 워낙 복잡한 문제였기에 그 해결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밝혀 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문제의 건축비에 대해 다른 방편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이 작업에 직접 참여한 한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사실상 건축비는 현재 담임목회자인 유두봉 목사가 남경신학교 재학시와 졸업 후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지라 현재 유두봉 목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 때 당시 시무중인 김성하 목사와 * * * 장로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건축비건에 대한 문제를 남겨놓고 갑작스레 김성하 목사가 별세했고, 새로 부임한 유두봉 목사는 부임 시작부터 이 문제를 떠맡아야 했다. 갖가지 낭설과 그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다가 심지어 미국 모 신문에 그를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비밀 통장이 다수가 있다는 것, 둘째, 주택을 몇

채씩 소유하고 있다는 것, 셋째, 정부와 유착하여 일정금액을 정부에 바쳤다는 것, 넷째, 외국으로부터 방문 온 목사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현금을 받은 후 정부(종교국)와 나누어 가졌다는 것, 다섯째, 유두봉 목사가 너무 자만하며 교만하다는 것 등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모욕까지 덧붙여 있었다. 심지어 연길교회에 돈을 주는 것은 마약을 주는 것이라고까지 비난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착수한 진상규명은 그 동안 갖가지 누적되어 왔던 의혹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힐 수 있었다. 현금한 사람 명단, 현금 금액, 재정 사용 용도, 미확인 현금 등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사방에서 쏟아졌던 낭설로 많은 상처를 입은 채 연길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일신하기 위해 쇄신작업이 시도되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허물어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되 우리 가진 것부터 믿음의 분량대로 바치자는 선언’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모든 신도들이 쓰라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시대적 요청 앞에 회개운동에 동참했다.

이 회개운동의 결과로 무엇보다도 교회일치운동이 일어났다. 반목적 분위기는 사라지고 ‘교회 건축’이라는 목적하에 온 교우는 기도에도 열심을 다했다. 한 마디로 “우리 교회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라는 마음으로 뜻을 같이 했다. 연길교회 성도들이 드린 현금은 전체 건축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금액이었다. 외국의 원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옮기기를 힘겨워 했던 신도들에게 더없이 좋은 시작의 불씨였다. 사실 앞으로는 자체 예산으로 교회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부의 두 랍돈과 같은 물질을 드린 그들의 믿

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리라 믿는다.

현재 교단에서 집중적인 후원이 약속되었고 지난, 1994년 가을 총회시 총회 차원에서 돕기로 결의된 바 있다. 연길 교회가 새로 이전할 부지는 지난 10월경 기초공사를 이미 마쳐 놓은 상태이고,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는 이 대목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해와 낭설, 갖가지 추측이 사실로 둔갑하여 여론화된 사실에 대해 현지의 사역자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현지 교회의 상처를 싸매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확대시켜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이 선교사의 언행심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선교사는 영원히 객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길교회와 타교회와의 관계

지역적(거리문제) 한계로 빈번한 교류는 없지만, 지난 1993년 9월에 시작한 “연변전도원 훈련중심” 제1기생 45명이 졸업 후, 연변지역은 물론 길림지구까지 사역의 범위가 넓혀졌다. 신학교의 “실습과정”의 일환으로서 이전보다 자주 교제하게 된 것이다.

몇 년 전만해도 유두봉 목사는 혼자서 연변지역을 돌보았는데 그것은 힘겨운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처소 개척에 따른 갖가지 예배인도, 세례식, 성찬식, 각종 교회 문제해결 등 총체적인 관할은 한 사람의 개인적 한계를 훨씬 넘어선 업무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가 1994년 10월 연변지역에 박서용(동북신학교 출신, 왕청기독교회 담

당), 박영호(동북신학교 출신, 용정기독교회 담당) 두 분의 목사가 탄생했다.

이제 세 분의 목사가 지역을 분할하여 관할하게 되었으니 연변지역 부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1993년 4월 16일 연변기독교 당회 제4기 위원회 제1차 전체위원 확대회의에서 통과한 “연변기독교 시행 장정”은 연변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통일하며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합구성 조직이다.

이 회의 설립에 따른 목적을 보면 “연변기독교 양회 제4회 8차 상무위원 확대회의 결의로 연변교회와 처소를 신령하고 유력하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주 양회 실무기구인 연변기독교 연합 당회를 설립하고 연변기독교 시행 장정을 실행한다.”라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지역교회와의 보다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는 각 지역(8개 현, 시)에 전도사 이상의 교역자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족 교회의 문제점

중국 내 조선족 교회는 기독교 열기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날마다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도자의 부족이다. 최근까지 조선족 목사는 오애은 여목사와 유두봉 목사 2명 뿐이었으나, 근래 연변에서 2명의 목사가 또 안수를 받아 4명의 목사가 조선족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하지만 계속 늘어만 가는 교인, 처소, 삼자교회를 돌아보기에는 여전히 지도자가 태부족한 실정이다.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그러나 한국교회의 접근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해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로부터 제자양육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나라의 극동방송이나 아세아방송을 듣고 기독교 지식을 얻고 있을 뿐이다.

농촌에 사는 어떤 신도는 지도자가 없고, 교회당이 없어 혼자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다가 자신도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겨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등 유월절 의식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면서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분들을 양육할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둘째, 조선족 교회는 아직도 성경과 찬송, 신앙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여, 이단이 침투하였을 때 쉽게 미혹되어 이단사설에 넘어져 버린다.

현재 조선족 지역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통일교, 안식교, 다미선교회, 여호아 증인, 베뢰아, 엘리야선교회 등의 이단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신도들을 미혹시켜 자기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셋째, 주일학교 교육의 부재이다. 중국의 종교법규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들에게는 종교사상을 넣어 주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유년주일학교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선족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강습회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주일마다 유년주일학교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해야 하고 주일학교 교재가 공급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조선족 선교 자세

이렇게 조선족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는 음으로 양으로 한국 교회의 도움이 많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접근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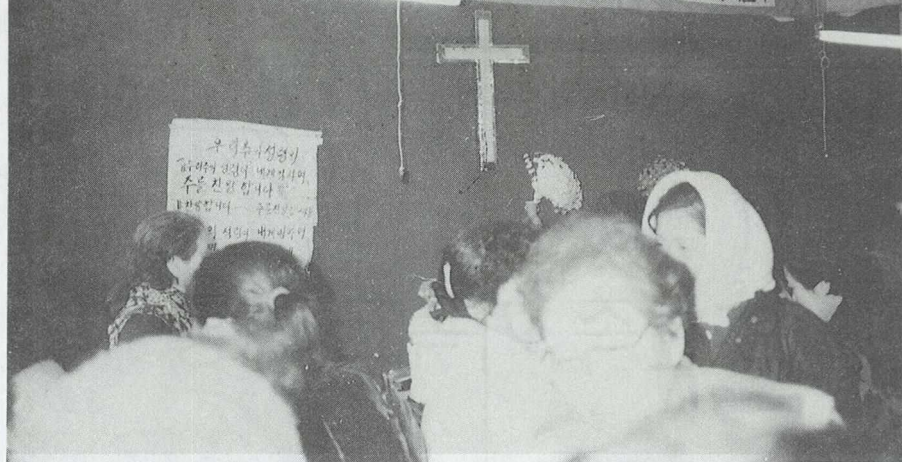
첫째, 물량주의 선교를 해왔다.

선교의 주 목적을 교회당 건축에 두고 교회지를 지을 큰 현금을 들여보내다 잘못되어 중국 공안국과 종교성의 감시와 문책을 받기도 했다. 또 교회당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이행하지 않아 조선족들의 원망과 불평을 사기도 했다.

이제 물량위주의 선교에서 말씀위주의 선교로 선교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칫 한국교회가 보낸 물질이 중국 조선족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

둘째, 경쟁선교를 해 왔다.

옆에 있는 교회가 중국선교하니 우리 교회도 해야 하고, 이 교회가 중국에 교회 하나 세웠으니 우리 교회도 하나 세워야겠다는 등 경쟁선교를 했다. 이제 경쟁선교에서 협력선교로 선교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장춘 치마루 교회의
조선족 예배 광경

대부분의 교회가 중국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족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제는 이 힘을 중국 전역으로 분산시켜 각 지역별로 선교를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선교지역을 나누어서 어떤 교회는 산동지역을, 또 어떤 교회는 동북지역을, 또 어떤 교회는 남부지역을 등등 맡아서 선교를 한다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전문 선교단체와도 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좀 더 바람직한 선교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지도자 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교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 현지 지도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전도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선교사역이다. 중국현지 사역자를 돕고 키우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며 바람직한 선교 방법이다.

둘째, 문서지원 및 출판 사역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물론 삼자교회 측에서도 성경과 찬송가를 발행하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부족하다. 그들은 또한 많은 신앙책자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

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이제는 교회 건축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인쇄소를 세우거나 아니면 기존의 중국 인쇄소와 합작하여 신앙책자를 인쇄하여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교전략으로 도전해야 한다. 요즘 중국에서는 일반 출판사에서조차 보수적인 신앙책자가 발간되고 있다고 한다. 물질이 우상이 된 사회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중국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편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가 되어야겠다.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 조선족 위주의 선교에서 한 단계 뛰어 올라 중국 전역을 바라본다면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 것에 놀랄 것이다.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4장 35절)

연변 조선족 기독교 현황

류연산

편집자 주:

이 글은 연변 조선족 작가인 류연산(柳燃山) 씨가 쓴 것으로 조선족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것이다.

이 글의 필자는 비기독교인이지만 이 글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비기독교인이 본 조선족 기독교 현황이 선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 실었다.

중공 정부 수립 전 연변교회 개황

기독교가 연변지구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903년이다. 조선에서 살 길을 찾아 이주해 온 개척민들은 기독교 신앙을 정신적 기둥으로 삼았다. 원래 조선에 있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신앙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06년 8월 9일 조선의 왕족이며 원 조정의 참찬이었던 애국지사 이상절은 서울에서 용정에 온 후, 기독교 신자들의 지지를 받아 <서전서숙>을 창립했다. 그는 조선족 청년들에게 전도하면서 반일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했다.

같은해 캐나다 기독교 선교사 주리센, 부두이 등도 조선에서 용정지역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벌였다. 그 때로부터 용정교회는 조선 기독교에 귀속되었다.

1913년 영국적 캐나다 선교사 푸제(朴杰)는 조선 청진에서 용정으로 와서 명신여자고등학교와 은진중학, 제창병원

등을 창설하고, 연변 각지를 순회하며 선교하였다. 그는 화룡, 훈춘, 명월구 등지에 유아원, 주일학교 등을 설립했다. 이 시기 기독교는 용정이 중심이 되었는데 1913년에 중앙교회가 섰다.

기독교는 창립 당시부터 반일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1919년 연변의 기독교 신자들은 조선의 3·1운동에 호응하여 3월 13일 용정에서 한 차례 대대적인 대한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독립군의 많은 애국지사들은 기독교의 신자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경신년 대토벌에서 일제는 신도들을 대량 학살하고 교회당과 성경학교를 불살랐다.

1921년 조선기독교 장로파 소속인 함경노회(咸鏡老會)는 함북, 함남, 간도 등 세 개의 노회로 나누어지면서, 용정에 간도 중앙회가 설립되었다. 1925년 간도노회는 동만장로회로 개칭하였다. 1933년 동만장로회에서는 용정에 <농촌 선

교사 배양소>를 세웠다. 1940년 용정중앙교회의 신도는 2,459명에 달했다. 당시 용정구간의 교회만 하더라도 중앙기독교회, 동산교회, 광신교회, 교호도교회, 동불교회, 명동교회, 개산통교회 등 12곳이나 되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에 의해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추방되면서부터 연변의 교회는 침체 상태에 빠졌다.

중공 정부 수립후부터 문화대혁명까지 연변교회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인 1946년부터 연변지구는 공산당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1947년 토지개혁을 시작하면서 연변에서는 토착지주와 지방유지를 타도하는 군중운동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교회는 혁명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도현 명월구교회만 보더라도 1945년 신도가 5백여 명이었으나, 1948에 가서 몇십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 전자선 장로가 체포되면서 명월구교회는 완전히 침체상태에 빠졌다.

당시의 교회활동이란 근근히 문화사업과 자선사업을 하는 데 그쳤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인 1952년, 종교계가 공산당의 통일전선의 일부분으로 되고, “신앙자유”의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종교계의 대표들이 정치활동에 참가했는데, 용정기독교회에서 3명의 대표가 정치협상회의 용정현 제5기 위원으로 되기도 했다. 1958년 7월 15일 연변기독교에서는 기독교파 임시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하지만 다시금 불어닥친 인민공사, 대약진운동과 함께 반우파투쟁이 심

변혁기마다의 정치운동에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는 폐병환자마냥 무력하고 파리기만 했다.

화되면서, 기독교는 또다시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신도들은 대폭 줄어들고 종교활동은 미신활동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1966년 전대미문의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는 잡귀신으로 몰리어 일체 활동이 정지되었고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다.

용정시 기독교 교회당은 중공 정부 수립 전에 6개였는데, 토지개혁 당시 5개를 몰수당했고 하나만을 허락받았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그것마저 빼앗아 신성한 전당을 공장창고로 만들어 버렸다.

목사와 장로, 집사 심지어 신도들까지도 잡귀신으로 몰려 어려움 당했다. 고갈 모자를 씌우고 상두차에 실어 거리에 돌리면서 타도를 외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 어떤 신자들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다.

중공 정부 수립 후 신앙자유라고 했지만 변혁기마다의 정치운동에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는 폐병환자마냥 무력하고 파리기만 했다.

연변 기독교의 현황

수 천년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창조된 인류문명은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의 신앙자유 정책이 다시 시달되면서 종교활동은 다시 회복되었다.

정부에서는 교회당을 돌려주었다. 짧

은 십여 년 사이에 연변의 기독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신도가 무려 2만 명이나 된다.

철퇴를 휘두르는 혁명은 육체를 죽일 수 있으나, 그 정신은 영원히 훼손시킬 수 없는 법이다.

연길시 흥안기독교의 박상화(朴相化) -1924년 4월 24일 조선 함경남도 단천군 북두일면 신덕리 태생) 장로는 자기의 체험담을 이렇게 말한다.

“저희 할머니가 신도였거든요. 저는 9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왕청 대흥구, 목단강, 도문, 안도 등지로 전전궁궁하면서 품팔이로 연명을 했답니다. 가난이 죄라고 소처럼 일하고 가축 이하의 천대를 받았지요. 하지만 교회에 나가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했지요. 해방 후 그냥 교회에

나가지 못했어도 마음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1971년 흥안으로 이사 와서 자리잡고 연길교회가 열리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1990년 집사가 된 후, 나의 집에서 부근의 신도들을 조직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겨우 15명 정도뿐이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오늘 우리는 교회당을 가지게 되었고, 300여 명의 신도에 150여 명의 세례교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용정시 삼합진 북흥교회의 조금숙(趙今淑, 67세, 조선 함경북도 회령 태생) 집사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친께서 조선에 있을 때부터 회령군 동관동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내가 12살 나던 해 석정으로 이사왔는데, 나는



용정시(龍井市) 삼합진 북흥기독교회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는 재가를 했는데, 계부 역시 신도였거든요. 계부 엄경섭은 문화대혁명 때 예수를 믿는다는 죄명을 쓰고 고깔모자를 쓰고 투쟁을 당했답니다. 용정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나는 주일이면 새벽 차를 타고 예배드리러 다녔지요. 그러다가 1987년부터 윤선옥, 박채순, 박수명 등 넷이서 윤선옥이네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해(1993년) 10월 10일 집을 사서 이 교회당을 꾸렸습니다. 지금 성도가 100여 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30여 명입니다. 주일예배에는 평균 60여 명이 참가하고 새벽기도에 10명이 온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모진 투쟁을 받은 화룡시 기독교의 이웅수 권사님은 1983년 신도들을 조직하여 신앙활동을 시작했다. 성경책을 빼앗겨 시초에 설교를 할 수 없는 형편에서 그는 연길교회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한 글자씩 베껴서 배웠더니 그 고초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1994년 11월 27일은 마침 주일이어서 나는 북충에서 삼합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예배장면을 볼 수 있었다. 아침 8시가 넘자 삼합 각지에서 신도들이 혹은 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절대 다수는 여성들이고 드문드문 남성들도 있었다.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총각, 처녀들도 있었다. 9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숨이 턱에 닿아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북충에서 십여 리 떨어진 마을에 사시는데, 아침 조반을 일찍 하고 걸어오는 길이라고 한다. 힘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비를 절약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 등소평 동지가 개혁개방을 한 다음부터 저는 마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영도 아래 수십 년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유물사관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원인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대체로 유형을 따지고 보면 아래의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정환경에서 비롯된다.

화룡시 노와진 노로와촌의 최수영(崔壽永, 61세) 노인의 고향은 경주이다. 1941년 개척민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저는 일제시기 소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 그 다음부터는 당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등소평 동지가 개혁개방을 한 다음부터 저는 마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을 믿고 당의 영도 아래 하나님을 믿는 셈이지요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지 8년이 됩니다. 처음엔 셋이었습니다 1993년 5월, 7명이 늘어나고 우리 집사람이 참가하면서부터 신도가 불어나 지금 전 노과진에 34명이 된답니다. 리수에 다섯, 서호에 둘이 있고, 그 다음은 모두 노과촌 사람들입니다. 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겨울엔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농한기엔 주일예배만 드린답니다.”

최수영의 부인 강명월(姜明月, 55세, 조선 함경북도 북청군 북청읍 태생)은 남편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아왔었다. 그런데 먹물을 가까이하면 먹물이 들기 마련, 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켜 온 보릿자루처럼 앉아있으려니 몇쩍어 함께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뒤적거리다 보니 자연히 그 속에 휘말려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편보다 더 충실하고 열정적인 신도가 되었다고 한다.

용정시 삼합진 북흥촌의 조금숙 집사의 아들 박창근(朴昌根, 39세)과 며느리 이란선(李蘭善, 37세)은 오랜 신도라서 용정으로 예배 드리러 갈 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로 차비나 보태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사가 되어 용정으로 다니던 교회를 한 마을 윤선옥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쓰게 되면서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수 격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재작년 교회당 집을 살 때에는 자기들 집을 판 돈 2,500원을 현금하기도 했다고 한다.

둘째, 정신적 고독과 슬픔으로 의지할 곳을 찾는다.

용정시 개산툰진 남춘옥(南春玉, 55세, 개산툰 펄프공장 직공병원 주치의) 집사는 자기가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를 밝힌다.

“해방 후 학교를 다녔고 더구나 의학 공부를 한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배운 제가 하나님이 홀로 사람을 빚고 남자의 갈비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세상에 저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저는 고독한 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가장 공평하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지요. 벌써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제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놈이었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영순(高榮順 61세) 집사는 1989년부터 신자가 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하늘에서 우리가 치면 하나님이 호령한다고 했었답니다. 그런 연고로 나의 머릿속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였거든요. 80년도에 남편이 병사하고 나서부터 나는 고독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남몰래 울고 지새운 밤이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귀신을 믿기도 했지요. 점을 치고 좋다는 방책도 가리지 않고 가지가지 다 해 보았지요. 그러나 아들까지 잃고 나자 그만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교회에 나가보라는 전도를 받았지요. 귀신한테 매달렸다가 결국 실패하고나자 열른 마음이 기울지 않네요. 하지만 가봐야 밀질 건 없지 않느냐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답니다. 처음 한동안은 마음이 흔들리더니만 꾸준히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해오니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고독과 슬픔을 씻어주고 계시답니다.”

시장경제는 인간을 돈벌이로 떠밀고 있다. 돈은 인간의 정을 마르게 한다. 혼 혼한 인정이 결여된 금전세계에서 고독과 슬픔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짓궂은 이 그림자를 거두워 줄 빛은 무엇일까?

셋째,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보고(寶庫)이다.” 이는 셰스피어가 “헨리 6세”에서 한 명언이다.

용정시 개산툰진 교회의 김국성(金國星 25세) 집사는 말한다.

“저는 원래 술 잘 먹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큰소리로 한바탕 떠드는 것이 사는 재미인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뭘 하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 사는 게 허깨비나 다를 게 뭔가 하는 의혹도 들고요. 나는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나는 책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통을 해소할 만한 묘책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언젠가 『동물세계』 프로에서 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다시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람도 죽은 다음 다른 그 무엇으로 변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한번은 저의 동창생 이순복 집사가 전도를 하더군요. 그때 나는 천국의 신선들은 방석을 깔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차차 교회 쪽으로 생각이 기울더라구요. 천국이 정말 있다면 가보는 것도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1년 4월 17일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니 그것은 참 진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된 것이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찬양대에서 피아노반주로 봉사합니다.”

고영순 집사는 말한다.

“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셋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런 부러움도 없습니다. 이제 당장 죽는다고 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생각을 하면 더이상 슬픈 일이 없답니다.”

넷째, 사람들은 기적을 바란다.

용정시 삼합진 북흥교회의 이란선은

“이제 당장 죽는다고 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생각을 하면 더이상 슬픈 일이 없답니다.”

김금자 신도의 몸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한다.

“김금자는 시집을 와서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시집과 남편은 화근을 만난 셈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한때는 온 마을이 떠들썩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이젠 병이 가신 듯 해졌다고요. 7년 동안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답니다. 지금 온 집안 식구가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가정의 아주 화목해졌습니다.”

화룡시 남가에 거주하는 이용연(68세) 성도는 말한다.

“몇 해 전에 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천 원 밀어 넣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도 환자의 마지막 요구를 들어준다고 밀착에 실어 교회에 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놀랍게도 병이 나아져, 지금은 보다시피 제발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기적에 감복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답니다. 일편 단심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행적대로 마음과 행실을 가진다면 만사 형통해진답니다.”

다섯째, 훈훈한 인간애가 흐르는 교회



압록강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조선족들. 한복을 걸어놓고 있다가 기념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에게 1원씩 받고 빌려준다.

는 사회의 냉대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안식처이다.

화룡시교회의 박희남(朴喜男, 33세)은 자기가 신도가 된 경과를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아마 화룡의 주먹세계에서 나 희남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싸움도 무던히 했고 구류소에도 부지런히 드나들었지요. 나만 보면 사람들이 슬슬 공포를 뿜습니다. 그러는 꼴이 재미있다고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지요. 차차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도 내가 사는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화룡에서는 악명이 자자해서 누구도 사람취급을 안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88년도에 연길로 가서 꼬치 양고기 장사를 했답니다. 낮 모르는 곳에 가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당하자 주먹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통쾌하게 한번 주먹을 휘둘렀답니다.

중상을 입힌 죄를 받아 치료비를 물고 나니 번 돈에 밀천까지 몽땅 말아먹고 연길을 뜨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다시 화룡으로 돌아온 나는 옛 벗들과 휩쓸려 다니며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모두들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할 때면 오히려 반감이 들기도 했지요. 내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나를 사람으로 봅니까? 농사일을 하려해도 대부금을 주나, 돈을 꿀 수 있나, 삼륜차를 몰면 타 주나, 자형 김기봉이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를 하데요.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모두들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은 나하고 악수를 청하고, 노집사님은 90세의 노환이신데도

나한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더군요. 난생처음 이런 인사를 받아 황송하고 민망스럽더군요. 교회는 인간을 연단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장로님이 주신 성경을 읽으며 찬송가를 부를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의 진리를 깨치게 되었습니다. 세속의 법이란 겨우 행위를 징벌하여 육체를 가두는 데 그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낳는 마음에 부딪칩니다. 도적은 경찰한테만 잡히지 않으면 만사대길이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교인은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거든요.”

현재 박희남씨는 연길 기독교훈련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학습하고 있다.

연길시 홍안교회의 김선녀(金善女, 65세) 성도는 교회의 사랑을 감격해 말한다.

“85년도에 우연히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속으로 욕을 했지요. 그 후 집안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겹쳐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교회에 갈 생각이 나더군요. 90년 8월 26일 연길 교회로 나갔답니다. 92년도에 위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일처럼 근심하여 부조하였는데, 2,000원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병원으로 떠나갈 때부터 성도들은 저의 건강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랑 속에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신앙은 마음의 공허를 채워준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선전과 현실이 맞부딪치는 와중에서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인민의 신앙이 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게다가 곳곳에서 흘러드는 서양문명과 돈의 유혹은 공허감에 허덕이던 사람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선전과 현실이 맞부딪치는 와중에서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인민의 신앙이 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장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인간은 먹고 자는 돼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돈은 생활을 부유하게 했을 뿐 정신적 공허는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용정시 개산툰교회의 최홍옥(28세)은 원래 펄프공장 보위과에서 사업을 했다. 그가 교회에 나오면서 전공반으로 원치 않은 전출을 해야 했지만 그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공공연히 공산당 탈당을 선언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다.

성도들 중에 인텔리와 대학생들의 비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모순된 신도들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종교서적은 인류문화의 보물창고입니다. 현대문명이 뿌리박고 꽃핀 토양이지요. 우리의 학교교육은 너무나도 평면적이고 단순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식의 영역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식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다.

일곱째, 해외 왕래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

홍안교회의 이상욱(李相旭, 32세)은 1990년 한국에 왔다. 그는 불행히도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장이 유착되어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수술비를 낼 수가 없었다. 마침 그때 카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다. 그는 특별 간호를 받아 24시간 동안 간호원이 침대 곁을 지켜 윤번으로 간호했고, 의사와 목사들이 진찰을 와서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렸다. 그리고 병실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세학 교수는 동생을 보살피는 정성으로 병을 치료해 주었다. 퇴원시 병원에서는 그에게 카톨릭의 평생 등록증을 주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큰 병이 걸리면 그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 동안 치료하는 가운데서 신앙심이 싹튼 그는 그 후 한국에 있는 동안 충실한 신도가 되어 집사직분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성도들의 전도를 받게 된다. 명절 같은 때 교회에서는 동포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거리와 골목과 기차역 등에서 나누어 준다. 집을 떠나 외롭게 명절을 맞는 조선족들은 교회에 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장기적으로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신변의 보장이 없고 또 고독한 심정을 달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연변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연변의 기독교는 현재 유아상태에 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똑똑히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교역자의 부족으로 기독교의 미신화가 우려된다.

연변 기독교는 단 3명의 목사가 있을 뿐이므로 각지의 교회를 주관하는 장로나 권사, 집사들은 신앙심은 두터우나 지식이 박약한 분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경해석을 자칫 미신적으로 흐르기 쉽다.

연길시 홍안교회의 한 신도는 사기협 잡꾼같은 아들 덕분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거운 빚에 짓눌렸다. 빚쟁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조리 챙겨 갔다. 아들이 복역하고 있는 중에도 매일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차에 한마을의 성도가 교회로 인도했다. 그녀는 빚쟁이들을 몰아내 달라고 기도드렸다.

석달 후 빚쟁이들은 발길을 끊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고 말했고 주관 장로님도 그렇게 해석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빚쟁이를 만나 왜 빚 받으러 가지 않느냐고 필자가 물었을 때, 그는 다녀왔댔자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분통이 터질 일이라 발길을 끊는 것이 오히려 편하더라는 대답을 했다.

둘째,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 집행의 경직성이 교회의 성장을 해칠 수 있다.

현재 적지 않은 곳의 정부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보고 적대시하고 있다. 어느 한 진의 종교를 책임진 당 간부는 오랜 신도인 자기 부모들의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곳의 노인협회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협회에서 제명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 종교정책에는 교회와 교회의 거리가 5리이면 교통상 문제 때문에 교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교회당을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셋째, 종교 활동에 제약을 주는 당의 종교 정책이 오히려 이단을 불러들일 수 있다.

1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전도가 불가능하며 교회당 밖에서의 전도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들의 선교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폐단을 낳는 경우도 종종 있다.

화룡시 서성진교회는 1992년 미국 다미션교회의 선교사의 설교를 정부 몰래 꾸준히 들어왔다. 그 선교사는 10월 28일 모두 천국으로 가게 되므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전기문 집사는 농삿일을 팽개치고 기도만 드렸고, 어떤 성도들은 집단자살을 계획하기도 했다. 뒤늦게 알게 된 정부에서 간섭을 해서야 한차례 치루어질 비극이 미연에 방지되었다.

이같이 사이비 목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와 그릇된 설교들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바르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종교계와 협력하여 목사들을 초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으로부터 무분별한 교파 유입과 한국의 사이비 교역자들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연변 곳곳에 일어난 교회당은 거의가 한국 기독교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 용정시 개산톤교회는 최용환 목사가 시무하는 한국 수원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서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이비 목사들의 비리 행위 때문에 교회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한국의 한 목사는 연길시 한 여성과 오랫동안 내연의 관계를 계속하다가 결국에 그녀를 기생집에 팔아버렸다. 그녀의 집에서는 몸값 15만 원(인민폐)을 가지고 가 다시 데려왔다. 그리

현재 연변 기독교는 자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 또 6·25당시 다리 하나를 잃은 목사는 연길에 와서 한 소녀를 수양딸로 삼아 기르다가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

연변대학 역사학 석사 박길춘 씨는 1992년 공산당에서 자진 탈당하고 그 이듬해 대학교 강사직을 버리고 연길시 민주춘에 안식교를 세웠다. 지금 대학교 학생들과 인텔리들은 그 교회로 쏠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교파싸움의 영향을 받아 연변기독교에서도 이단으로 배척하고 있다.

현재 연변 기독교는 자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에서도 각별히 주목하고 정책범위를 넓혀가고, 어떤 것은 묵과하고 있다. 연변 기독교훈련센터가 서고 이미 20여 명은 졸업하고 지금 2기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신학대학 졸업생들이 속속 연변으로 오고 있는데 용정시 박용호 목사도 그 중의 하나이다. 올해 32세 젊은 나이에 지난해 11월 18일 안수기도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현재 용정교회의 성도는 1,800여 명인데, 박 목사는 2,000년이면 1만 명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변 조선족사회의 융성발전과 연변 기독교의 건전한 성장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류연산/연변 조선족 작가

조선족 교포,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

권수영

들어가는 글

중국인이면서 한국인인 조선족. 우리에게
게는 잊혀졌던 역사요, 잃었던 동족이었
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
기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90년 아시안 게임을 시발로 시작된
그들의 한국 방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동족이라는 반가
움과 잊혀진 역사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조선족들을 바라보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문
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품지 않으면
안 될 숙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근래 들어 한국을 방문하
는 조선족 교포들의 삶을 사회적 배경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열풍'과 이로 인해 변화
되어가는 조선족 사회의 상황도 알아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 이
제 이들을 맞은 지 5년 이상된 한국 사
회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할 지 함께 생
각해 보고자 한다.

조선족 교포들의 방한(訪韓) 어떻게 되 어왔나?

중국 조선족은 고향과 친척, 돈을 찾아
한국에 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
국을 방문한 조선족은, 84년 490명을 시
작으로 91년 36,147명, 92년 31,500명, 93
년 12,227명, 94년 22,000명에 이른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중국 내의 전체 조선
족 2백만 명 중 13% 가량이 이미 한국
나들이를 한 셈이다.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된
국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0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
호가 개방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
족 교포들의 모국방문이 대규모로 이루
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전부터 방송을
통해 혈육을 찾는 동포들의 숫자가 급증
하기 시작했으나,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향, 친척을 찾아 한국을 찾는 조선족
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에 이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한약
재를 팔아 많은 돈을 벌며 귀국한 것이
소문나면서 더 많은 조선족 교포들이 한
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얼마 후 당국의
억제로 한약재 수입이 어려워진 데다,
중국 약재가 몸에 해롭다는 보도 등으로
한약의 판로가 막히자 체류 기간을 연

장,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예가 많아졌다. 중국보다 임금 수준이 훨씬 높은 한국에서 목돈을 마련해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92년부터는 '산업기술 연수'라는 합법적 명목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그 중 80%가 조선족)이 각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말 현재 19,000명 가량이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 불법체류를 하는 가운데, 정부의 새로운 규제조치로 올해 입국자 수는 작년의 10%선으로 격감되었다.

방한 중국교포 실태

작업장 이탈 등 철새생활

서울역, 시청 지하도 등에서 노점 상인으로 전락하여 한약재를 팔던 중국 교포들이 정부의 단속에 의해 이리저리 쫓겨가곤 하던 것이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관광비자 및 산업기술연수 목적으로 와서 잠적하여 불법체류함으로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취업한 20,947명의 21%인 4,368명이 작업장에서 이탈하였는데, 그 중 중국인이 54.9%인 2,996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이미 한국으로 오기 위해 송출업체 및 브로커, 관련기관에 막대한 수수료와 보증금 및 로비자금을 지불하느라 대부분 빚을 지고 오는데, 그 빚을 다 갚고 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만 한다.

또 합법적인 연수생으로 오는 경우 이들이 받는 연수수당이 월 250\$ 정도로 불법취업자 급여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이들이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작업장으로 옮겨 다니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족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다, 국내에 친척이 많아 업체에 배당된 지 2~3일 만에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자기가 일하던 곳의 다른 근로자까지 빼가는 바람에 중소기업체 기업주들은 조선족 하면 고개를 내젓는다. 애초에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기업주들의 선호대상이었던 조선족 교포들이 이제는 기피대상 제1호가 된 것이다.

불법체류자, 그들의 이중심리

교포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한 89년에 만도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취업선전에 뛰어들었다. 숙식만 제공되면 월 20만 원의 저임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수준의 봉급으로는 취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 교포여인의 귀뜸이다.

“봉급은 최소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숙식은 필수적”이라며, 남자들은 대개 일당 5~7만여 원 수준의 막노동을 선호하고 있고, 여자들은 식당이나 비교적 힘이 덜든 서비스 업체에 취업하려 한다고 말한다.

모국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불만도 더 커진다. 같은 민족이니까 좀 더 나은



시청, 서울역 지하도 등에서 한약재를 팔던 중국 교포들을 위해 열린 '중국교포 초청 위로잔치' (C.C.C 정동회관)

대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교포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말과 행동 속에 깔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이 정도 월급이면 중국에서 1년 수입이 아니냐?'고 생색을 내거나 '지저분하다', '게으르다'고 홍보는 것 때문에 자주 충돌이 빚어진다.

“한국에 온 교포 중 남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거지취급을 당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육설을 들을 때는 비위가 상한다.” “이럴 땐 돈이나 많이 벌어가겠다는 독한 마음밖에 안 든다.” 30대 교포 청년의 솔직한 고백이다.

불법체류자들은 모두가 금의환향의 꿈을 안고 현실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다. 설사 한국정부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설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고,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돈은 한국에서 벌어서 중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

한다.

강제출국과 벌금의 불안 속에서

<강제출국 문제>

'92년 6월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체류자 수는 61,121명이며, 그 중 조선족 교포가 22,0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기간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자들도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경우는 '출국권고명령서'를 발부받은 이들로써 정부가 정한 기간까지 체류가 인정된다. 이 경우 규정을 준수하면 출국할 때 벌금을 물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완전한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정부가 정한 자진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이다. 이런 이들이 단속에 걸릴 경우, 동대문구 회경동에 위치한 서울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보호소 측의 출국수속을 거쳐 강제출국된다.

94년 상반기에 강제출국된 외국인 중에서 조선족이 367명으로 가장 많았다. '94년 7월 중순 경에는 경남 삼천포와 통영 해안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60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입국과 함께 여권을 버리기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느라 보호소에서 보름 정도 머문 후에 벌금을 물고 강제출국 당한다.

<벌금 문제>

1993년 11월 9일, 중국교포 임호(38, 흑룡강성 탕원현)씨는 불법체류로 단속에 걸려 한국에서 모은 돈 200만 원 중 180만 원을 벌금으로 낸 후, 육교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당시 이 비극적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가혹하며 비합리적인지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체류기간 1개월당 1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일 경우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이다.

이미 입국 전에 수속비 및 로비 자금으로 돈을 많이 쓴 데다, 임금 체불 등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또 질병이 생길 경우 그나마 모아둔 돈마저 써버린 이들에게 이 정도의 벌금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임에 틀림없다.

한국 정부는 벌금액수를 높임으로써 불법체류 노동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벌금 액수 때문에 출국을 원하면서도, 출국하지 못한 채 숨어서 지내는 생활을 하는 이들

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코리안 드림

북경 한국대사관 영사부 근처의 여관 지하 쪽방에는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등에서 온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행 비자를 기대하며 장기 투숙하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적어도 하루 이상 꼬박 걸리는 기차를 타고 와서, 꼭두새벽부터 영사관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조선족 수가 매일 수백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서류를 접수시키기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들 중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몇 달씩 여관에서 머무르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한국의 법률사무소가 공증하는 ‘친지방문서’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주었는데, 올 3월부터는 친지방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초청장에 의한 친지방문’ 대신, 한국 법무부로부터 ‘비자발급인증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대책으로 전환하였다.

집을 팔고 빚을 내 거금을 주고 가짜 초청장을 샀다가 한국행이 무산되자 고향에 돌아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생겼다. 한국 정부가 친지방문 규제 대책을 발표한 12월 중순쯤, 3만 원(元)을 주고 초청장을 사서 비자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흑룡강성의 한 60대 노인이 영사처 앞에서 음독자살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한국행을 시도하려 한다.

변해가는 연변, 그 빛과 그림자

한국 방문을 시도하다가 엄청난 재산상,

정신상의 손실을 본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 많은 이들이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팔자를 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인 연길(延吉)은 그야말로 서울의 축소판이다. 인구당 택시 수가 경제특구인 심천(深圳) 다음으로 가장 많고, 사우나, 가라오케, 노래방, 전자오락실, 나이트 클럽 등이 꼭 들어찬 연길시의 흥청거림과 활기는 인구 30만 중 6만 명 이상이 한국에 다녀오면서 서울 문화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온 사람들의 사업 코스는 대개 일정하다. 1년 정도 체류한 사람들은 택시를 사서 낮에는 부인이, 밤에는 남편이 몰면서 영업을 하고, 그 이상 체류하던 사람은 다방이나 작은 점포, 노래방 등을 차린다.

2년 이상 체류하며 돈을 번 사람들은 서울의 사우나, 가라오케, 나이트 클럽 등 소비문화를 들여와 경영을 한다고 한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이 많아지면서 발음도 서울 말씨와 닮아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사고방식도 상당히 개방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변의 지식인들 중에는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출국해서 돈은 벌었지만 사람을 버려놓았어요. 게으름뱅이가 되어 갑니다. 갑작스레 번 돈과 부유함이 오히려 짐이 되고 근면한 민족성의 밑바탕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출국바람에 빈부격차가 생겨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들고 있다. 아직 한국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돈 벌어온 이들을 질시하면서도 부러워한다. 그것이 이들

사이에 무형의 압력과 벽, 긴장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알력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병폐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벌었으나,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경험한 한국인들의 모멸감과 차별대우,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어 추방되는 과정에서 받은 인간 이하의 대접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감정의 골은 깊기만 하다.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체류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했던 한국인에 대한 서운함이 아직도 이들의 뇌리에 불쾌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와 교회에 바란다.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핏줄

조선족 교포 근로자들의 상황이 여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 비하면 보수나 언어소통, 문화 적응, 그리고 사회적 대우 면에서 다소 나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한국에 대해 쓰디쓴 감정과 소외감을 갖는 것은 한국과 한국인에 거는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 피를 나눈 민족,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인 그들에게 환영은 못해주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말이 통하는 동일민족인 조선족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화에 나설 수 있는가?

이들도 엄연히 한 민족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교포들은 남북간을 왕래하며 남한의 실상을 북에 전달하는 전령들인 것이다. 파행적 모국방문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고국을 방문하는 교포들에게 사전홍보를 통하여 불법적인 브로커들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불

법체류자로 일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방문 초청장을 둘러싸고 사기꾼, 브로커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들의 입국을 막는 것은 같은 민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애정 없는 태도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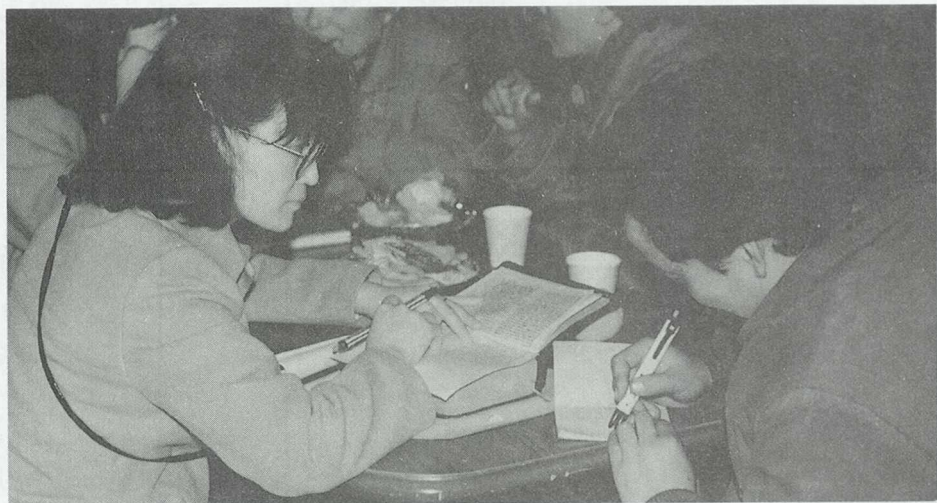
이제부터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그들이 초청장, 비자를 둘러싸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여권, 비자를 비롯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안내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 영사부 등에 이러한 내용의 정보가 담긴 책자, 도서 등을 비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이 한국에서 최대한 잘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한국 사회와 문화, 생활 등을 알릴 수 있는 책, 자료들을 도서관에 기증하여 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준비와 자세들이 갖추어질

때, 이웃이며 형제인 조선족을 가슴에 품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전달되리라 생각된다. 고국을 방문한 이들에게 내미는 국민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슴 뿌듯한 민족애와 인정을 느끼고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교포 2세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은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내적 조건을 제외하고, 완전한 중국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사할린, 베트남 등지의 한인과 교포 2세들의 취업 및 영주귀국 문제를 다룰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인 중국교포 선교에 나서야할 때 한편 한국 교회는 우리를 찾아온 조선족 교포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동족이라는 민족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내 주신 귀중한 영혼들이라는 선교적 관점에서 그들을 생각해야 한다.



고국을 방문한 조선족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 것이다. 일대일로 구원 상담을 하는 한국인 신도와 조선족 교포.

조선족 교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부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껏 지속적으로 이들을 돌보며 선교 사역을 해온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너무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행하면서 너무도 큰 고충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재정적, 인력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구나 많은 교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 일들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제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연합하여 중국교포 선교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중국교포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육신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풍요로운 우리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주고 먹이는 동정 차원의 선교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뿐이다. 우리가 그들의 처한 어려움과 서러움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채워줘야 할 것이다.

언어가 통한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이 다른 한족 근로자나 동남아 근로자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밭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여 금방 직장을 옮겨버리는 조선족들로 인해 쓰라린 배신감을 경험한 기업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더욱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아닌가?

가능하다면 크리스천 기업가, 고용주들이 희생정신을 갖고 이들에게 따뜻한 정과 배려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언젠가는 변화될 이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타문화권 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핏줄을 나눈 민족이지만 분명히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조선족들 역시 중국 정부의 무신론 교육을 받고 살아온 이들이기에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금방 믿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 생각대로 이웃에게 전도하듯 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셋째, 제자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자화 없이,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는 선교는 이곳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뿐이다. 이런 필요 때문에 교회나 선교단체를 찾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한 중국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원래의 삶의 기반인 중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현지의 교회와 연결되어 꾸준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들이다. 이렇게 될 때 조선족들은 중국 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 성장하고 중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맺는말

가족과 친지를 찾아,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남아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들. 그러나 엄연히 우리의 핏줄이요 이웃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소외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며, 영적으로는 많은 교회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영혼이 파리해져가고 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돈벌기를 추구하며 한국으로 한국으로 왔다가, 퇴폐해진 마음과 공허한 심령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훗날 하나님 앞

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물질집착의 영, 소비와 향락, 퇴폐 문화에 길들여진 이들을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자.

돈을 벌겠다는 일념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중국의 곳곳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권수영/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희년선교회 제공>

누가 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까요?

중국 교포 태진국씨 이야기

1992년 태진국씨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을 찾아 일하던 그는 '94년 10월 6일, 물건을 올리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왼쪽 대퇴부가 으스러졌습니다.

옮겨진 병원에서 간단한 기브스만 하고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한 그는 후암동의 어두운 집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태진국씨는 계속 다리가 아프고 걸을 수가 없자 희년선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를 다시 입원시켰을 때 의사의 말에 의하면 며칠만 늦었더라면 평생 불구가 될 뻔했답니다.

6개월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태진국씨는 '95년 3월 15일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밀린 치료비를 아직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산재 보상을 신청해 놓고 있으나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면 막대한 빚을 안게 됩니다.

태진국씨가 돌아갈 때까지 이 분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며 주막 주인이 요구하는 부비를 챙겨주실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희년선교회로 문의바랍니다.
성기순 부총무, 강명규 간사 Tel. 02)858-7829

태진국씨를 이렇게 후원해주십시오

태진국씨의 신앙성장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직접 찾아와 교제하며 격려해 주십시오.

산재보상으로 치료비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금으로 후원해주십시오.

희년의료공제회의 후원자/협력병원으로 가입해주십시오.

중국 조선족을 통한 선교사역의 가능성

김성태

들어가는 글

조선이 중국에 정착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조선족들은 비교적 모국어와 고국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으나, 세월이 흘러 갈수록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감은 틀림이 없다. 조선족들 가운데는 연고가 북한에 있음으로 고국문화를 종종 접하며, 나름대로 문화보존의 동기부여도 되었고, 중국과 남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로 남쪽과의 연관으로 인한 고국문화의 도전과 문화유산의 동질성 등이 귀중하게 대두되기도 하였다. 어쨌든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음으로 인하여 중국인의 세계관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다. 조선족들은 소수민족으로서 중국안의 56개 종족들 가운데서 크기가 여섯 번째 되는 규모에 속한다. 공식적으로는 250만이지만 실질적인 수효는 300만에 가까울 것이다. 조선족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은 12개의 소수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주류 종족인 한족보다는 소수종족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족들은 고국문화에 뿌리를 둔 북한과 남한과의 접촉점과 주류 종족인 한족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과 소수민족들간의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선교의 큰 가능성을 본다. 조선족들은 북한 복음화를 위해 충분한 선교자원이 될 수 있으며 주류 종족인 한족을 이해할 수 있기에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으며 더욱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선교는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조선족의 선교 가능성을 세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선교의 가능성

조선족의 북한 선교의 가능성은 피상적이 아니다. 조선족 교회의 역사적 뿌리가 북한에 있던 교회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아직도 일차적인 역사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생존해 있다. 오늘날 동북지역에서의 교회

북구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족 교인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과거에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에는 조선족들은 자주 북한을 왕래할 수 있었으며, 북한 안에서의 활동도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로웠다. 지금은 북한 안에서 조선족들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어있고 특히 교인들은 북한 기관원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필자가 놀란 것은 북한 당국이 국경 백리 안에 있는 조선족 처소들의 현황과 교인들의 인적 상황에 관한 상당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족들을 통한 선교활동에 두려움과 민감한 예방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족들을 통한 북한선교는 위기에 봉착해 있고 당분간 어떠한 활동없이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지체가 요청되고 있다.

필자는 조선족들을 통한 북한선교 사업 수행시에 장기적인 차원의 전략적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요망하고 있다.

상황을 무시한 만용이나 성급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조선족을 통한 북한 선교는 상당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북한 복음화에 누룩처럼 은밀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한족선교의 가능성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족 교회가 급속히 부흥되고 있는 것이다. 심양에 로스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동관교회가 교인이 육천여 명이 넘고 있으며, 동북지역 도처에 중국교회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중국교인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

국 교회는 삼자애국교회이든지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이든지 인간의 눈에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교회의 성장이면의 문제점으로, 지도자와 예배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중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조선족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자신들을 도울 것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 큰 수용성이 되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교사들은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언어를 배우는 초기 견습 선교사의 단계에 놓여 있다. 이들을 선교 동력화 하기에는 시간이 요청되고 있다.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중국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들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 가운데서 중국인에 대한 선교적 부담감을 가지고 중국인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 있다.

필자가 지면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선족을 통한 중국인 선교사역이 단순히 피상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미 깊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한국 교회의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을 통한 중국인 사역에는 조선족들에 대한 선교적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학적 목양적인 훈련과 사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자료들과 목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교적 훈련 등이다.

소수민족 선교의 가능성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각 종족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서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아무리 소수민족 정책을 잘 시행한다 하더라도



중국 동북부에서 조선족들과 인접하여 살고 있는 헤철족(赫哲族). 미전도 종족이다.
조선족들이 소수민족들과 더욱 친밀하다는 점에서 미전도종족 선교의 가능성이 높다.

도 정치적인 면모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한계성이 있다. 소수민족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서로에 대한 친근함과 상호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들은 중국동북 지역에서 소수민족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 주류 종족인 한족보다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밀접히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선교적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필자는 조선족들을 통한 소수민족 선교의 전략적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야기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의 소수민족 선교는 그만큼 제한이 되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과 어울려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순수한 차원에서의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선교의 가능성은 높으며 외부인보다 위험부담도 적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족들을 통한 소수민족 선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조선족들이 소수민족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훈련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지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중국 국내이지만 문화권을 뛰어 넘으며 때론 생활과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재정적인 곤란으로, 한국교회의 지원이 없으면 조선족 교회 단독의 소수민족 선교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조선족을 통한 소수민족 선교는 그 전략적인 당위성이 높은 것이다.

김성태/총신대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위대한 포기

10월 4일 송상절은 그의 선한 친구 롤린 위커 박사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시애틀(Seattle)에서 상해(上海)로 출발했다. 그는 지금 학식 많은 저명한 학자였다. 중국의 모든 국립대학교는 그가 전공한 분야, 즉 화학 분야에서 그를 환영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영혼의 쓰라린 진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송상절은 그것을 자기 동포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여 주셨으므로 자신의 소명이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체험을 회상해 보면서, 물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환상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환상을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관 속에 누워서, “나는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초월하노라!”고 꿈 속에서 단언한 말을 그는 회상했다. 그는 그의 집 속에 간직한 졸업장과 금메달과 명예의 열쇠를 생각했다.

중국 사람은 모든 학업을 마쳤다는 이런 증거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송상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것들이 유리하고도 화려한 지위에 이르는 통행증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은혜를 입은 부모와 가족을 생각할 때 그는 마음이 동요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교육에 알맞은 분야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는 없을까? 일류 대학교의 화학교수 자리는 그의 아버지가 설교한 어느 강단보다 더 큰 효과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배가 점점 서쪽으로 향해하는 동안 그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도 그의 재능과 학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송상절은 끊임없는 기도로 얻는 맑은 통찰력으로 자신의 지위가 가져올 위험을 내다 볼 수 있었다. 자기를 기다리는 교활한 유혹을 그는 예측했다. 또한 가족들의 끈질긴 설득과 친구들의 아부를, 그는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 그는 바울처럼 세상과 세상의 명성을 단연 포기하려 했다. 자기의 배경을 이루는 것들을 다 불사르려 했다.

어느 날 배가 목적지 가까이에 왔을 때, 송상절은 자기 선실로 내려가서 트렁크 속에서 졸업장과 메달과 회원 열쇠를 꺼내서 바다 위에 던져버렸다. 박사학위증서만 남겨두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다. 훗날 이것은 사진들에 담겨 그의 옛집 벽에 걸려졌다. 1938년경에 코올(W.B.Cole) 목사가 그 집에서 그것을 보았다. 어느 날 코올 목사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송상절은 말했다.

“그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위대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데니(Denney) 박사의 말이 송상절 박사의 마음 속에 새겨졌을 것이다. 이 세상이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한 날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송상절의 위대한 생애의 첫 비결이었을 것이다.

중국선교의 선두주자 조나단 차오 목사

석은혜

홍콩 국제중국복음회(國際中國福音會 China Ministries International)의 대표 조나단 차오(趙天恩) 목사(58세).

적어도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일 것이다. 그만큼 그는 중국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비중을 지닌 인물이다.

혹시 그의 이름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CCRC(Chinese Church Research Center)와 그 곳에서 발행했던 『중국과 교회(中國與教會)』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줄 안다. 한국의 중국 선교와 관련된 잡지치고 CCRC의 『中國與教會』에 신세를 지지 않는 잡지가 없을 정도라고 소개를 하면, 이것을 이끌던 조나단 차오 목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 동안 섬겨오던 CCRC를 CMI(China Ministries International)로 그 이름을 바꾸고, 1994년 한국에 CMI 지부(중국복음선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지부에서 운영하는 중국선교사훈련원에 강의차 한국에 오신 조 목사를 우리는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CCRC, CMI로 사역 확장

CCRC는 1978년에 창설되었다. CCRC의 초기에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 종교 정책의 발전, 삼자교회의 재현과 그 활발한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매우 부족한 때였다. 따라서 CCRC가 치중했던 일은 중국 상황에 대한 연구였다. 즉,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서 발간되는 각종 신문 자료를 포함한 여러 자료와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한 후 분석하여 『中國與教會』에 실는 문서 사역이 주된 일이었다.

CCRC는 홍콩에 소재한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였다. 중국 대륙을 넘나들면서 현지 방문을 통해 생생하고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전 세계의 교회에 전달해 줌으로써 중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기 10년 간은 닫혀진 중국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러했다.

지금은 중국이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어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터이지만, CCCR가 출범한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밖의 교회들에 있어서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나 하는 중국 교회의 상황



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일은 더욱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CCRC가 신학을 토대로 하여, 중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국내 종교 발전 상황과 선교 상황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여러 국제적 미션협의회나 세미나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현재 『中國與教會』는 100호를 끝으로 작년 6월 발간을 마감하고, 『중국과 복음(中國與福音)』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간하고 있다.

CCRC도 아예 이름을 CMI로 바꾸고 CCRC는 CMI산하 연구부가 되었다. 조나단 차오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CCRC를 CMI로 개명한 것은 사역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로 출발한 CCRC가 연구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국 현지에 들어가 직접

사역을 하는 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中國與教會』가 학술적 연구 차원에 치중했다면, 지금의 『中國與福音』은 좀 더 대중화의 성격을 띄게 될 것입니다”

조 목사는 현지 사역의 생생한 부분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中國與福音』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中國與教會』가 담당했던 학술적 성격의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행본 출간 쪽으로 넘겨지게 될 것 같다. 그 한 예로 『中國教會發展史』(가칭)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조나단 차오 목사와 또 한명의 동역자가 함께 작업한 것으로, CCRC가 근 10년간에 걸쳐 연구한 중국 정치와 종교 발전이 그 내용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조나단 차오 목사의 직책은 중국복음선교회의 국제 총재로, 홍콩을 본부로 해서 각국에 설립된 지부(미국, 호주, 캐나다, 자유중국, 영국, 한국)와의 연락 및 총지휘를 맡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각 지부의 사역자들을 만나 각 지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하려고 힘쓴다. 물론 한국에도

CMI의 지부로서 중국복음선교회가 있다. 한국에 지부를 설립한 만큼 한국 교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중국복음선교회가 내건 장기적인 계획은 “삼화(三化)”비전이다. 첫째, 복음을 전할 인재를 훈련해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둘째, 목회를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중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셋째, 크리스천 전문인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중국 문화를 기독교화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의 헌신된 일꾼이 중국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홍콩 CMI에 가서 먼저 중국선교 사역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한국 지부인 중국복음선교회의 추천을 통해 올 수 있다고 조나단 차오 목사는 말했다.

중국선교의 교두보 홍콩

1997년 홍콩은 지난 세기의 협정에 의해 영국의 손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선교사들이나 선교 단체, 교회들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여기에 대한 조나단 차오 목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홍콩은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째 이유로 홍콩은 중국에서 출간된 각종 신문 잡지와 심지어 대만, 미국 등 해외에서 출간된 간행물 등을 신속히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정보의 입수가 용이해서 중국 소식 전문가를 양성해 내기가 쉽습니다.

둘째로는 중국 입국의 교통편이 매우 편리합니다. 비행기, 배, 기차 등이

모두 가능하고 따라서 여행이나 친척 방문이 용이합니다.

셋째로는 홍콩의 사역자들은 영어, 중국어, 광둥어 등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어 손쉽게 연락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훌륭한 연락상의 구실을 하고 있죠. 이런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다 해도 홍콩 교회나 신학교 등은 별 동요가 없을 것입니다.”

조 목사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피차 소속되지 않고 상호 침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지키는 한, 종교계든 비종교계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교회나 신학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제중국복음회 출판 사역이나 방송복음사역은 그리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정치비판을 했을 경우 종교계든 비종교계든 제지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나단 차오 목사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반환 이후 1, 2년 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중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 문제에 대해 간섭을 해 올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홍콩의 중국 반환만큼 예민한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있는 등소평 사후의 중국의 변화이다. 조나단 차오 목사는 우선 등소평 사후 후계자인 강택민의 위치가 그리 확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를 지지할 군부 지지세력이 미비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앞으로 군부의 태도가 중국 정세의 변수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상이

다. 또한 천안문 사태의 진압 책임자였던 이붕(李鵬)의 견제 문제, 개혁 개방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의 안정 문제가 강택민(江澤民)이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면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전제하에 강택민은 군부의 축소와 법제의 개편을 하면서 언론제도도 조금씩 풀어주지 않을까 전망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긴장은 상대적으로 종교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중국이 또 다시 문화대혁명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기독교의 발전은 그리 큰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선교 전략에도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선교에 앞서 연구해야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에 있어서의 연구 사역의 중요성과 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조나단 차오 목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 선교 사역은 하나의 또다른 문화권을 향한 선교사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치성이 아주 강한 나라이기에, 우리가 이런 제한된 국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역을 막론하고 그 첫 단계는 ‘연구’ 작업이며, 연구한 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 훈련을 한 뒤에 파송을 해야 하고, 필드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연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연구 → 훈련 → 파송은 우리 중국 복음선교회의 사역 이념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제가 앞에서 말한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구사역을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인재 양성에 있어 한국 교회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을 배운 사람을 많이 흡수해야 하고 정치, 법학,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발굴해야 합니다.”

조 목사는 발굴된 사람들에게 첫째는 중국어를 배우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최소한 중국 신문, 잡지를 볼 수 있는 실력이 돼야만 중국 사상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까지 줄곧 지식인들이 그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고 논하는지,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연구원은 그 정도의 언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세운
선교전략이나
정책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는 연구원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철학 혹은 문학, 정치 등 여러 전문 분야가 다른 이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 보다 심도깊은 연구를 하게 해야한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자기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선교 단체에게 개방을 한다. 그 이유는 연구 사역은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개방해서 다른 이들이 사용하게끔 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훌륭한 연구원이 되려면 언어 공부는 3, 4년을 해야 그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원은 적어도 석사학위나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 과정은 단지 기초 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원을 하려면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 조 목사의 생각이다.

“연구사역이나 문서사역이나 모두 일반 성도들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교회에 연구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연구를 하지 않은 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마치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는 긍정적인 면만큼이나 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낳고 있다는 것이 양심 있는 분들의 고백이다. 우리의 각성과 바람직한 선교 방향을 위해 조나단 차오 목사의 충고를 부탁해 보았다.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 사역의 원칙

을 터득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중국 교회를 돕고 격려해 주는 보조자의 역할이지, 중국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를 막론하고 그들 모두 자주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역사의 격동과 고난의 환경을 겪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중국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세운 선교전략이나 정책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해 주는 것과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국 선교사역은 결코 돈이나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선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사역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 한국 교회는 선교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기도 한다.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성도들을 부패시키고,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다고 조목사는 말하면서 이 말미에 부탁의 말을 곁들였다.

“가능하면 먼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서로간에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한 뒤 그때 가서 헌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영똥한 사람들 손에 넘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서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양육 사

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어를 못 하면 영어 통역을 세워서라도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들의 존경과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물질은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화교를 통한 중국선교

화교 교회는 중국 선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중국 선교의 전면에 그다지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나단 차오 목사를 통해 그 실태와 참여 방안을 들어보았다.

“홍콩, 대만, 미국 및 기타 지역을 모두 합쳐서, 약 4,800~5,000만 명의 화교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각국에 이민나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중국인 교회(華人教會)가 있고, 이미 훌륭한 목회자와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력과 재력은 상당합니다. 특히 미국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민간 중국인은 그곳에 정착하는 단계라서, 교회 예배만 참석할 뿐이지 전심전력으로 선교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중국인 교회는 대체적으로 기도가 부족하고, 신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지역교회(小群會: 위치만 니가 세운 신앙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이다. 그래서 화교들에게 선교의 불을 일으키려면 첫째 기도를 강조해야 하고, 둘째는 신학을 중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교들을 선교에 참여시키려면, 먼저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효율적으로 제시해 주고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복음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가 그들을 중국에 데려가서 교회의 상황을 보게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정 교회를 방문해서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화교성도는 현지의 가정교회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자로 헌신하기도 했다고 한다.

오늘도 중국선교의 일선에서

조 목사는 중국어문선교회에서 그의 저서 『중국선교 핸드북』(두란노 간)을 편역해서 발간해 준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어문선교회가 한국의 중국복음선교회와 잘 협력해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는 말로 끝인사를 대신하였다.

조나단 차오 목사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산책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할 정도로 매우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중국복음회에서는 자체 훈련을 위해 대만의 도생신학원(道生神學院),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中國宣教神學院), 한국의 중국선교사훈련원에서 각각 가르치고 있다.

또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일년에 서너 번씩 중국 현지에 들어가 제자 훈련 사역을 한다. 그 외에도 원고를 쓴다거나 설교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가장 큰 소망은, 제자 양육을 위해 좋은 신학서적을 써내는 일이다.

아무쪼록 중국 선교에 대한 그의 깊은 열정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어 중국을 주께로 돌려드리는데 더욱 귀중히 쓰여지길 바란다.

석은혜/ “중국을 주께로” 편집장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저는 6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쓰웨

중국교회 사역자들의 삶과 신앙

“저는 6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피곤해서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고, 또 집에 가자니 사역자들과 성도가 걱정될 것 같아 차일피일하는 사이에 벌써 6년이 흘렀어요.”

지난 여름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신학훈련 때 산둥성 출신의 여자 사역자 안쥔이 저녁 식사 후 우리를 신학교수에게 자기 사역 간증을 할 때 한 말이었다. 우리 다섯 명의 교수는 모두 그녀의 사역 간증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지 신앙과 사역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시 한 수 아래로, 그들이 우리의 선생님임을

또 한 번 확인하였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마다 중국인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해 왔다. 그들은 매우 다양했다.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수줍음을 매우 타는 15세 밖에 안 된 안휘성의 한 소녀였고, 가장 나이든 사람은 옥고를 치르며 온갖 산전수전을 겪은 상해의 90세 노인이었다. 어떤 이는 국민학교 중퇴, 중졸 또 어떤 이는 대학원 졸업을 하였으며, 농부, 잡부, 이발사, 의사, 소설가, 연극인, 대학교수 등 전직도 다양했다. 이들은 거의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독학을 통해 또는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 성경위주의 학습을 받았고 왕명도, 위치만 니, 가옥명 등의 신앙계보를 직접, 간접적으로 따르면서 왕명도 등의 신앙유형과 신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있었다.

중국인 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사상과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고, 자기에게 신앙의 길을 걷게 한 신앙선배나 신앙훈련을 시킨 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경계심을 갖기가 일쑤이다. 이들 다양한 사역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체험과 깊이가 있으며, 사역에 대한 헌신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강렬한 충성심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성경에 대해 익숙해 있으며 성경지식이 매우 해박하다. 고난과 핍박을 당연지사로 여기며, 열악한 생활과 신앙환경, 그리고 따르는 수고는 이미 다반사(茶飯事)처럼 여기고 있다.

샤우옌의 사역과 옥중 고난

샤우옌을 처음 만난 것은 '92년

상해의 어느 가정교회에서였는데 막 두 번 옥고를 치르고 나와 휴양 중이었다.

키가 유달리 컸는데 한눈에 그녀의 총명함을 알 수 있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에게 물매를 맞아 아직 얼굴과 몸의 부기가 가시지 않았고, 감옥의 시멘트 바닥과 불결한 환경에서 신경통과 관절염을 앓게 되었다.

샤우옌은 우리에게 신앙과 사역간증을 해주었고 특히 감옥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도 말해 주었다.

구치소에서 그녀는 수차례의 공안경찰의 신문을 받는 동안 동료 사역자들의 이름과 고정집회 장소에 대한 조사에 불응함

으로 남자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주위에는 모두 남자 흉악범이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여자를 보지 못했기에 샤우옌에게 온갖 음담패설을 퍼부었음은 물론이요 도저히 견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공안경찰은 여러 번 그녀를 고문했는데도 아무 것도 알아내지 못하자 결국 「공공질서 파괴」, 「새로운 반혁명분자」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집어 넣었다. 감옥으로 이전되기 앞서 구치소에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자 공안경찰이 샤우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또 심문을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들어간 곳은 침대가 있는 방

이었고, 경찰은 조금 취해 있었으며 잠깐 방을 나가면서 그에게 이상한 눈빛을 던졌다. 샤우옌은 황급히 기도했고, 떨면서 하나님께 보호해 줄 것을 간구하였다. 몇 초 사이였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몰려왔다. 샤우옌은 더욱더 기도를 했고 한참 뒤에 다시 원래 수감된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중에 다른 죄수로부터 들은 말인데 그 이상한 눈 빛을 던졌던 경찰은 방문을 나가서 몇 발자국 못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여전히 뇌를 다친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다.



사진제공: 《守望中華》-목음증주협회(CCL)



샤우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한 것이라 믿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였다.

형(刑)이 확정된 후 다른 감옥으로 이전되었고 그곳에 있는 동안 신경통과 관절염을 앓게 되었다. 감옥에서의 열악한 환경은 육체적으로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과 신앙으로 정신적으로는 기쁨에 찬 생활이었다고 했다. 그때 샤우옌은 겨우 20세였고,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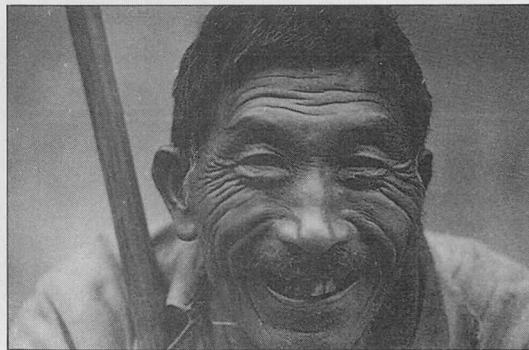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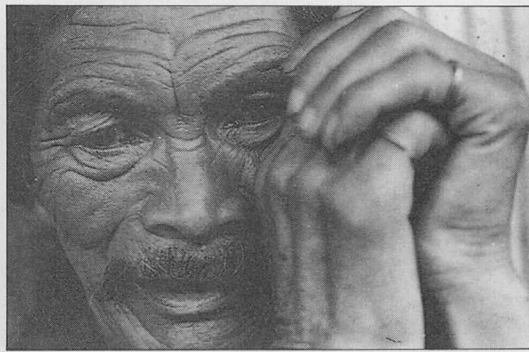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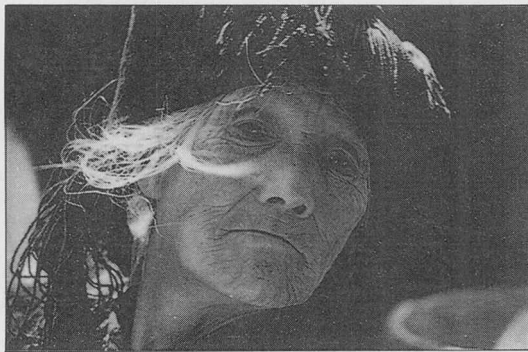
불타는 헌신속에 피어난 시(詩)

샤우옌을 두 번째 만난 것은 그 후 1년 뒤 여름에 실시된 집중 신학과정에서 내가 「중국기독교사」 강의를 할 때였다. 그녀는 나의 70시간 「중국기독교사」 강의를 꼼꼼히 필기하였고 시험 성적도 가장 우수하였다. 샤우옌은 상해에서의 만남 이후의 그녀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 주었고, 특히 흑룡강에서 추위에 떨면서 사역했던 간증을 하였다. 흑룡강 추위가 그녀의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지 않아 현지 사역자들의 권고로 3개월 사역 후 따뜻한 남쪽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와서도 그 지역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훈련과정의 교사로서 사역을 계속하였다.

샤우옌은 흑룡강에 있을 때 썼던 시(詩)들을 나에게 부끄러워하면서 보여주었다. 고등학교 중퇴의 샤우옌의 시어(詩語)들과 시구(詩句)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 이상의 실력이었다. 산문(散文)도 썼느냐고 물으니 몇 편 가져왔다고 보여주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녀가 쓴 시 가운데에는 옥중경험을 칠언절구(七言絶句)로 쓴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경찰에게 물수당한 필기노트

세 번째 샤우옌을 만난 것은 지난 여름 저녁식사를 마치고 희미한 등불의 방에서, 현지 사역자와 가정교회 신학훈련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였다. 갑자기 마당에 나타난 2명의 여자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들을 부둥켜안고 울고 있었다. 우리와 얘기를 나누던 현지 사역자는 급히 나가 버렸고 그들을 다른 방으로 안내하였다. 다음날 아침식사 때 2명의 여자 사역자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중 한 사역자가 샤우옌이었다.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눈 인사만 하였다. 말없는 식사는 한참 동안 진행되었고, 식사를 마치자 지도자가 샤우옌에게 ××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기 신학훈련에 대해 상황설명을 하라고 하였다. 샤우옌은 울먹였고 계속해서 울기 시작했다. 조금 진정된 후 ××지역에서 약 한 달 동안 단기 훈련을 하는 도중



공안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 백여 명의 사역자들이 황급히 도주한 과정과, 일부 사역자들이 붙들린 일과 현재 경찰서에서 여러 명의 사역자가 계속 심문을 당하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 했다. 샤우옌은 모든 서적과 필기노트, 테이프들이 몰수 되었고, 그 훈련장소를 제공한 가정의 식구들이 현재 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으며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날 하루 수업을 중지하고 금식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

다음날, 마당에서 샤우옌은 나에게, 몰수당한 필기노트 가운데 「중국기독교사」 필기노트도 끼어 있으며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그녀는 나의 강의 필기노트를 골격으로 해서 「중국기독교사」를 강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 사

실에 매우 놀랐다. 샤우옌은 나에게 노트자료를 부탁하였고 방으로 돌아온 나는 나의 노트와 참고자료를 가능한 대로 챙겨주었다. 샤우옌은 다시 기억을 되살려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이틀 뒤 샤우옌은 사라졌고 다른 지역에서 흩어진 훈련생들을 다시 모아 단기 신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다른 사역자가 전해주었다. 그 후 샤우옌을 만나지 못했다. 그녀의 신경통, 관절염은 어떠한지, 공안경찰에 잡히지는 않았는지 또 노트를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중국복음화의 진정한 기수

6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안짱도 샤우옌과 같은 20대 초반이고, 집을 떠나 공안 경찰의 눈을 피해 사역하고 있다. 직업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 사역

에 대한 강한 헌신과 사명감에 불타는 사역자이다. 이들은 백절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이며, 마치 옛날이야기같은 감동적인 헌신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중국 교회의 앞날은 바로 이들이 있기에 밝고, 이들이야말로 중국복음화의 진정한 기수들이다. 샤우옌과 안짱과 같은 헌신된 삶과 사역은 우리 해외에 있는 사역자들의 귀감이 되며 소위 선교사라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도 중국 땅을 누비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샤우옌과 안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약에 흔들리는 중국인들

강성광

증가하는 마약 중독자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암적 요소 세 가지가 있다. 바로 독(毒), 황(黃), 흑(黑)이라는 것이다. 독은 마약이고, 황은 음란·퇴폐 산업, 흑은 흑사회(黑社會: 조직 폭력배)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주로 함께 붙어 다니지만 중국인의 정신과 육체를 가장 빠르게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독', 즉 마약이다.

아편으로 인해 얼룩진 근대사를 경험한 중국은, 1950년 강력한 아편 통금령과 엄한 법령으로 아편 거래를 다스려, 거의 30년 동안 마약이 없는 국가라는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경제 개방과 함께 마약 문제가 다시 크게 만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여 지난해 전국적인 마약 소탕령을 내리고, 마약 판매 및 재배, 제조, 복용 등의 엄금령을 내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의 복용과 운반, 판매는 신속하게 중국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91년 한 해 동안 재판한 마약사범 건수는 4,307건으로 이는 '90년도보다 32%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그리고 '90년도 한 해 동안 압수한 헤로인만 해도 2,100Kg이 넘는데, 이를 국제 시가로 환산하면 약 16억\$ 정도이다.

또한 '89년 말까지 정식 등록된 마약 중독자는 7만 명이 넘었고, 그 중 청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마약의 독수(毒水)는 근래 몇 년 동안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마약의 거래, 마약 사범 검거 등이 매년 30% 이상 늘고 있다. '93년부터 '94년 전반기까지 중국에서 26,191종의 마약 범죄가 적발되었고, 7,677명의 마약 사범이 체포되었는데, 그중 1,401명이 사형당했거나 무기 징역을 언도받았다. '94년 1/4분기에 적발된 마약 안건이 약 5천 건이고, 압수된 헤로인은 1,000Kg이 넘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와 38%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근래(94년 초) 정부에서 확인된 마약 중독자는 25만 명인데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

면 실상은 이 숫자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현재 중국에는 마약 복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 중국 각지에 마약 강제성 제독소는 200개 이상이고, 임시 마약 제독소 200여 개, 노동개혁 마약 제독소 64개 정도가 있다. '93년 한 해 동안 이런 곳에서 중독 치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약 5만명이다.¹⁾

지금 중국에는 새로운 추세의 마약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특정한 성(省)에만 마약 판매가 성행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전에는 소수 개인이 이 마약 운반에 관여했으나 이제는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 여자들이 마약 운반과 판매에 크게 참여하고 있다.

마약의 주요 출처

마약의 주요 출처는 이미 국제적으로 이름이난 '금의 삼각지역(Gold triangle)'이라고 하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3국의 국경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은 대부분 헤로인으로 제조되어, 이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운남성을 통하여 중국으로 들여와 소비되고, 또한 상당량이 광둥성 광주시로 와서 홍콩 및 마카오를 통하여 제3국으로 간다.

이 금의 삼각지의 접경 지역인 운남성(雲南省)의 마약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올 1월부터 5월까지 운남성에서만 1,955종의 마약 사건이 적발되었고, 헤로인과 아편 등 각종 압수된 마약이 2,118Kg이다.²⁾

근래에 운남성 못지 않게 마약 사범의 활동이 활발한,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광서장족자치구에서도 93년부터 94년 6월까지 7,100여 종의 마약 사건이

적발되었다. 아편 830Kg, 헤로인 1,650Kg이 압수되었고, 마약 사범 9,300명을 체포했다.³⁾ 그리고 같은 날 14명의 마약 사범을 사형 집행하기도 했다.

필자는 전에 운남성 변경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지방 도시에서 밤 버스를 타고 곤명시(昆明市)로 올 때에 두 번에 걸쳐 10명 이상이나 되는 공안국원의 검문이 있었다. 버스에 올라와 검문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앞에 앉은 젊은 두 부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린 아기의 기저귀까지 벗겨보며 검사를 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 두 부인은 회족 여자들인데, 회족 여자들이 특히 마약을 많이 운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률상 임신부는 사형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임신부들을 이용해 마약 운반을 하기도 한다. 운남에서는 최소한 10차례 이상 임신부가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었다. 그리고 임신부 외에 감숙(甘肅), 영하(寧夏), 청해(青海), 신강(新疆) 등 서북지역의 이슬람의 종교 관계를 이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다.

또 두 번째 검문할 때는 버스 맨 뒷좌석에서 큰 소리가 나서 보니, 20대 중반된 청년이 큰 소리로 울면서 끌려 나왔다. 공안국원이 작은 음료수 강통을 빼앗았는데 그 안에 헤로인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청년은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하였다. 왜냐 하면 마약범은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최소한도 징역 10년 이상이며 정도가 심하면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해진다.

이러한 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운반 등의 범죄자는 계속 늘어나고



평화스럽게만 보이는 운남성의 소수민족들. 그러나 운남성은 중국 최대의 마약 집산지이자 운반통로로서 소수민족들도 이에 이용되고 있다.

있다. 그 이유는 한 달 수입이 100원도 안 되는 데 비해, 마약만 한번 성공적으로 운반하면 몇만 원(인민폐)의 돈을 벌기 때문이다.

운남성 변방지역의 한 마을은 과부촌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에 살던 대부분의 남자들이 마약 운반 및 여러 마약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체포되어 사형당했거나 도망다니기 때문이다.

또 나이 어린 청소년 마약 중독자도 매우 많다. 마약 사범들은 심지어 7~8세 정도의 어린이에게 억지로 마약 주사를 놔서 그 아이가 중독이 되게 하여 결국 마약의 포로가 되게 하고, 또 그것을 미끼로 마약을 운반하면 주사를 놔주는 조건을 달아 악용되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운남성 한 병원 제독소에 직접 가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열두서너 살 먹은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호소

하는 모습은 차마 애처로워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마약 중독자의 분포도가 가장 심한 곳은 운남성, 사천성, 귀주성, 감숙성, 산서성, 광서성, 광둥성으로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많은 사람이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각 지역마다 청소년이 가장 크게 오염되고 있다. 91년 초 중국의 한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중학생인 그들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되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달라고 집단 청원한 일도 있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광둥성 심천경제특구 외곽지역의 한 부락에는 100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가 있다. 이들은 가까운 홍콩, 마카오 지역에 마약을 운반하여 벼락부자가 된 후 그들 또한 그 돈으로 마약을 복용하여 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마약이 미치는 영향

중국 전지역에 걸쳐 마약의 확산과 영향이 심각하다. 상해시에서 '91년 한 해 동안만 80건의 대규모의 마약 판매 조직을 검거했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해 34%가 늘어난 숫자로서, 30년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94년 9월경 마약 제조, 판매 및 소유 혐의로 잡힌 11명의 마약 사범들이 북경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그중 2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리고 북경시는 국제 마약 퇴치일인 6월 25일(94년), 북경 제일 변화가인 동단(東單), 서단(西單), 그리고 북경역 등에 임시 선전대를 설치하고 행인들에게 마약이 가져오는 각종 재앙을 알리는 전단을 돌렸다.

북경시에서만 '91년부터 '94년초 까지 100여 종의 마약 사건을 적발했고, 500명의 마약사범을 체포했다고 한다. 그리고 돌리는 전단지에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소를 소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 북경에는 최소한 4곳 이상의 마약 치료소가 있다고 한다. 치료소 의사들에 따르면 현재 북경에는 어림잡아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 의사의 분석에 의하면 북경의 상습적인 마약 복용자들의 대부분이 갑자기 부를 취득한 개체상인(개인 사업자), 그리고 권력이나 경제력을 업은 소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십 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독 치료를 받지만 80% 이상이 다시 마약으로 빠져든다고 한다.

또한 복건성의 하문시에서는 적지 않은 마약 사범이 적발되고 있고, 많은 헤로인이 대만으로 운반되기도 하며, 광둥

성 광주시 등에서도 헤아릴 수 없어 많은 상습 마약 복용자가 있어 공안국원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해도 잡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마약은 때로 사악한 상술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 한 예로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시의 70개 이상의 식당에서 음식에 양귀비를 집어 넣어 이 음식을 먹은 손님을 마약의 포로로 만들어 떼돈을 번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물려든 사람들이 점심시간에는 두 시간 이상 줄을 서서 양귀비를 넣은 쇠고기탕이나 국수를 먹느라고 아우성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양귀비를 공급한 공급처가 바로 국영 약국이었다.

홍콩에도 마약 사범과 중독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고,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상당수의 폭력 조직원들이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의 한 반 학생 중에 마약을 상습 복용하는 학생이 50%가 넘는다고 한다.

물론 홍콩에는 주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제독소가 있지만, 많아야 10명, 12~13명이 몇 년 간의 신앙 훈련과 투쟁으로 마약의 마수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마약 중독자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재키 풀린저(Jackie Pullinger)’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이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여 지금은 수백 명이 홍콩 정부에서 제공한 땅에 난민촌 같은 공동 생활촌을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특수 목회를 하고 있다. 막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홍콩 TV 공영광고에 마약 중

독자를 위한 치료소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마약의 폐해는 각종 사회 범죄의 온상이 된다. 남자 마약 중독자의 80~90%는 강도나 도둑질을 하고, 여자 중독자의 80~90%는 윤락녀로 타락한다고 한다. 근래는 마약 운반이 있어서 각종 총기가 동원되고, 마약 범죄가 집단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마약 상습 복용자들의 분포를 보면 첫째, 마약 운반 및 마약 사범들, 또는 각종 범죄 및 폭력 집단 조직원들과 술집 접대부, 윤락녀들이다. 둘째, 개체 상인 및 근래 들어 갑자기 부를 획득한 졸부들이다. 이들은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정신적으로 공허하여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마약을 가까이 하다가 마약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급격히 늘어나는 마약 복용자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산동성의 한 금광의 광부들 중 60%가 마약 복용자들과 있다고 한다.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고생을 하지만 어떤 정신적 위로나 만족을 찾지 못하여 마약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 만연하는 마약의 신속한 파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의 기치 아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성취는 이루었지만, 배급주의의 팽배로 인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부재한 가운데, 그들이 정신적인 안정과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중국의 마약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추구하는 중국 사회에 무섭게 만연되어 가고 있다.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정신상의 공백을 채우려는 중국인들의 발길, 마약의 온상인 향락, 유흥업소로 머물게 된다. 심천(深圳)의 한 가라오케 바에서 춤추는 여성들.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사회 현상과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중국을 품에 안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제독소가 중국 당국에 의해 설립되기는 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의술만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근래에 중국 당국이 외국의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제독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의 설립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明報」 94. 6. 27.
2. 「明報」 94. 6. 25.
3. 「明報」 94. 9. 14.

내가 본 중국, 중국인

홍윤표

오늘의 중국인

중국을 다니면서 공항 또는 비행기 기내에서 우리 기업인들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우리들 특히, 중국을 다녀본 사람들은 자신이 중국인을 잘 안다고 과신한다.

필자의 솔직한 생각은 중국인을 잘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만나본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내놓은 공통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도무지 모르겠어” 이 말이 정답이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 측에 속하는 중국인들과 계속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논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참고가 될까 하여 필자의 경험을 피력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 또다른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대만에서 3년 간 살면서 ‘대만 속의 중국과 중국인’을 접해 보았다. 그리

고 최근까지 2년 간 약 1~2개월 간격으로, 매차례 평균 보름 가량 중국 곳곳을 출입하면서 -물론 무역증개와 투자증개라는 업무 때문에 만나보는 사람들의 범위는 제한적이었지만 - ‘중화인민공화국 속의 중국과 중국인’을 접촉해 왔다.

일천한 경험뿐이지만 대학 3학년으로 부터 시작하여 중국정치를 전공한 대학원 시기를 거쳐 지금까지 근 10년 간 줄곧 중국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왔고, 매번 출장 때마다 늘 눈과 귀의 긴장을 풀지 않고 중국을 지켜보아 왔다는 점과 ‘정독’과 ‘다독’간에 차이가 있음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감히 이 글을 쓴다.

친구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중국인

중국인은 손님접대에 능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편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가 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기 전, 또는 하는 동안에도 불쾌감을 느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늘 부드럽고 친절하며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 기법이 있다. 말이 재주이지, 사실 이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체득된,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연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중국인들과 만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식사 때나 차를 마실 때나 혹은 가라오케에 갔을 때, 모임의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중국인이고, 이들은 음식 얘기, 역사 얘기, 사업 얘기 등을 넘나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든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무뚝뚝하며 형식적이고 점잖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중국인은 초면인 사람에게도 온갖 음식과 술을 접대하고 시종일관 ‘친구’를 외치며 어깨동무도 하고, 아주 오래된 깊은 우정을 간직한 친구처럼 만들어 버린다. 온갖 정성스런 접대와 친절을 자연스럽고 그리고 지극하게 베풀면서 손님을 대단히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참 대단한 능력이다.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93년 8월 어떤 광물 수입중개에 필요한 일이 있어 호북성의 한 광산으로 출장을 갔다. 비포장의 꼬불꼬불한 산길을 4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올라가 해발 9백 미터 정도의 고지에 위치한 광산촌에 도착했을 때는 토요일 늦은 오후였다. 출장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서야 광산을 시찰하게 된 내일이 바로 일요일이란 생각이 떠올랐다. 아뿔싸! 황급히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그 광산의 부사장에게 낭패한 얼굴로 이를 알리자, 그는 그저 싱긋 웃을 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걱정말라며 이미 조치를 다 해 놓았다고 했다. 무슨 조치?

그야말로 중국인답고 사회주의 국가다운 조치였다. 우리가 도착하는 그 토요일을 임시휴일로 하여 광부 전체를 쉬게 하고 일요일에 정상근무토록 그 주말만 특별히 바꾸어 버린 것이었다. 필자와 회사 상사 단 두 사람만의 작업현장 시찰을 위해 노동자와 그 식솔 등 무려

4천여 명의 생활에 변화를 준 엄청난 배려였다.

아마 다시 경험하기 힘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 중국인들은 심지어 이런 일을 벌일 정도로 사람 접대에 지극한 면이 있다.

중국 친구의 정성어린 접대를 받으면 첫 만남에서부터 진짜 오랜 친구가 된 듯이 믿고 감격하게 된다. 그렇다고 호텔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렸어. 나는 좋은 친구 겸 파트너를 얻게 된거야”라고 환호성을 지르기에 너무 성급하다. 우리를 감동시킨 그 중국친구는 계속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느낀 감동의 크기도 사실은 중국인들의 체질화된 접대기술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타고난 성격이다 -에 의해 다소 과장된 느낌임을 알아야 한다.

어느 나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한 두 번의 만남으로 뱃속까지 보여줄 수 있는 친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진짜 친구를 얻고 싶으면 꾸준히 만나고 꾸준히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한 두 번 만나 큰 감동을 받고 혼자서만 그 환상 속에서 우정과 신의를 키우다가 자신의 높은 기대에 못미치는 중국 친구의 응대에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며 끝내 친구와 사업 모두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없으면서도 있는 중국인

중국은 아직 가난하나 그들의 마음은 풍요롭고 여유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없으면서도 있는 특이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중국을 여행하면서 늘상 되묻게 되는 질문이다. 일반적인 중국인의 하루를 보자.



중국인은 자존심이 강하다. 그것은 '중국인'이라는 집단적 존재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금지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존심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터에서 건강체조적인 태극권을 연습하고 8시까지 출근하여 정오까지 일하고, 대개의 경우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오후 2~3시까지 휴식을 취한다. 다시 직장에 돌아가 오후 5시에 퇴근하면서 -아마 4시 반이면 파장 분위기일게다 - 시장에서 장을 보아 저녁을 맛있게 해 먹고, 해가 지면 동네 공터에서 시작되는 사교춤 강습에 참가해 즐겁게 1~2시간 춤을 추고, 집에 돌아가 일찍 잠자리에 든다.

노동의 강도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물가가 비싸지 않으니 먹고 입는 걱정이 없고 주택문제는 직장이 있는 한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제공되니 편안하다. 물론 최근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학비 징수가 시작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비 걱정은 없었다. 그들의 삶을 보자면 우리는 너무 긴장되고 경직된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인의 가벼운 호주머니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인은 자존심이 강하다. 그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듯 표현되는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자존심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의 자존심도 아니다. 그것은 '중국', '중국인'이란 집단적인 존재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금지가 개개인들에게로 나뉘어진 듯한 자존심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도 당당하며 친구를 사귀는 데도 열등감 없이 오히려 큰 포용력

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미 모두 체질이 되었는지 중국인들은 서로 평등하게 대한다. 처음 중국에 출장가서 중국인들의 평등관념과 실천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인구가 약 50만 명 가량 되는 내륙의 중규모 도시 황석시(黃石市)에서 공업담당 부시장과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식당에 도착해 부시장 및 관리들과 인사를 나누고 12인용 원탁에 앉았는데, 글썽 호텔로 우리를 데리러 왔던 부시장 관용차의 기사까지도 부시장이 앉은 원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할 뿐 아니라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게 아닌가?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다.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들은 필자가 이런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들의 자연스런 평등관념을 의식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중국인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다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외국인과 외국 투자기업은 반드시 낭패를 본다.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빚어내는 수많은 노사분규의 원인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연유하고 있다. 우리의 임금이 그들의 몇 십 배라고 으시델 필요도 없고 그들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가려내 할 필요도, 열심히 살아보라고 어깨를 두드릴 필요도 없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다고 빠기거나 나를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면 그 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그저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존심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면 된다.

사회주의자면서도 자본주의자인 중국인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충분한 연구 내용을 제출하였으니 필자는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

겠다.

중국의 사회문화, 중국인의 성격, 중국 투자를 망라한 전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권위자이신-필자의 견해에 따르면-오태동(吳太東)이라는 분이 있다. 1987년 (주)대우의 과장으로 재직중 한국 최초로 대우가 중국에 투자한 복주 냉장고 공장의 초대 사장님으로 파견된 이래 줄곧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 전문경영인 겸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다. 그분은 작년 여름 고려대학교 법대에서의 특강에서 중국사회의 변화를 두고 “전사회의 시장화, 전 조직의 기업화, 전인민의 장사꾼화, 전 국토의 경제 특구화”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명료한 설명이 있을까?

지금의 중국은 모든 조직체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돈을 향해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대가 자체 기업을 거느리고 장사를 한다? 전근대적이거나 쿠바같은 공산국가에서도 일부 그 형태가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하긴 또 하나의 중국인 대만에서도 군대가 텔레비전 방송국을 하나 경영하고 있지만, 아무튼 중국에서는 군대를 포함해 공산당 조직, 지방정부 조직들이 모두 하나 같이 자기 기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소위 ‘관상(官商)’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H건설이 남경(南京)시에서 벌이고 있는 30여 층짜리 주상(住商)복합건물 및 호텔 건설사업의 합작파트너는 중국인민해방군 공병대 산하의 한 기업체이다. 군대가 산하에 경제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거느리고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호텔도 짓고 다른 영리사업도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없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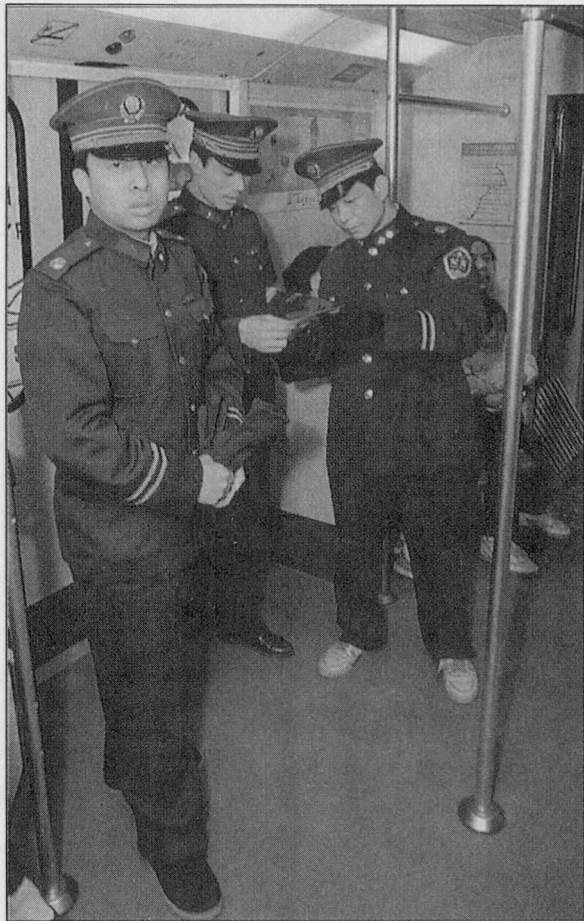
군대이든 관청이든 합법적으로 영리 사업을 한다면 모른척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외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군대와 관리들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치부(致富) 행위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부 해군들이 영해상에서 권력을 남용해 외제 자동차 등 각종 상품의 밀수 사업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자 해상 총격전을 벌인 사실이며, 산둥성의 한 작은 해안 도시에서 시장 등 수뇌부들이 결탁해서 조직적으로 밀수행위를 벌이다 적발되어 시장 등이 사형선고를 받은 일 등 적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장되게 얘기하면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콩가루 나라’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지방 정부의 조직을 보자. 중국 각 성 정부의 외형상의 규모는 그 면적과 인구 수를 볼 때 우리 나라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규모를 보인다. 단순히 말하면, 중국의 웬만한 성장(省長)은 우리 나라 대통령만한 통치력을 지닌다. 각 정부 산하에 우리 나라 부(部)에 해당하는 각종 기관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개혁의 추세에 따라 그 기관들의 명칭도 ‘무슨 국(局), 청(廳), 위원회(委員會)’ 등에서, 회사라는 뜻의 ‘공사(公司)’로 회사 명칭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성(省)에서 의약산업을 총괄하는, 우리 나라로 치면 일종의 보사부 역할을 하는 곳을 원래는 ‘의약관리국(醫藥管理局)’이라고 하였으나 요즘은 ‘의약총공사(醫藥總公司)’라고 한다. 물론 이 기관의 장의 직위 명칭도 과거의 ‘국장(局長)’에서 ‘사장님’의 뜻을 가진 ‘총경리(總經理)’로 바뀌어 불리운다.

지금엔 관청 냄새가 나는 명칭과 자본



현재의 중국에는 군대와 경찰, 관리들조차 전부 돈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 북경 지하철 내의公安원(公安員).

다주의적 발상의 새 명칭이 혼용되는 단계이다. 중국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대개 중국인들과 명함을 교환하면서, 이 사람이 관리인지 기업가인지 한참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필자가 중국을 다니면서 한 업무 중의 하나는 산업기계 중개였다. 한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방직과 경공업관련 기계 몇 가지를 중국에 팔기 위해 상해에서 특별히 초빙한 ‘딜러’가 있다. 그분은 비즈니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 인문과학 분야의 교수님으로서, 재직하고 계신 대학도 상해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일 뿐더러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명망이 높으신 연세 지긋한 선비풍의

학자이다. 그런 분이 자청해서 딜러 역할을 맡으셨고 상당히 열심히 그리고 능력있게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도 일반 인민들도 열심히 돈을 향해 달려간다. 거리에 나가보면 허름한 옷의 사람들이 과일 한 바구니라도 앞에 놓고 돈을 모으려 한다. 국도도 못 되는 시골 신작로를 달리다 보면 양쪽에 즐비한 것이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과 여관들이다. 길을 끼고 있는 시골 주민들이 자영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이런 인민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은 보기에 안스러우면서도 호뭇하나 ‘잘나가는’ 분들의 돈 타령은 보기가 좀 그렇다.

필자가 북경 외곽의 한 현(縣)정부와 절강성 북쪽의 한 현정부 인사들과 만나 직접 들은 그들의 묘수는 다음과 같았다. 중앙 정부의 지시가 있으니 공식적인 세율은 30%로 하고, 실제로는 절반만 징수하거나 혹은 이미 징수한 세금의 절반을 곧 다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호주머니에 들어 온 돈을 다시 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자신들의 지역을 ‘경제특구화’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지금 중국은 이렇게 모두가 돈을 향해 뛰고 있다. 등소평에 의해 그 물꼬가 트인 돈벌이 물결은 다시 막기가 힘들다. 돈 맛을 알게 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돈 그 자체일 것이다. 사회주의가 지금의 중국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체제 유지의 도구 외에는 그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큰 소리로 “노동자여 단결하라!” “사회주의 만세!”를 외친다. 알다가도 모

를 사람들이다.

어떻게 중국인을 이해할 것인가?

중국인들은 재미있다. 그들은 친구가 되기 쉬우면서도 어렵고, 없으면서도 있고,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자본주의자이다. 또 한 달 평균 월급이 우리 돈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텔레비전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한 달치 월급에 상당하는 돈을 들이면서 가라오케에도 잘 가고 ‘피자 핫’에 가서 자기 월급의 1%도 넘는 피자를 잘도 사먹는다. 그들은 인민해방군 모 부대의 부대장인 동시에 건설회사 또는 방직회사의 사장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면서 호떡집 아저씨나 택시기사를 겸업하기도 한다. 그들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으면서도 최근 매년 13%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모든 것이 혼돈이고, 모순 덩어리이고, 말이 안 되는 곳이 중국이고,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 즉 단선적 사고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좋아하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그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미쳐 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그러나 그 혼돈과 모순과 비논리는 이방인이 이방인의 잣대로 잴 것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의 안경으로 본 것이거나 혹은 이방인의 머리를 통해 규정한 상황일 뿐이며, 정작 그 속에서 수천 년간 살아오고 있는 ‘왕서방’들은 지극히 편안하고 여유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중국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듣고 독자들은 뭔가 화끈하고 명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중국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중국인이다.

중국일 뿐'이라는 엉터리 같은 대답뿐이다. 아마 중국인들에게서 '감염'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중국은 '중국'일 뿐이며, 중국의 모습 그대로 중국적인 방식에 따라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국을 이해하는 '왕도'이다.

현재 중국 대련(大連)에서 중국투자 컨설턴트로 활동중이신 오태동씨의 저서 『중국땅에 심은 한 그루 나무』에서 핵심 한 대목을 뽑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분명하다. 중국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대단한 다양성과 모호한 양면성, 이것이 중국인의 모습이다.'

홍윤표/중국문제 프리랜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대만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석사

중국 만평

“好! 好!”

1. 날씬한 사람이 멋있어요.
활기차 보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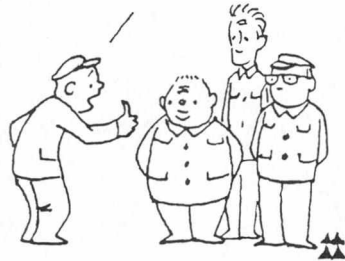
2. 통통하게 살이 찐신 게
정말 복스러워 보입니다.



3.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정말 균형잡힌 몸매시군요.



4. ???



杨昆原



외제 애호 가정

경제 개방 이후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외제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중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만화의 원래 제목은 洋家將으로, 온 가족이 외제 수입품을 애용하고 있는 모습을 비꼬는 내용이다.

중국과 중국 교회 개황

계속 연재 해오던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글을 지난호로 마무리하면서 이번호부터 중국의 각 성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이번 호는 중국 교회 각 성 소개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과 중국교회에 대한 개황을 실었다. -편집자주

면적

약 960만 평방킬로, 소비에트 연방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3위이다. 이는 유럽 전체나 미합중국의 면적과 거의 맞먹는다. 동서로 약 5천 Km, 남북으로 약 4천 3백 Km로 전세계 유지면적의 1/15이며 총연장 24,000 Km에 이르는 국경선을 갖고 있다.

인구

약 12억(1992년 통계 당시 11억 7천171만 명이었으나, 94년 말 현재 12억을 돌파하였다). 연 평균 2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남녀비율은 51.6% 대 48.4%인데, 26.23%가 市와 鎮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농촌과 산지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30세 이하가 65%, 14세 이하가 30%, 노동인구층에 속하는 61.9% 중 16%가 학생층이다.

교육 정도로는 전문대 이상 졸업이 1.42%, 고졸 8.04%, 중졸 23.34%, 국졸 37.06%, 문맹·반문맹 인구(15세이상)가 180,030,060 명으로 총인구 중 15.88%를 점유하고 있다(1982년은 22.81%).

인종

한족(92%)을 비롯한 55개 주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자국내 이민족 통치에 대해서는 세계 제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기후

광대한 국토와 복잡한 지형으로 기후 형태도 다양하다. 대륙성 기후로 여름과 겨울의 구별이 뚜렷하여 기온차가 상당히 크다. 북경을 예로 들면 최고기온은 7월에 39.6도, 최저기온은 1월에 영하 22도이므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62.4도나 된다. 중국 내 최고 기온은 투르판 분지의 7월로 47.5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영하 51.5도이다.

행정구역

전국을 3개 직할시, 22개성, 5개 자치구로 나누었으며 다시 전중국을 6대 지구로 나누고 있다.

동북지구

랴오닝(遼寧), 쟈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3성으로 구성된 동북지구는 총면적 78.7㎦이며 1992년 말 현재, 인구수는 1억 156만 인이다.

면적은 전국의 8.6%로서 전국 6대지구 중 6번째이다. 인구는 전국 총인구의 8.9%로서, 서북지구보다 많으나 제5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농업생산량과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공업(특히 중공업)의 역량이 크다. 교통망이 조밀하고 지구내 3성간의 경제 연계가 밀접하며 경제수준이 높다.

화북지구

베이징(北京), 티엔진(天津), 허베이(河北),

산시(山西)성, 네이멍꾸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5개성·시·자치구를 포괄하는 화북지구는 면적 154.88만 ㎦, 1992년 말의 주민 수는 13,478만이었다.

면적은 전국의 16.2%로서 6개 지구 중 서북·서남·다음으로 3번째이다. 인구는 전국의 11.4%를 차지하여 화동·중남·서남 다음인 4위이다.

서북지구

싼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青海)의 3성과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닝시아후이족(寧夏回族)자치구로 구성된 서북지구는 면적 304.56만 ㎦로서, 1992년 말 현재, 8,248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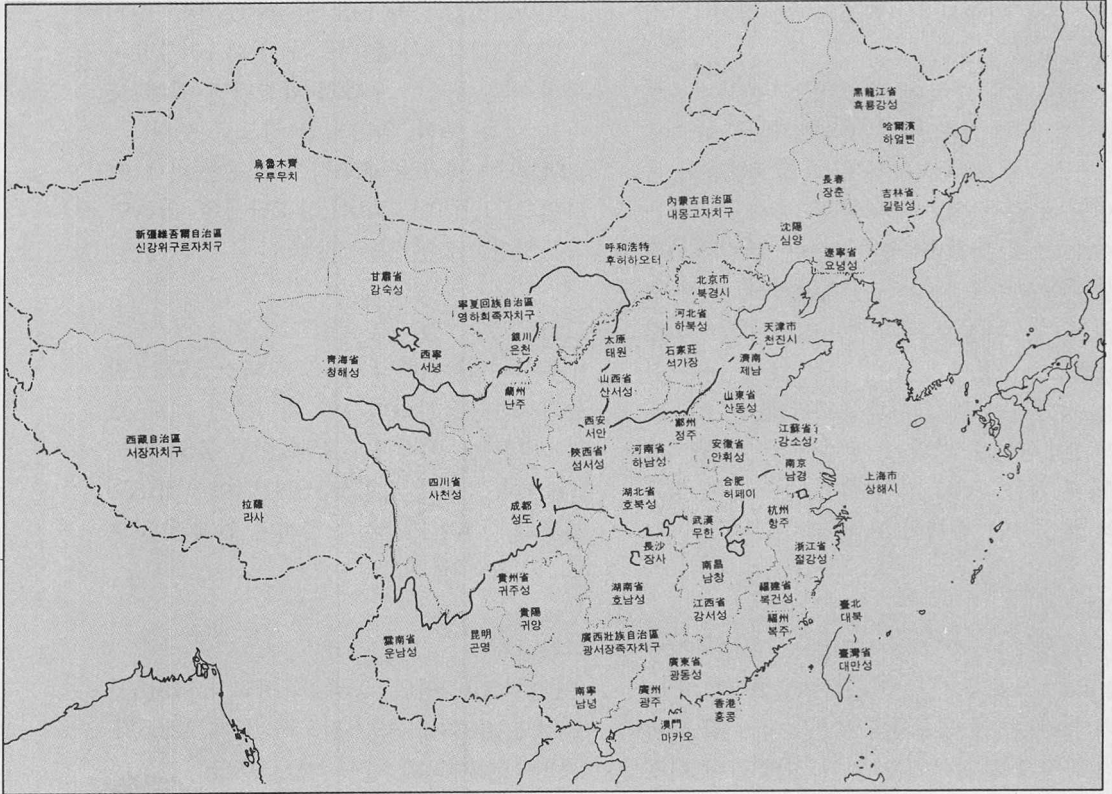
면적은 전국 총면적의 31.8%를 차지하여 중국 6대 지구 중 가장 넓으나 인구는 전국의 6.8%에 불과하여 6대 지구 중에서 가장 적다. 인구밀도는 ㎦당 27인으로 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화동지구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蘇), 저지양(浙江),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지양쑤(江蘇), 산둥(山東)성을 포함하며 면적은 78.83만 ㎦로서, 총면적의 8.2%를 점하여 전국 6대 지구 가운데 5번째 가는 지구이다. 그러나 인구는 3억인 이상으로 전국 총인구의 30%를 초과하여 제1위이다.

서남지구

쓰촨안(四川), 윈난(雲南), 꾸이저우(貴州)성과 씨장(西藏)자치구로 이루어진 서남지구는 면적 234.01㎦이며 1992년 말 현재, 주민수는 18,419만 인이다. 면적은 전국의 24% 이상이나 서북지구보다는 적어 6대 지구 중에서 2번째이다. 인구는 전국의 16%로서 화동지구·중남지구 다음으로 제3위이다.



中國全圖

중남지구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광둥(廣東), 하이난(海南)성과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로 이루어진 중남지구는 면적 100.64만 km²로서 1992년 말 현재 32,299 인의 인구가 살고 있다. 면적은 전국의 10.5%로서 동북지구 및 화동지구와 비슷하나 서북·서남 및 화북보다는 훨씬 좁아 전국에서 4번째의 대지구이다. 인구는 전국의 27.6%로서 화동 다음인 2위이다. 중남지구는 역사가 길고 인구가 조밀하다.

경제

1978년부터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이래

로 중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해 왔다. 현재의 제8차 5개년 계획(1991~1995)은 그간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 재정, 재무, 금융, 물가 그리고 노동분야에서의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일본, 홍콩, 미국, 소련이고, 이미 우리 나라의 3번째, 우리는 중국의 5번째 무역상대국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개 경제특구와 14개의 개방항을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빈국의 하나로서, 연평균 일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360달러에 불과하며, 해외 채무도 6백 5억 6천만달러(1991년

말 기준), 외화보유 4백26억 6천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로서, 정치적인 불안정,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특히 식품 공급과 교육, 사회 복지 등에 큰 부담, 한 가구 한 자녀 갖기라는 출산 통제 정책이 사회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노동력 증대에 따른 고용 문제, 이전에 홍위병이었던 “잃어버린 세대”, 욕구불만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망, 정신적인 공백,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 약 1억 8천만 명의 문맹자 또는 반문맹자(15세 기준) 등이 지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종교

중국 정부는 종교란 사회주의 혁명과정중점차로 소멸되어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에 포용되어야 할 하나의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로 정부는 인가된 단체의 종교 활동만 허가하고 있으며 기타의 모든 종교활동과 선교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 종교조직

천주교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주교단

기독교

중국기독교삼자애국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

기타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

5대 종교신도의 숫자(정부발표): 불교(도교 포함) 약 1억 명, 회교 약 2 천만, 천주교 4 백여만, 기독교 7백여 만(1994).

교회자료

신도

1910년 167,075명, 1915년 268,652명, 1949년 792,262명 (사실 미등록 집회소, 지방교회의 미등록 신도수까지 합한다면 실제 숫자는 이를 우회, 약 1백만 정도로 추정). 1991년 두 개의 종교조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550만이며, 외국 선교단체에 의하면 약 6천만으로 추정.

교회

1949년 이전 예배당 6,535, 집회소 3,732 (미등록 숫자 포함하면 1만 내지 2만 개로 추정), 1988년 예배당 6,375 (이중 2,683개는 1980년후 신축), 집회소 20,602 (이중 15,855 개소가 삼자협회 및 각 협회와 연계된 것으로 두 협회가 공포).

성직자

1910년 5,912명의 중국인 선교사, 1915년 8,431명, 1949년 목사·전도사 합계 12,65명, 1991년 삼자교회 목사 약 1,000명, 전도인 약 3,500명, 가정교회는 집계 불능.

현재 5명의 주교가 있음: 정광훈(丁光訓), 왕신음(王神蔭), 설평서(薛平西), 모극충(毛克忠), 손언리(孫彦理)

신학교육

신학원 13개<금릉협화(金陵協和), 복건(福建), 동북(東北), 연경(燕京), 사천(四川), 절강(浙江), 중남(中南), 화동(華東), 안휘(安徽), 광둥협화(廣東協和), 산둥(山東), 운남(雲南)신학원과 섬서기독교성경학교(陝西基督教聖經學校)가 있고 신학생은 779명에 달한다(1989).

배훈반(培訓班)

성, 시급에서 실시하는 단기 배훈반 139반(참가자 2,651명)과 현금 배훈반 630반(참가자 33,298명)이 있다(1988).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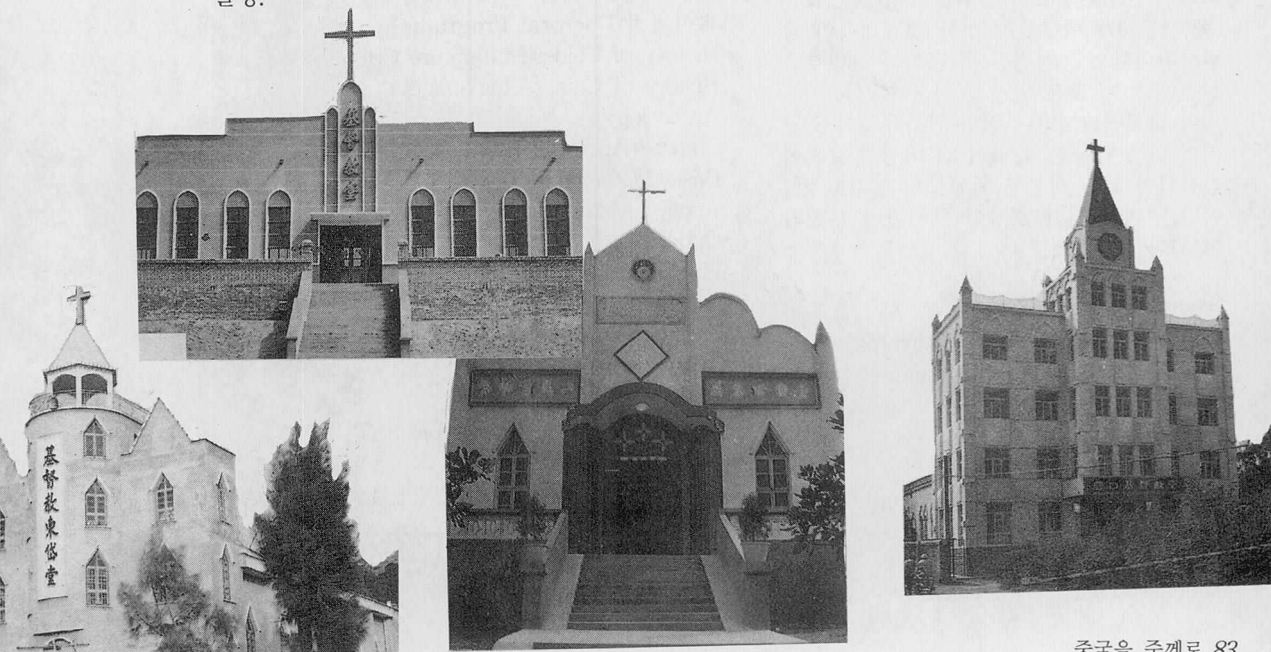
1. 《천풍(天風)》은 오요종(吳耀宗)이 1945년 2월 쓰촨성 청두에서 창간한 후에 전쟁으로 정간되었다가 1946년 8월 복간. 다시 1964년 정간되었다가 1980년 10월 20일 재차 복간됨.
2. 1984년 금릉협화신학원에서 《금릉협신학지(金陵協神學誌)》 복간.
3. 1985년 애덕기금회가 난징에 설립되고 정광훈(丁光訓)이 이사장으로 취임. 이어 홍콩에서도 사무국이 개설되어 해외에서의 기금 모금.

현 중국 교회의 문제점

1. 목회자의 연령 노화.
2. 목회자부족과 목양사업의 관제화(그러나이 조차도 매우 부족한 형편).
3. 교회내부의 모순-목회자 상호간, 노목회자와 젊은 목회자간, 기존목사와 관료화된 목사간, 양 협회간, 영도층과 기층간, 그 밖에 경제 문제상, 직권문제상, 과정 관계 문제상 등-이 어떤지방에서는 상당히 돌출됨. 정광훈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교회의 관리체제 미흡과 위엄있고 덕망 있는 ‘목회자와 목자’가 없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중국의 인구는 많으나 교육수준은 미흡하고 많은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말만 겨우 아는 정도임을 인식, 특히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문맹자들을 위한 복음방송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현재 표준어, 티벳어, 위그루어, 장(壯)족어, 몽고어, 한국어 등의 방송만 있음).
2. 현재 중국의 기독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자. 심령이 공허한 공산당원과 지식인, 대학생들이 신앙을 갈구할 때 주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합당한 전도자가 나타나 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3. 교회는 신도에 비해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목회자를 허락하셔서 많은 영의 무리를 먹일 수 있도록.
4. 향후 좀 더 관용적이고 이지적으로 종교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원에서 나올 수 있기를.
5. 정부의 압박을 받는 가정교회의 목회자 및 신도가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위해.



중국 서남·서북지구의 주요대학

박명수

사천대학(四川大學) Sichuan University

학교소개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국가중점대학으로 중국서남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천대학의 역사는 1902년에 설립된 사천통성사범학당(四川通省師範學堂)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31년 문(文), 이(理), 법(法), 교육(敎育) 등 4개 학부를 개설한 정규대학인 국립사천대학으로 개편된 뒤 공학과 농학부를 신설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학교에는 4만여 점의 역사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48만여 점 이상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는 식물원과 동물원 그리고 2백여만 권의 장서가 소장된 도서관이 부설되어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Economics
Philosophy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aw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Journalism
Foreign Economy and Trade
Business Administration
Archives
Mathematics
Physics
Biology
Chemistry
Radio-Electronics
Bio-Technology
Computer Science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Critiques
History of Chinese Language
Archeology
Chinese Ancient History
Basic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Optics
Physic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Botan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四川省 成都市 望江樓
四川大學 國際交流處

귀주대학(貴州大學) Guizhou University



운남대학 국제 학술 교육 교류 센터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42년

재학생수 : 2,880여 명

교직원수 : 493명(교수 19명, 부교수 130명 포함)

소속기관 : 귀주성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Computer Scienc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貴州省 貴陽市 花溪
貴州大學 外事處

운남대학(云南大學)

Yunnan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23년

재학생수 : 8,900여 명(대학원생 286명 포함)

교직원수 : 936명(교수 50명, 부교수 237명 포함)

소속기관 : 운남성 교육청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olitics

Economics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Computer Science
Radio Electronics
Geophysics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History of Chinese Nationalities
History of Economy in Tang and Song Dynast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云南省 昆明市 翠湖北路 52 號 云南大學 外事處

서북대학(西北大學)

Northwest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12년

재학생수 : 7,000여명(대학원생 435명 포함)

교직원수 : 1,012명(교수 77명, 부교수 276명 포함)

소속기관 : 협서성 고등교육국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Philosophy
Economics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Physics
Chemistry
Biology
Geography
Geology
Chemical Engineering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Theoretical Physics
History of Chinese Thoughts
History of South Asia and Middle East
Palaeontology and Stratigraphy
Geology of Oil and Explora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陝西省 西安市 小南門外

西北大學 外事處

난주대학(蘭州大學)

Lanzhou University

학교소개

감숙성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난주대학의 역사는 1909년 설립된 법정학당(法政學堂)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면(勤勉), 구실(求實), 진취(進取)>를 학풍(學風)으로 하고 있는 이 학교는 현재 20개 학부에 37개 전공에 388명의 정·부교수, 7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6개의 연구소와 170여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부설한 감숙성 최고의 종합대학이라고 하겠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emistry
Mathematics
Material Science
Computer Science
Biolog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conomics
Law
Physics
Mechanics
Electronics and Information Science
Modern Physics
Geography
History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Philosophy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Organic Chemistry
Nuclear Physics and Technique
Theoretical Physics
Magnetics
Cytobiology
Plant Physiology
Ecology
Solid State Mechanics
Basic Mathematics
Atmospheric Dynamics
Physical Geograph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甘肅省 蘭州市 天水路 216
號 蘭州大學 外事處

영하대학(寧夏大學)

Ningxia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62년

재학생수 : 3,200여 명

교직원수 : 466명(교수 6명, 부교수 78명 포함)

소속기관 : 영하회족자치구 교육청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History

Mathematics

Physic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寧夏回族自治區 銀川市
新市區 寧夏大學 外事處

신강대학(新疆大學)

Xinjiang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35년

재학생수 : 6,000여 명

교직원수 : 1,206명(교수 13명, 부교수 135명 포함)

소속기관 : 신강자치구 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Political Science

Chinese

Foreign Languag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Geograph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新疆自治區 烏魯木齊市
腥利路 14號 新疆大學 外事處

중경대학(重慶大學)

Chongqing Universit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29년

재학생수 : 10,300여 명(유학생 12명, 대학원생 824명 포함)

교직원수 : 1,420명(교수 66명, 부교수 394명 포함)

소속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Mechanical Engineering(I)

Mechanical Engineering(II)
Optical and Electronical Precision
Instrument
Thermal Power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Mining Engineering
Metallurgical and Material Engineering
Radio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utomation
Engineering Mechanics
Management Engineering
Applied Mathematics
Applied Physics
Applied Chemistry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Solid Mechanics
Biomechanics
Photoelectric Precision Machinery
Mechanics
Machin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Equipment
Engineering Thermophysics
Mining Engineering
Theory of Computer Science
Electrical Engineering Theory
Power System and Automa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四川省 重慶市 沙坪壩區
重慶大學 外事處

성도과학기술대학(成都科學技術大學)
Chengd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44년
재학생수 : 9,800여 명(유학생·대학원생 661
명 포함)
교직원수 : 1,261명(교수 46명, 부교수 297명
포함)
소속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Water Conservancy
Met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olym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Leather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Automatic Control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lastic Engineering
Chemical Technology for Textiles
Applied Physics
Applied Chemistry
Engineering Mechanics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Foreign Languages

박사과정(Doctoral Programs)

Polymer Science and Materials
Plastics Processing
Leather and Tanning Materials
Hydraulics and River Mechanics
Geotechn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Biomechanics
Atomic and Molecular Physic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四川省 成都市 一杯路 南一
段 24號 成都科技大學 外事處

서남민족학원(西南民族學院)
Southwest Institute for
Nationalitie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四川省 成都市 洗面橋
西南民族學院 外事辦公室

운남민족학원(雲南民族學院)
Yunnan Institute for Nationalitie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云南省 昆明市 蓮花池 正街

74號 云南民族學院 外事處

청해민족학원(青海民族學院)

Qinghai Institute for Nationalitie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青海省 西寧市 八一路 25號
青海民族學院 外事處

사천외국어학원(四川外國語學院)

Sichuan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四川省 重慶市 沙坪區 烈士墓
四川外國語學院 外事處

서안외어학원(西安外語學院)

Xian Foreign Languages Institut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陝西省 西安市 南郊 吳家墳
西安外語學院 外事辦公室

성도지질학원(成都地質學院)

Chengdu College of Geolog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四川省 成都市 二仙橋 東三路
成都地質學院 外事辦公室

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學)

Xian Jiaotong Universit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陝西省 西安市 咸寧路 28號
西安交通大學 外事處 專家留學生科

서안공로학원(西安公路學院)

Xian Institute of Highwa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陝西省 西安市 翠華路 3號
西安公路學院 外事處

신강공학원(新疆工學院)

Xinjiang Institute of Technolog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新疆自治區 烏魯木齊市 友好路21號
新疆工學院 外事處

곤명의학원(昆明醫學院)

Kunming Medical Colleg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云南省 昆明市 人民西路
昆明醫學院 外事處

영하의학원(寧夏醫學院)

Ningxia Medical Colleg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寧夏回族自治區 銀川市
勝利南街 寧夏醫學院 外事處

편집자 주:

이번 호로 계속 연재 해오던 '중국유학안내'를 마무리 합니다.

지면관계상 모든 대학의 개설학부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만 실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거나 중국유학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는 분은 위 자료를 제공한 박명수 선생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778-3773

박명수/ 청와대 공보비서실 근무

「중국유학가이드」 저자

(현)계성문화관광 대표

부덕(父德)의 그늘

방지일



선교임지에 도착하여 어학학습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난국에 봉착하고 나니 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인 동역자 루슈파(魯書法) 목사와 어학 선생 양(楊) 장로만이 나의 측근이었다. 말도 못하는 나는 겨우 필답으로 의사를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형세를 뉴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근 삼백리 밖 청도(靑島)에 주재하던 우리 선교사들도 다 귀국하였고, 아내와 어린 두 딸도 본국으로 돌려 보낸 나는 연로한 조부님, 그리고 아들 셋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막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항일사상(抗日思想)이 모든 민심에 불붙고 있던 차에 침략을 당하고 나니, 일본치하에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극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뿐 아니라 나이 40이 안된 젊은 사람은 일본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며 일본인과 동일시

중일사변(中日事變)은 치열한 전쟁으로 번져나갔다. 배일(排日)에서 항일(抗日)전선으로 전개되었다. 전중국에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인심은 극히 흥흥하여 도처에 불안이 깊어만 갔다.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입장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20대의 방지일 목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이다. 동역자인 루 목사는 항일(抗日) 사령관을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한다. 처음 면담에는 아주 냉정하더라. 일본 정신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을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없다는 냉담한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몇 번 면담하는 중 그들이 은연 중에 조사를 했었다는 말도 들었다.

방지일 나 개인으로서 도무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결국 나는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다.

“이곳은 그의 아버지가 벌써 오래 전에 와서 터를 닦은 곳이에요, 그는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일반의 여론이 극히 좋으므로 그 아들이라면 신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때야 비로소 그 동안 상당한 문제로 여러 차례 우리 목사가 수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가친(家親)은 참으로 덕망이 높아 저들이 존경을 표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 신자들은 말할 것 없고 불신자들 중의 유지를 내가 찾는 경우나, 혹은 저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난세(亂世)에 소임을 감당하려면 발도 붙이지 못할 뻔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나를 보내신 바를 알게 되었다. 진실로 감사한 일이다. 군 당국에서 이런 단언을 내린 것이 부덕(父德)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호와 이레’라 감사했거니와, 그런 일은 피상적일 뿐, 날이 갈수록 중국 사람들을 대하면서 더욱 깊이 느껴진 바가 크다. 나 같은 입장이 아니었다면 그 혼란한 시기에 체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체류할 수 있었다는 데서 더 나아가 저들과 아무 격없는 형제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행복했던 일이었다.

이미 전자에 그들의 민족성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자존심이 그렇게 높은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 더욱이 공맹(孔孟)의 본 고장이요 중국문화의 발상지인 산둥(山東)에 가서 저들에게 선교를 한다 함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저들의 문화권하에 있다고 봄은 물론이다. 정치적으로도 “전아속 현일속(前我屬現日屬)”이라고 교과서의 한국지도에 명시함을 보았다. ‘선교’하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것인데, 문화면으로나 정치면으로, 생활면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어진 상황에서 저들에게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식적 판단으로 그런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전란 중에 발을 붙였다. 20여 년 간 일을 하였다. 저들과 간격 없이 한 몸으로 지낼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었다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구 선교사들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나의 선교 20여 년 역사는 이제까지의 선교 전통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흐름의 길이 아니었다. 상호 주고받음이었다. ‘복음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임은 물론, 가친의 후덕한 그들이 나로 하여금 중국에 발을 붙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할아버지의 그 모험적 입신, 꺾박 중에도 견디신 그 인내의 신앙, 헌신적 신앙생활(성수주일, 전도일, 철저한 십일조 헌금 등등)들이 내 신앙의 터가 되었고, 나는 가친의 닦아 두신 터에 일하게 된 축복에 감사드린다. 이런 두터운 배경이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복음역사 반백년’을 갖게 한 원동력임을 생각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이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둥성 선교사

한국 최초의 중국선교사

김영훈 목사

(1877-1939)

김교철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면서 그 기념사업으로 중국에 선교사 파송청원과 결의가 있는 후, 1913년 5월 박태로 목사의 첫 중국 산둥성 방문을 시작으로, 1957년 9월 방지일 선교사가 중국 공산정권에 의해 추방되기까지 45년간,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교회에 의한 순수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선교가 수행되었다.

믿음의 가정에서

1913년 시작된 한국교회의 타민족 선교사역 현장인 중국 산둥성에 파송된 선교사는 목사 8명과 여선교사 1명,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지 아니하였으나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의사 3명, 교사, 전도인 등을 들 수 있다.

목사 선교사 8명 중에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분이 3명, 부총회장을 지낸 분이 1명(홍승한 목사/1917년 제6회)인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김영훈 목사인 것이다(총회장으로).

김영훈은 평북 의주군 월화면(月華面) 호암동(虎岩洞)에서 김유현(金有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김유현은 1880년(고종17년) 무과갑과(武科甲科)에 급제(及第)하여, 백마별장(白馬別將), 1887년 친군서영우령관(親軍西營右領官), 1893년 별군직(別軍職), 1894년 위원군수(渭原郡守), 1895년 8월 정주목사(定州

牧使), 동 11월 육군참령(陸軍參領)으로 황평양서진위대대장(黃平兩西鎭衛大隊長), 1900년 7월의 주진위대대장(義州鎭衛大隊長), 동 12월 의주군수(義州郡守) 등을 역임하고, 1903년 강계진위대대장(江界鎭衛大隊長)에 전임되어 1904년 노일전(露日戰)에서 패하여 돌아가던 노군부대(露軍部隊)의 행패를 막아 싸우다 인풍루전진(仁風樓戰陣)에서 전상(戰傷), 익년(翌年)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모든 관직을 내던지고 귀향, 기독교인이 되어 신앙생활로 여생을 보낸 사람이다.¹⁾

부친 김유현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할 때 김영훈과 아우 영순(永順), 영률(永律)도 함께 믿게 되었다고(同時歸道) 전한다.²⁾

부친이 의주군수와 육군참령을 지냈으니 그의 가정형편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 따르면 그는 1905년경에 신앙에 입문한 것이 틀림없다.³⁾

김영훈 가족이 신앙을 갖는 과정에서 한국기

1) 의주군지(1975)

2)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1928년간)

3)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 제3권)에는 김영훈이 1897년 김관근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에 입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독교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백흥준과 그의 사위 김관근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기독교 수용과정을 말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의주인데, 의주 지역 전도에 활발한 활동을 한 백흥준, 그리고 그의 사돈이 되는 김이련(金利鍊), 사위 김관근(金灌根)이 개종하면서 한국 최초의 가족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의 일문인 김영훈 가정도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김영훈은 그의 아우들과 함께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규모있는 학업과 예의범절을 익혔을 것이다.

목회자와 중국 선교사의 진로

그의 온 가족이 믿게 된 후 인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곽경락(郭景洛), 백사준(白士俊) 등 50여 명이 믿기 시작하였고, 김영순(金永順) 사저(私邸)에서 예배드리다가 합심하여 예배당을 건축,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다. 부친의 개종과 함께 기독교화된 가정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김영훈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김영훈은 평양에 설립되어 있던 신학교에 입학하여 5년 간의 신학수업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각기 자기들의 교회 일을 보면서 일년에 3개월씩만 학교에 출석하여 전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제도에 따라 5년 동안에 신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해야 했다.⁴⁾ 1910년, 김영훈은 그의 고향 월화면(月華面)의 교회를 돌보도록 조사(助師)로 책임을 맡게 되었다.⁵⁾

평북대리회에 소속되어 있던 김영훈은 1912년 2월 15일, 평북대리회가 노회로 승격되면서 자동적으로 평북노회 소속, 신학 계속 추천을 받게 되었다. 당시 평북노회 소속 신학생 중에 후에 중국선교사로 큰 공을 세운 방효원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로 활동하던 김영훈은 1913년 2월 19일 선천읍 예배당에서 열린 제3회 평북노회에서 장로 안수자로 보고되고 있다. 그는 월화면 호암(虎岩)교회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되었고 호암교회는 비로소 당회가 조직되기에

이른 것이다.

“동군(同郡) 월화면(月華面) 호암교회(虎岩敎會)가 김영훈(金永勳)을 장로(長老)로 안수(按手)하여 당회(堂會)를 성립(成立)하다”⁶⁾

1912년 평북노회가 설립될 당시 평북노회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던 서양선교사는 위대모, 로세영, 윤산은, 라부열, 남행리, 방혜법, 노해리 선교사였고, 한국목사는 13명이었다. 호암교회의 당회장이 누구였는지 확실히는 모르나 김영훈 장로는 의주서편과 선천(宣川) 북편구역을 맡고 있던 위대모 선교사와 여러모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⁷⁾

김영훈 장로는 1913년 6월 평양신학교 제6회 졸업생 33명중 한 사람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총회전도국의 선택을 받게 되어 중화민국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김영훈이 평양신학교 졸업 전인 그해 5월 그보다 1년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박태로 목사가 중국선교사로 산동성을 시찰하고 중국어를 혼자 배우고 있었다.⁸⁾

김영훈 장로는 신학교를 졸업, 신학준사(神學準士)로 1913년 제4회 평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김영훈(金永勳)은 총회명령(總會命令)에 의(依)하여 중화민국선교사(中華民國宣敎師)로 임명(任命)하고”⁹⁾

박태로 목사에 이어서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정함을 받은 김영훈 목사는 그의 신학교 동기

4) 곽안전, 한국교회사(1973), P. 96

5) 1911년, 김영훈이 대동군읍교회 시무한 교역자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1928) 대동읍교회는 평남대리회 소속 지역교회이며 김영훈은 평북대리회 소속 지역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6)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1968,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하 “사기하권”이라 약칭한다.

7) KMF(1915), P. 193

8) 예수교회보

9) 사기하권, P. 84

사병순과 기꺼이 선교사의 직책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¹⁰⁾

김영훈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순회 교구에서 안수받지 않은 목회자로서 경험을 쌓았으나 독립된 지휘권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서양선교사와 선배 한국인 목사의 지도 아래 목회훈련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중화민국 선교사업의 중임을 맡을 적격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무 문헌에도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당시 선교사를 총회가 선발할 때, 선발자격이 있었을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처음 중국선교사로 임명받은 박태로 목사는 황해노회 서기였고, 사병순 목사 역시 평남노회 서기였다. 기록을 잘하고 문건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인정된 자가 서기로 선출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김영훈 목사 역시 한학에 익숙한 사람으로 한시에 능하였다고 한다.¹¹⁾

당시 선교사 선발자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조선예수교장로회 소속된 자로 신학을 공부한 자 (2)조사 혹은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자 (3)연령 30세 이상 40세 초반까지의 기혼자 (4)노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한학에 능한 자 등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선교사로 택정함을 받은 목사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세 분은 1913년 9월 7일 경성 소안동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2회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에 연권위원으로 참석을 하였다.¹²⁾

제2회 총회시에 산동성을 다녀온 박태로 목사가 시찰한 정형을 강설하였고, 3명의 목사는 총회 앞에 지면례를 거행하였다.¹³⁾

10) 조동진 “민족과 종교”, P. 322에 “제5회 평양신학교 졸업생 김영훈과 제6회 졸업생 박태로, 사병순이 목사안수를 받고”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제5회 졸업생은 박태로, 제6회 졸업생 김영훈, 사병순이다.

11) 방지일, “복음역사백년”, P. 23

12)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제2회 회록(1913), P. 5.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한다.

김영훈 목사는 총회 앞에 계시록 3:1~6절, “열심있는 체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역사적 문헌에 나타난 그의 설교에 대한 첫 기록이다.

제2회 총회시에 중화민국 선교사 (총회록에는 선도사라고 기록되어 있다)로 택함을 받은 3명의 목사가 모두 총회 앞에서 강단에 설 기회를 받아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다.

제2회 총회 후에 3명의 목사와 가족들은 중국 산동성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교단차원에서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선교 사역을 최초로 시작한 곳은 한국이 되었다.

3인의 중국선교사 산동으로

1876년 한국교회 최초의 세례신자가 된 의주 사람 백홍준, 이웅찬, 이성하, 김진기 그리고 1879년에 로스 목사에게 세례 받은 서상륜 등, 이들에 의해 1883년 봄부터 의주를 시발로 복음 씨앗이 뿌려졌는데,¹⁴⁾ 30년이 지난 뒤 평북 의주 사람 김영훈이 중국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다.

1913년 5월 중국을 이미 다녀온 바 있는 박태로 목사와 함께 김영훈, 사병순 목사 일행은 료선을 타고 중국 산동을 향해 그해 11월경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¹⁵⁾

1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P. 134에 “총회는 김찬성 목사를 산동성에 파송하여 선교후보지를 답사하게 했고”라는 기록은 보완이 필요하다. 총회는 김찬성과 박태로 목사 2명을 파송하였다(중국선교연구협회가 발행한 중국연구II의 PP. 32~34 참조).

14) 김광수, “한국기독교전래사”(1984), PP. 257~272

15) KIMHWAL-YOUNG, “FROM ASIA TO ASIA”, P. 33에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고 하나 근거가 불확실하다. 1913년 5월 박태로, 김찬성이 중국 산동을 방문할 때에 신의주에서 승선했다고 기록하였다. 조동진, “한국교회선교운동의 역사적 회고와 전망”(1992년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핸드북), P. 71에 “북경을 거쳐 산동성 래양현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북경을 거쳤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며칠 간 배멀미로 고생을 한 후에 김영훈 목사 일행은 산둥성 치푸(Chefoo)에 도착, 그들을 마중 나온 중국인에게서 우리말로 인사를 받게 된다. 그 중국인 신자는 수년 간 평양 장대현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조선예수장로회 총회가 파송한 조선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하였을 때 마중 나온 이는 단 한 명의 중국인 신자 뿐 이었다. 김 목사 일행은 중국인 신자 집에 며칠 머물면서 그 지역 주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된다.¹⁶⁾

김 목사 일행의 중국 도착에서부터 그들의 선교임지로 정해진 산둥 래양에 도착 전후형편에 대한 김영훈 목사의 보고 내용이 다음과 같이 총회록에 정리되어 있다.

“선교사 3인이 발행함으로부터 길에서 곤란을 당하던 형편과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위로 받던 일과 연태에 도착하여 그곳에 거류하는 서양 선교사 리 목사를 방문하매, 산둥성 로회에 왕참하자 하나 사세불편하여 가지 못하고, 래양현으로 직행하는데 무한 고생을 당하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그 지방사람의 능모를 받던 일과 그곳 현지사(縣知事)를 방문하고 현지사의 우대를 받음으로 그곳 사람들의 경복을 차차 받고 전도하는 문이 점점 열리게 되던 일과”¹⁷⁾

중화민국 산둥성 래양현 서문내(西門內)에 중국인 가옥을 임대하여 세 선교사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중국어 선생에게서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데, 김영훈 목사의 보고대로 초기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기도 하였다.

갇은 어려움 속에 조금씩 열리는

전도의 문

현 지사와의 왕래가 시작되고 비록 중국말을 잘못하나 이미 한자를 알고 있어 필담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김영훈 목사는 한시에 능하여 중국인들과 필담도 하고 중국사람들과 때론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도 하였다고 전한다.¹⁸⁾ 그러나 박태로, 사병순 목사와 가족들은 식사에 큰 곤란을 겪어야 했고 병도 나고 견디기 힘든 상황가운데 지내게 되었다.

김영훈 목사 사모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자녀가 모두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많은 고생을 하며 지내야 했다. 목사 선교사들은 언어공부와 사역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사모들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심한 고립감과 좌절을 더 겪어야 했을 것이다.

조선 선교사들이 첫 사역을 시작한 래양현은 아주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 당지에서 생산하는 곡물은 밀가루, 소미 등으로 쌀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는 곳이었다.¹⁹⁾

병이 나서 몸이 아파도 치료를 청할 만한 의사도 없고, 선교사의 자녀들을 교육시킬만한 기회도 없었다.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선교사 3명과 사모들이 의논하여 자녀교육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임시적인 방편은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이 마련된 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1914년 9월 황해도 재령군 남산현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3회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에 보고된 전도국 회계보고에 의하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금 143원이 지출되었다.²⁰⁾

선교사 자녀 양육비조로 지불된 비용 외에는 선교사자녀 교육방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 세 선교사 가정 이 있었으니 피차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 가정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동일 지

16) KMF(1916), P. 71

17) 총회록(1915), P. 10

18) 복음역사반백년, P. 23

19) 복음역사반백년, PP. 22~23.

20) 총회록(1914), P. 15



장승원 그림

역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역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초기 삼 인의 선교사가 사역을 할 때에 선교사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서로 모여서 당면문제들을 협의, 대처해 나갔을 것이다.

김영훈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은 중국어를 배우면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1914년도 회계 보고에 전도비로 12원 82전 4리(厘)가 지출된 것으로 보아, 선교지도 도착 이듬해부터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전도지를 사용한 문서전도에 치중하였을 것이다.

언어공부와 병행한 전도사역은 그들의 언어실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914년 가을부터 그들을 위한 어학선생 두분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김영훈 목사와 동역자들은 청도(靑島)대회와 연태노회에 참석하여 전도구역으로 래양 사방 30리를 받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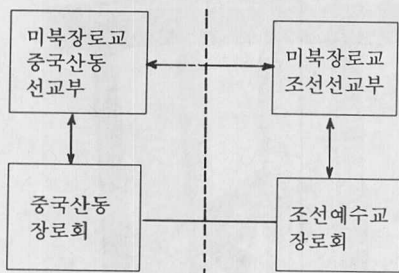
김영훈 목사와 박태로, 사병순 목사가 중국

노회에 참석하여 선교구역을 받기는 했으나, 중국노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 하면 그들의 소속은 여전히 본국 교회에 있었고 중국노회로 이명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²¹⁾

김영훈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침례교와 루터교의 시기를 받았다고 한다. 미북장로교의 산동선교부는 조선교회의 중국산동선교를 지원하였으나 타교파와는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산동선교 시작에 있어서 당시 조선교회가 단독으로 중국교회와 협의하여 선교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 중국 주재 미북장로교 선교부를 포함한 4자간의 협력과 합의로 산동 래양이 조선교회의 첫 선교지로 결정이

21) 선교사들의 이명문제에 관하여서는 중국선교연구협회가 발행한 책 “중국선교Ⅲ” PP. 32~35을 참조하라.



된 것이다.²²⁾

김영훈 목사와 두 명의 조선 선교사는 중국어를 배우는 한편, 전도를 시작하여 몇몇 교인을 얻었고, 부근 각 촌에 있던 교인 오류인을 합하여 성내에 교회를 시작하여, 1915년에 이르러서는 교인의 총수 40여 명으로, 평균 30여 명이 회집하게 되었다. 1915년에 최초로 중국신자 3명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여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 선교사들은 전도하는 방법과 교회를 치리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고 주일 강론회와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김영훈 목사의 귀국 보고

1915년 9월 4일 전주부 서문 밖 예배당에서 개최된 조선 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에, 선교사 3인 가운데 김영훈 목사가 귀국하여 참석을 하게 된다.

안식년 제도라든가 선교사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본국 총회의 특별허락으로 2년 만에 귀국하여 두달간 국내에 머물면서

선교보고를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³⁾

김영훈 목사는 총회석상에서 산동 선교 사역 보고와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경기충청노회는 김영훈 목사를 며칠간 청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²⁴⁾

총회석상에서 김영훈 목사가 언급한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자.

그 첫 번째는 예배처소 문제였다. 선교사 3인은 중국인 가옥을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었기에 교인의 총수가 40여 명에 이르자 예배처소마련 문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를 아니하였다. 예배처소 마련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선교사들은 본국 교회의 재정지원을 기대하였던 것 같다. 본국 교회가 전액 재정지원을 하여 교회를 건축케 되면 예배처소는 쉽게 마련되었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중국교인들을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교인들이 되게 하는 등 좋은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하겠다. 경제적인 힘이 없는 현지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건축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 주재 서구 선교사들은 본국교회들의 전적인 지원으로 교회와 학교건물들을 건축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김영훈 목사가 두 번째로 언급한 문제는 선교사의 거주가옥 문제였다. 선교사들은 중국인 가옥을 임대하여 가옥세로 매 해마다 200원씩 지출하였다. 가옥청구 문제에 대하여 총회는 전도사무국에 위임하여 형편을 보아서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1914년도 선교 예산 중에 선교사의 가옥을 구입키 위하여 예비금으로 1,0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1916년 봄에 박태로 목사가 병으로 환

22) 중국연구협회의편, “중국연구Ⅱ”, P. 35에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와 중화화북대회, 미국북장로회선교부 3자의 협력과 합의로 중국문화의 발상지인 산동이 한국교회의 처녀선교지로 정해지게 되었다”고 필자가 밝힌 글은 그 내용을 수정한다. 즉 삼자간의 협력과 합의라기 보다는 4자간의 합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조선과 중국 모두 미북장로교 선교부의 피선교지였으나 조선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중국교회를 앞지르고 있었다.

23) 총회록(1915), PP. 35~37

24) 사기하권, P. 59



장승원 그림

국케 되면서, 선교사 3인이 있던 집은 두 집에서 살림하게 하고, 한 집을 더 마련하여 협소함은 면하게 되었다.²⁵⁾ 한 집을 더 마련하게 되니 가옥세 예산이 200원에서 350원으로 증가되었다.

세 번째의 문제는 선교사 자녀들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선교사 자녀교육문제가 1915년 처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제출되었다.²⁶⁾ 그러나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로 청구한 것은 의사에 대한 것이다. ²⁷⁾ 산동 선교지에는 목사 선교사 3가정 외에 다른 동역자들이 없었고 특히 병이 나서 몸이 아플 때 치료방안이 전무하여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총회는 이 문제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중국선교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원만히 처리해 나가기에는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영훈 목사는 본국에서 2개월 간 머문 후에 산동 선교지로 귀환하였다.

1915년 가을과 겨울에 5~6인의 신입교우가 생겼고, 1915년 12월 성탄절에는 30명 교우가 합동연보를 하여 서책 한 상자를 사고, 관번(官卡)과 교섭하여 감옥소에 목사 3인이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죄수들이 복음을 기쁘게 듣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은 평생 처음 본 재미라고 할 정도로 희열을 맛보게 되었다.²⁸⁾

산동 래양에서의 교도소 전도는 1915년 12월 25일부터 시작된 셈이다. 특히 중국 교우들이 연보한 돈으로 서책 1상자를 구입, 전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선교사는 어학공부에도 진전이 있어서, 1916년도 전도국 보고에 의

25) 총회록(1916), PP. 29~30

26) 선교사자녀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7) 총회록(1915), P. 36

28) 기독교신보(1916. 1. 26)

하면 중국어 설교와 전도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⁹⁾

병으로 떠나는 박태로 목사

박태로 목사와 가족은 1916년 4월 귀국하게 되었다. 박 목사의 질병 때문이다.³⁰⁾ 박 목사가 귀국하게 된 1916년 4월 26일 전인 4월 6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파송한 제1차 중국선교지 시찰위원 이일영, 심익현 목사가 산둥성 연대에 도착하여 5일 간 머물게 된다. 이때 김영훈 목사가 시찰위원을 영접, 래양 선교지로 안내를 하게 되었다. 시찰위원 2명과 김영훈 목사는 4월 12일경 래양에 도착하였고, 시찰위원은 래양 서문 내 복음당에 유숙하면서 일주일 간 교회형편 등을 살펴보고 귀국하게 되었다.

제1차 선교지 시찰위원 2명은 시찰 후 귀국하였고, 이일영 목사는 기독교신보에 “중국산둥여행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³¹⁾ 박태로 목사 가족의 선교지에서의 철수는 남아 있는 두 선교사(김영훈, 사병순)와 그 가족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³²⁾ 박태로 목사 가족의 귀국으로 선교지에는 김영훈, 사병순 목사 가족만이 남게 되었다. 선배이자 동역하던 박태로 목사가 질병으로 귀국하는 모습을 두 선교사는 어떠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을까?

선교지에 계속 사역하고 있던 김영훈 목사와

그 가족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는 어떠하였을까? 특히 목사 사모의 상태는 또 어떠하였을까? 1916년 봄 국내에서 발행되던 선교사들의 영문잡지 코리아 미션월드에 기고한 Kerr의 글에 의하면, 선교사 사모들은 할일이 너무 많아 거의 어학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심한 고립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당장 어떤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웠던 것 같다.

1916년 9월 평양신학교에서 회집된 제5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 산둥 선교지를 시찰한 이일영, 심익현 목사가 산둥시찰 보고를 하게 된다.

“선교사 3인과 그 가족의 곤란한 형편과 전도의 발전되는 형편을 간단히 보고함으로”³³⁾ 선교사들의 곤란한 형편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지는 아니하였고, 그보다도 선교지 확장을 위해 선교사를 1명 더 파송하자고 청원하였던 것이다.

이일영의 산둥여행기의 한 부분을 보자.

“전도국에서 선교사 1인을 더 파견할 것이면 최초 경영하던 해양지경까지 우리 선교사의 전도구역이 될 듯하오니 희망이 우대(尤大)하다.”³⁴⁾

29) 박종구, “세계선교, 그 도전과 갈등”, P. 28에 초기 3인의 선교사 선교지 철수 이유를 열거하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라는 문구는 부적절한 지적이다. 조선 선교사 3인이 언어문제 때문에 선교지를 철수하게 된 것이 아니다. 조동진, “민족과 종교”, P. 322에 “이들의 선교사업은 평탄하지 않았다. 첫째로 이들은 중국어가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조선 선교사 3인은 중국어 학습에 실패하지는 아니하였다.

3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P. 135에는 1915년 귀국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다.

31) 광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김춘섭 옮김, P. 294에 “전도부는 그들을 네비우스 정책에 붙들어 두었으며 수시로 시찰위원회를 보내 그들의 사역을 점검하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라고 되어 있으나 3인의 선교사 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를 시찰한 것은 이일영과 심익현 두 사람의 방문이 전부였다.

32) 중국연구협의회편, “중국선교 III”, P. 36

33) 총회록(1916), P. 27

34) 기독교신보(1916. 9. 13)

사명순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를 이탈해 미국으로

1917년 9월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제6회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전도국장 김건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중국선교사 사병순, 김영훈 양씨는 전도국 허락없이 한국하였사오며”³⁵⁾

장로교총회 전도국에서 파견한 최초의 해외 선교지 시찰위원의 시찰성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시찰위원들은 과연 시찰기간 중 선교사들이 무거운 과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면들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였는가? 불행하게도 김영훈, 사병순 목사는 전도국의 허락없이 귀국하게 된다.

시찰위원들은 선교사들의 상황을 종합하여 적절한 대처와 휴식(안식년)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역할 감당에 부족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1916년 4월경에 래양 선교지 세례교인이 10여 명(가을 총회에는 12명으로 보고됨)으로 증가되었고 근수주일하는 교인이 7~8명이었다.³⁶⁾

김영훈 선교사 등은 1916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학도 향상되어 있었다.

“장래의 희망을 논하면 우리 선교사 3인이 중국어로 전교(傳敎)하게 되어왔으니, 금추(今秋)부터는 구성내(區域內)에서 선교할 경영이 며”³⁷⁾

언어도 가능해지고 모든 면에 가능성이 엿보이던 시기에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는 돌연 허락도 없이 귀국하고 만다. 곽안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머지 두 사람에게에는 갑작스럽게 약속의 땅인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한 기회란 동양에 사는 어느 사람의 문에도 두 번 두드리지 아니한다.”³⁸⁾

동료선교사 한 가정은 귀국하고 선교지 상황은 어렵기만 하고 가족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선교사 사모는 답답하고 힘들어 하고…….

곽안련의 글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들과 만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토로하고 상의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본국으로 귀국할 수도 없고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하기도 어렵고 하던 차에, 미국행이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김영훈 선교사가 미국행을 먼저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행을 제안한 미국 선교사는 누구일까? 물론 조선 선교사들이 하도 딱해서 돕자는 의미로 제안했을 것이다.

김영훈 목사가 잘 아는 미국 선교사는 누구일까?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1913년 산둥 연대에 도착했을 때부터 안면이 있고, 산둥장로회 소속으로 다년 간 조선 선교사 문제(이명문제 포함)에 관여한 리 목사가 아니겠는가.

서양선교사 리 목사는 이유림(李維廉) 목사일 가능성이 높다.³⁹⁾ 불행하게도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는 그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어려운 고비를 본국교회와 상의하여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선교지 무단이탈, 미국행 도피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첫 선례를 한국교회 해외선교 역사에 남기고 마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김영훈, 사병순 목사는 왜 자신들의 고충과

37) 기독교신보(1916. 9. 13)

38) C.A. CLARK, “THE MISSIONARY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KMF (1934), P. 170

39) 서양선교사 이유림에 대한 언급이 총회록에 나타난다(4회록 P. 10/ 5회록 P. 77/ 6회록 PP. 36~37). 기독교신보(1916. 8. 23일자)도 참조하라.

35) 총회록(1916), P. 21

36) 기독교신보(1916. 9. 6)

어려움을 총회전도국 담당자들과 의논치 아니하고 총회전도국의 허락을 외면하고 선교지를 떠나야 했는가?

총회선교국에 대하여 김영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김영훈 목사의 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당초 아(我)의 철귀(撤歸)한 본의는 선교를 불가능이라함도 아니요 불가라 함도 아니라, 단 전도국으로 하여금 선교사업에 대하여 시설을 상당(相當)케 하기 위함이다. 도금(到今)하야는 선교사에게 향하여 시설과 범절(凡節)이 서양 부국과 같이 유족(裕足)다 할 수는 무(無)하나 빈약(貧弱)한 우리로는 성(誠)과 력(力)을 진(盡)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그러면 아(我)는 철귀(撤歸)함으로 목적을 달(達)하고 선교의 문로(門路)를 개척(開拓)한 줄 자신하고 영광과 찬송을 신(神)에게 귀(歸)한다”⁴⁰⁾

김영훈, 사병순 목사는 선교지를 개척하고 선교의 문을 여는 첫 과업을 성심껏 수행하기는 했으나, 조선예수장로교회를 대표하여 중국에 파송된 중대한 신분에 걸맞지 않게 선교지를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⁴¹⁾

김영훈 목사는 1913년 11월부터 1917년 4월까지 만 3년 6개월 동안 중화민국 산동 선교사로 사역을 한 것이다.⁴²⁾

김영훈 목사는 중국 선교사직을 그만둔 후에 상해, 미주 등지에서 3·1운동 이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⁴³⁾

40) 김영훈, “산동선교의의에 대하여”, 기독교보 (1927. 7. 27)

41) 박안련 박사는 자퇴이유의 하나로 선교사 자신들의 견해(중국인 전도자 20명 고용자금 제공 청구했다고 하나 그 사건은 첫 3인과는 무관하다)가 기각당한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산동 선교역사 진행과정을 혼동하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KMF(1934, AUGUST), P. 170과 그의 책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를 참고하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김영훈 목사가 중국 산동선교지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난 후, 1921년 9월 평양 장대현에배당에서 개최된 제10회 장로교 총회시에 헌의부장 김익두 목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지금 미국에 가서 류하는 김영훈(金永勳)씨가 중국 산동으로 다시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는 청원은 전도부로 보낼 일”⁴⁴⁾

미국으로 건너간 김영훈 목사의 마음이 어찌 편했겠는가. 그는 자신을 다시 중국 선교지로 파송해 달라고 청원을 한다.

귀국, 그리고 다시 교역의 길로

1921년 당시 중화민국 산동 래양 선교지에는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목사와 그 가족들이 사역 중이었고 새로 파송할 선교사로 안동에서 목회하는 이대영 목사를 선택한 상태였다.⁴⁵⁾

또한 래양에는 김윤식 의사 가족이 자발적으로 의료사업을 하면서 선교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었다. 김영훈 목사의 청원에 대하여는 마포 목사에게 위탁, 편지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김영훈 목사는 귀국하

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P. 135에 “산동선교가 시작된지 3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그리고 박안련은 “5년 동안”(KMF 1934)이라고 했으나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이다. 나일선 박사 편저, “효과적인 세계선교”, PP. 156~157에 “중국에 처음으로 갔던 세 명의 선교사는 5년 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한국으로 돌아 왔다”고 기록하였는데 부적절한 평가이다. 1919년에 다시 세 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였다고 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한경철, “선교 1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P. 171에 “최초 산동성에 파송되었던 3명의 선교사 중 1명은 1년 이내에 죽고 (사병순), 1명은 돌아오고 (박태로), 1명은 미국으로 가 버렸다(김태훈)”라고 부정확하게 기록하였다.

43)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 제3권), P. 256

44) 총회록(1921), P. 21

45) 총회록(1921), P. 44

게 된다. 그는 고향인 평북 의주로 가 의산노회에 소속하여 교역에 다시 나가게 된다.

김영훈 목사가 중국으로 떠날 때에는 의주가 평북노회지역이었으므로 평북노회 소속 목사였으나, 1918년 11월 27일 평북노회로부터 분립하여 의산노회가 성립된 고로 의산(義山)노회 소속목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⁴⁶⁾

1922년 29일 제8회 의산노회가 의주읍 동(東)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노회장은 김영훈 목사가 조사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위대모 선교사였다. 당시 의주읍 서(西)교회 목사 김창건을 전교회가 불신임하여 사면케 되면서, 의주읍 서교회 임시목사로 김영훈 목사를 시무하도록 허락이 되어졌다.

6개월이 지난 1923년 2월 27일에 김영훈 목사가 임시목사로 시무하는 의주읍 서교회에서 제9회 의산노회가 개최되어 회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김영훈 목사를 의주읍 서교회 담임목사로 허락하게 된다. 동년 9월 8일 제12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의주 교회 예배당에서 회집케 되었는데, 김영훈 목사는 의산노회 목사가 총대로 최명준, 안승원, 박관도, 립준철 목사 등과 참석하여 총회에서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⁴⁷⁾

제12회 총회 첫날 첫 개회기도를 김영훈 목사가 하게 된다. 김영훈 목사는 총회기간 중 “교역자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다. 제12회 총회는 일본 동경 대지진 발생으로 막대한 손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총회가 위문하기로 가결하고, 김영훈 목사와 경충노회 박용희(朴容義) 장로를 별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 함태영, 김영훈, 박용희 이름으로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앞으로 보낸 위문서는 다음과 같다.⁴⁸⁾

산명해소세계개경 옥파시렬거국동경
성자패시복종재래 감이미사원축대홍

山鳴海嘯世界皆驚 屋破市裂舉國同驚
成自敗始福從災來 敢以微詞遠祝大興

12회 장로교 총회시 김영훈 목사가 맡은 직책을 살펴보면 의산노회 재단실행위원, 총회전도부위원(3년), 노회록검사위원(산서노회) 등이다.

1924년 2월 13일 제11회 의산노회가 체마(替馬)교회에서 개최되어 회장에 김영훈 목사, 서기 홍하순, 회계 김학련이었다.⁴⁹⁾

1924년 9월 13일 제13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함흥읍 신창리예배당에서 개최되었고 김영훈 목사는 의산노회장 총대로 참석을 하였다.⁵⁰⁾

김영훈 목사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검열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검열위원 량전백, 함태영 목사와 검열하였고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상권”이 1928년에 간행되었다.⁵¹⁾

그 후에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을 총회사기편찬위원회에서 다년 간 수고하여 편집하게 되는데, 김영훈 목사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

1930년 7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국 안동현의 함태영 목사와 같이 사기 수정에 많은 수고를 하였고⁵²⁾ 1930년 8월 20일자로 교회사기후를 수정차 김영훈이 한자로 기록을 하였다.⁵³⁾

49)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P. 362

50) 김영훈 목사의 당시 주소는 의주군 의주면 서부동(西部洞)이다.

51)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1928)에 김영훈목사의 가족과 입신내용이 간단하게나마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기 검열위원으로 김 목사가 수고한 사실을 통해 그에 대한 기록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고로 그의 입신시기를 190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52) 총회록(1930), P. 29

53)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P. 404

46)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P. 357

47) 총회록(1923), P. 8

48) 총회록(1924), PP. 42~43

김영훈 목사는 당대학자요 서예가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1924년 장로교총회에서 그가 맡은 직책은 동경대지진 위문위원, 사기 검열위원, 외지전도부원 신학교육부원, 공천부 정기위원, 노회록 검사위원이었고, 1925년 장로교총회에서는 외국전도부원, 신학교육부원, 사기 검열위원의 직책으로 수고를 하였다.

김영훈 목사는 1925년 의주 서부 등에 위치한 양실학교(사립) 교장으로 수고하였는데, 양실학교는 의주의 사립학교로는 가장 오래되고(1899. 3. 9설립)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의주군 유일의 사설 초등학교기관으로 존재되면서 유능한 인재를 수 없이 길러냈다.⁵⁴⁾

김영훈 목사가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원 8명, 보통과 생도 270명, 고등과 생도 20명이었다.⁵⁵⁾

1926년 김영훈 목사는 의산노회 총대로 (의산노회장은 한석진 목사) 제15회 총회에 참석하였고 신학교육부장, 사기검열위원 신학교 이사로 수고하였다.

1927년 9월 9일 제16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원산부 광석동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의산노회장 박린도 목사, 정상인 목사, 한석진 목사, 송윤진 목사, 김석항 목사, 김영훈 목사가 의산노회 목사총대로 참석하였다.

전체 참석인원은 목사 총대 89명, 장로 총대 89명, 선교사 34명, 합 212명이었다.⁵⁶⁾

김영훈 목사는 제16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정되었다.

총회장이 된 김영훈 목사는 총회관계 제반업무에 관여하여 크게 활동을 하였고, 1928년에는 전도부원, 신학교육부원, 금강산 수양관 건립 실행위원으로, 1929년에는 교회사 검열위원, 전도부 사무국원, 만국장로회와 경정교(更正

敎)연합회 동양발기회 위원, 신학교 이사로 수고하였다.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의주군 의주면 서부동에 위치한 청산(靑山)유아원 원장으로 지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

김영훈 목사의 말년에 대하여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면서 그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중국산동선교, 김영훈 목사는 1913~1917년까지 중국산동에서 활동, 중국선교의 발판을 놓다가 어려움을 견디다 못하여 불명예스럽게 무단이탈,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자신의 부족을 돌이켜 다시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청원하는 용기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김영훈 목사는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해외선교의 꿈을 가진 자들과 한국교회는 초대 중국 선교사 김영훈 목사의 3년 반 동안의 중국선교의 경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선교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를 보낸 한국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요, 선교사 한 명이 훌륭하게 사역하면 모두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양자 모두가 잘 준비하고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김영훈 목사의 설교 중 일부분을 소개해 본다.

“우리 싸움은 혈육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심령으로써 악자의 꾀계를 대적함이다. 그런즉 진에 임한 우리들이 먼저 할 것은 진리의 양식을 잘 먹어 기근이 없게 하고, 생명의 활수를 잘 마시어 갈함이 없게 하여 자신을 강건케 할지며, 진실로 허리를 묶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복음의 신을 신고 신앙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신의 검을 들며 기도로 포대를 쌓아 방비를 공고케 할 것이다. 아! 싸우자

54) 의주군지(1975), P. 114

55) 총회록(1925)부록, P. 28

56) 총회록(1927) 부록, P. 1

... 아! 나아가 싸우자”(57)

우리 자신과, 이 세상, 마귀, 죄, 온갖 불신앙적인 사조와 싸워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 “싸우자”라는 제목의 그의 설교가, 그의 외침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 하다.

김영훈 목사 그는 한국교회 해외선교, 중국 선교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에 남아 오래오래 기억되는 인물이 될 것이다.

김영훈 목사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39년에 별세했다고 전한다.(58)

필자 주:

김영훈 목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된 연구 기간은 그의 중국 선교 시기(1913-1917)입니다.

본 연구에 있어서 그의 신학, 사상, 설교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1927년대 산동선교 반대 의견이 나타날 때 그에 대한 김영훈 목사의 글이 있지만 역시 다루지 아니하였습니다. 1930년의 김영훈 목사에 대한 자료 발굴이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입니다. 후일에 더 좋은 연구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해외선교사로) 역대 선교사 중 타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한 첫 인물이었던 박태로 목사, 김영훈 목사에 대한 적은 연구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연구협회 임원과 여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57)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 한국설교대전집 (1979)1권, P.281

58)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 제3권)

선교자료 안내

■ 선교도서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3,000원
2. 중국선교-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3,500원
3.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500원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1,500원
6. 神愛世人(中文) /2,000원
7. 만남 /2,000원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1,500원

■ 교재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1,500원
(Tape:1,000원)
2. 經文背誦 /1,500원
(Tape:1,000원)
3.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Tape:1,000원)
4.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12,000원
5. 信仰讀本 /7,000원
(Tape:1,600원)
6. 中國語新약성경 /10,000원
(tape:25개 한어병음 20,000)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김바울 간사
(전화: 594-8038, 535-4255)

선교사로서의 소명 - 실상과 허상

다니엘 베이컨

어떤 선교 집회가 막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온 강사가 자신이 전한 도전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청중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바야흐로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추수 때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헌신하겠습니까? 받은 회여져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광경은 거의 우리 모두가 여러 번 경험하여 익숙한 광경일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위와 같은 헌신자 초청의 설교가 외쳐져 왔다. 불행하게도 위의 선교 집회에서는 한 학생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농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다.

“도대체 알 수가 없군.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지만 어째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그렇게 어렵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어?”

선교 집회 등의 모임에서 ‘선교 사역에로의 소명’에 관한 문제보다 더 많은 의문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없다. 최근 수년 동안에 ‘선교 사역에로의 소명’이라는 용어는 많은 회의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러한 과정 속의 열기도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선교사역에로의 소명’에 대하여 잘 정리된 공식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역에로의 소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해롭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의 사용 절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선교의 필요성과 도전을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선교의 소명이란 무엇이며 자신이 그러한 소명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노력하고 있다.

로버트슨 맥퀼킨(J. Robertson McQuilkin)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열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때 어떠한 곤경에 처하겠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섬기는 일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선교 사역을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이 선교의 소명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2천년 전에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로 부

르심을 받은 것이다.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라.

-여러분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 자체가 바로 당신이 선교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 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두 번 들을 권리는 없다.

-당신이 심어진 그곳에서 자라라.”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부분이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선교 사역에로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오랜 전통과 그보다는 더 강한 감정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그 용어의 실제적인 면과 허구적인 면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의 소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나라나 사역의 분야로 뛰어들어야 한다면 느끼는 확신에 결부되어 있는 용어이다.

또한 선교의 소명이란 특별한 사역, 대개는 타문화권에서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한 소명이 없이는 선교 사역에로 모험을 하는 것이 문제만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선

교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위의 상황이라는 공식을 통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선교의 소명’이라는 개념의 성경적인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 관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성경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이 이상의 어떤 주관적인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객관적인 견지에서 볼 때 소명을 받았다는 어떤 ‘느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선교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소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일반화하여, 소명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다 통합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위의 두 가지 견해들 사이의 어느 중간쯤에 해당된다. 개인의 확신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지만 선교사역에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무시될 수 없다. 실제로 그에게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교회나 선교기관에서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소명 의식과는 관계없이 선교사 후보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사 허입 원서를 낸 후보생들에게 그들의 ‘소명’에 관하여 쓰라고 요청하고 있다니 흥미로운 일이다. 이와 같

은 사실은 선교사역에로의 소명의 개념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셸 그리피스(Michael Griffiths)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사 후보생에게 그가 그들의 단체와 일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까지도 질문한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단체가 스스로의 중요성을 과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들과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그들이 실제로 질문하는 바는 그 후보생이 그 단체만의 특별한 신조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적인 용례를 떠나서 성경은 선교의 소명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타문화권의 선교사로 가기를 요구하시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소명

분명히 ‘소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다. 보통 ‘소명’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낱말인 ‘칼레오(Kaleo)’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48번 사용되고 있으며 그와 관계된 용어가 70회 이상 나온다. 요약해서 말하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소명’(부르심)이란 주로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한다(엡 4:1).

또한 소명이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바는 어떤 지역이나 단체

가 아니라 어떤 관계 혹은 기능에로의 부르심인 것이다. 더구나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사도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기록도 없는 것이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으로 언급된 적도 결코 없다(디모데 전서, 디도서). 따라서 허버트 케인(Herbert Kane) 박사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선교의 소명이라는 낱말조차도 생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며 따라서 해로울 수가 있다.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신비한 소명을 기다려왔지만 그러한 것은 없었다. 그리하여 한참 후에 그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교의 소명이 된다거나, 타문화권 선교사로 가기를 결정하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며 그 예를 보여주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사유에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교 사역에의 헌신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전에 근본적인 한 가지 문제를 강조해야 하겠다. 그것은 세계

의 복음화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는 것이 분명한 ‘소명’을 받아야 그 일원이 될 수 있는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교회의 전문화된 과업으로 여겨 버리려는 함정에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전체 교회에 대한 것이지 선택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최소한 다섯 번은 말씀하셨다) 그것은 전체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마태가 기록한 주님의 지상 명령의 특징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명령의 성취에 있어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빌 11:5).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과업이 교회와 선교 기관, 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일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인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분법이란 없으며 세계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개인

이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등의 말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소위 선교의 소명 혹은 선교사로서 섬기는 문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집에 가서 이것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 번이나 분명하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반드시 개인화 또는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의 생애와 사역을, 온 세계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세계적인 계획에 맞추지 않고 또 그것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 기껏해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뿐이며 심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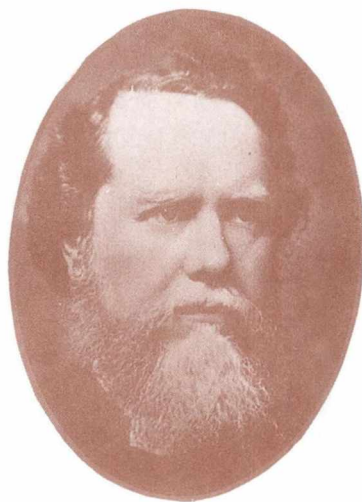
다니엘 베이컨 /OMF미국 지역 대표.
편집자 주: 이 글은 「아시아기도, OMF KOREA」 93호에 실렸던 것으로서 OMF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초기의 선교 경험

허드슨 테일러

나는 1854년 3월 1일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예상 밖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홍건(紅巾:Red turbans)”이라 불리우는 반란군이 상해를 점령했는데, 그들에게 대항하는 정부군의 숫자는 겨우 4만에서 5만 명에 불과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작은 모임이었던 유럽인들의 사교 모임에서는, 사람들은 정부군이 반란군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한 존재로 느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와이탄(外灘) 밖의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결코 돈이¹⁾ 있다고 해서 와이탄 내의 지역에서 쉽게 머물 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은 전 1원(元)은 약 3실링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8실링 9펜스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나처럼 돈 몇 푼 없는 객지사람에게는 정말로 앞날이 캄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때 나를 위해 써준 3통의 추천서가 있었는데, 이 편지들이야말로 당시 나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중 내가



잘 알고 존경하는 친구가 써 준 소개편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즉시 편지 속에 써여진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분은 내가 중국으로 오는 도중에 열병을 앓아 한 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큰 실망과 근심에 빠져버렸다. 또 다른 추천서에서 소개한 선교사를 찾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에도 역시 실망의 소식이 들렸다. 추천서에서 소개한 그 선교사는 이미 미국으로 귀국한 후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추천서 한 통이 있지만, 전의 두 통의 편지만큼 큰 기대를 걸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은 나와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추천서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한 통로였다.

이 편지는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²⁾의 메드허스트 박사(그분은 목사이기도 했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메드허스트 박사님은 나를 록하트(Dr. Lockhart) 의사에게 소개시켜 주어 록하트는 나를 자신의 저택에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게 해 주었다. 나의 첫 번째 중국어 선생님이 되었던 에드킨스 박사(Dr. Edkins)도 바로 메드허스트박사(Rev.Dr.Medhurst)가 소개해 주신 분이다. 에드킨스 박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윌리선생님(Mr.AlexanderWylie)과 함께 나의 중국어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그 당시 난 참으로 혼잡하고 위험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윌리 선생과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동문(東門)에서 뒤쳐진 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윌리 선생은 두 명의 쿨리(苦力: 중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의 하층 노동자-역자주)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친구가 우리를 쫓아오기 전, 강 건너편에 있는 대포가 이쪽 시내를 향해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우리는 긴급히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했으나, 폭탄 터지는 소리가 바로 우리 근처에 있어 매우 불안했다. 그 두 명의 쿨리는 미처 피하지 못하여 둘 다 크게 다쳤다.

조계(租界: 서양 국가들이 중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던 '租界地'-역자주)에 도착하여 몇 분 동안 물건을 좀 사고 급히 런던선교회의 사무실로 향했다. 가는 도중 병원 정문 앞에서 아까 윌리 선생과 담소를 나누던 두 명의 중국인들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으나 발을 절단하는 수술을 거부하다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금방 일어났던 위험한 상황을 회상해 볼 때 우리가 그 큰 봉변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한 선교사 집의 베란다에 서서 윌리 선생과 함께 전쟁의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서 있던 곳은 전장에서 불과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 때 갑자기 유탄(流彈) 하나가 우리 사이로 스쳐오더니 다행히도 벽에 맞고 떨어졌다. 또 하루는 윌리 선생이 점심을 먹고 난 후 책 한 권을 책상에 놔두고 잠시 자리를 뒀는데, 5분 후 자리에 돌아와보니, 방금 앉았던 의자는 이미 폭격을 당해 산산히 부서져버린 상태였다. 이런 술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록하트 의사의 집에서 6개월간 머문 나는 조계 밖의 지역에 방을 하나 빌려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조금씩 전도하기 시작했다. 몇 개월 후에는 전도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

프랑스와 청나라 군대가 연합하여 도시를 공격하는 최후의 몇 주 동안, 내가 세든 방의 위치는 매우 위험했다. 밤에 폭격이 잦아지자 아예 수면을 포기하고 낮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우리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는 곧장 지붕 위에 올라가 전에 만들어 두었던 전망대로 몸을 피해 망을 보면서,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 때 포탄 하나가 정원 맞은편의 지붕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기와들이 다 부서지면서 마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내 몸 위에 퍼부어졌다.

정원에 떨어진 포탄 파편은 적어도 그 무게가 9~11Kg 정도는 될 것 같았다. 만약 탄알이 조금만 높게 날아왔다면 그 표적은 지붕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탄알을 몇 년 동안이나 보관하셨다.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나는 그 집을 떠나 다시 영국 조계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사를 하기로 한 것이 결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다. 참으로 아슬아슬하게도 내가 집을 모두 옮기기 전에 집 전체가 벌써 폭격을 당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시련의 나날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처럼 천성적으로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전쟁의 공포와 잔인함,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은 너무나 힘겨운 시련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민망하고 불안한 사건들이 연이어 자주 일어났다.

그 당시 나의 연봉은 불과 80 파운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조계지로 이사를 간 후에는 한 달 방세만 120파운드 이상이 들었다. 그래서 방의 절반을 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파커 박사(Dr. Parker)가 중국을 방문한 후 중화전도회(中華傳道會) 위원들이 우리의 처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내 수입이 조금 인상되긴 했으나

넘어야 할 산들은 여전히 높았다. 나처럼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젊은 선교사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개척자로서 갖는 진한 고독감을 맛보아야 했다. 이런 고독감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전혀 내색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구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음성이 시도때도 없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모든 일이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아!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추위와 배고픔, 위험한 밤에 홀로 잠 못 이루며 심지어는 완전히 고립되어 아무런 도움도 의지할 곳도 없는 느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당하고 세심한 선택과 온전하고 사랑이 넘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떤 환경이 이보다 더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그 어떤 환경에서 이보다 더 많이 찾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나는 이런 나날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은 결코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내 의지를 견고히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이미 증거



장승원 그림

하신 대로, “나는 결코 너를 저버리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지 않은가? 그 때보다 평탄한 오늘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내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은 나를 파송한 선교단체와의 계약에 위배되는 일이었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란니탄(爛泥灘:Muddy Flat) 전투 이후 더욱 그랬다. 이번 전투에는 약 3백 명의 해군과 선원으로 구성된 영미(英美) 연합군과 함께,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 1백명 가량이 지원군으로 참전하여 청나라 군대에 공격을 개시했다. 이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3만~4만 명에 가까운 중국 군병들이 진영 밖으로 쫓겨갔다.

영국군의 폭격 사정거리는 매우 정확하여 청나라의 포병부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 비록 이런 상황이긴 했으나 1854년 가을, 우리들은 에드킨스 박사의 안내를 받아 일주일 동안 중국 내륙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설교는 당연히 에드킨스 박사가 맡았고 나는 문서 책자를 나눠주는 것을 도와주었다.

주

1. 와이탄(外灘)은 “치외법권”에 의해 1843년 상해에 설립되어 유럽 각국의 관할로 들어갔다.

1943년 조약에 따라 와이탄은 중국정부의 관할로 귀속되었다.

2. 일반적으로 런던전도회(倫敦傳道會:London Missionary Society)로 호칭된다.

편집자주: 이 글은 홍콩 宣道出版社에서 출판한 『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宣道出版社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차이나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발견한 영원한 생명

頌恩

아이로의 딸처럼 다시 얻은 생명

세 살 되던 해 나는 홍역에 걸렸었다. 열이 내리지 않아 숨이 간들간들 끊어질 듯 하여 혼수상태에 빠져버렸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차마 관 속에 넣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나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이 아이의 영혼을 구해 주세요! 주여, 제발 이 아이를 구해 주세요!”

나의 영혼과 육신이 막 떨어져 나가려는 찰나,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창 밖에 서서 나를 살리려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머니를 보고 있었다. ‘저렇게 위독한데 아이 엄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살려낼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좀 불러와 같이 기도하여 저 아이를 살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곧장 교회에 달려가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와서 나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안수 기도 할 때 나는 마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아이로의 딸처럼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났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일어난 후, 이웃집 아저씨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내게,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이런 연고로 어머니는 나를 매우 엄하게 기르셨다. 주일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처럼 제멋대로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였고, 주일학교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는 꼭 그날 배운 설교와 찬송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해보라고 하셨다. 그런 나날이 얼마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하도 찬송가를 여러 번 듣고 불렀기에 완전히 귀에 익혀버렸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구절 하나를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 뒤로는 내 마음 속에 피가 생겨 설교시간에도 건성으로 듣게 되었다.

열세 살이 되던 해, 나는 교회가 아닌 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날 강사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지 않았다면 심판날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다. ‘나는 아직



장승원 그림

죄인이며 거듭나지 않았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나의 죄악은 아직 깨끗이 씻기지 않았으며, 죄사함의 평안도 얻지 못했다.”

집회가 막 끝나려 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통곡을 하며 큰 소리로 나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는 뒷자리로 뛰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고백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셔서 나는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했어요…….”

4시간 동안이나 나는 큰 소리로 울며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회개했다.

곧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결혼 이야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말씀을 읽으면 마치 주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마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몇 년 동안 이런 삶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나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는 기뻐 찬양하며 북 치고 춤을 추었지만, 막상 생명의 길을 걸어 갈 때는 불평과 원망이 잦았던 것과 똑 같아졌다.

저지양성(浙江省)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는 풍속이 있다. 여자들이 16, 17세 정도 되면 중매가 들어온다. 내가 열여섯 살되던 1944년, 어떤 주의 종이 베이징(北京)으로부터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결혼” 이었다.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여! 형제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보지말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눈여겨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형제들이여! 자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가를 보지 말고,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를 보십시오.”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때쯤 어떤 사람이 어머니에게 방(方) 형제 얘기를 꺼냈다. 그는 나보다 여덟 살이 많고 원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열아홉 살 때 상하이(上海)에 있는 작은 할머니댁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작은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모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로서, 방 형제가 장가 들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에 소개했던 것이다. 자기를 예수 믿도록 인도하셨던 그 방씨 할머니가 나를 조카손주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셨다. 시골에 살고 계신 방 형제의 어머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중매한 사람이 귀땀해주었는데, 친정어머니는 그런 것은 괜찮다며, “일단 내 딸이 시집가서 방씨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면 나는 안심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상하이(上海)에 와서 살게 되면 곧 예수님을 믿게 될거예요.”라고 말씀하셨다.

결혼할 때 어머니는 내게 수차례 당부하셨다. 출가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친정 어른들의 체면을 깎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온 정성을 다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나타내려 하였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책임감이 결국 나로 하여금 위선자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화가 나도 마음속에서 꼭 참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어도 그냥 묻어 둘 뿐이었다. 교회의 형제자매들 모두 이런 나를 칭찬했다. 나는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년회에서 봉사했고 반주자로 섬기기도 하였다. 사실 내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은 점점 침체되어 갔으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직 주님만이 아실 뿐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1960년, 결혼한 지 16년째 되던 해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남편이 위암, 그것도 말기 위암 환자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미리 알고 있던 나는, 이제 더이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된 위선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였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손이 드디어 나를 치셨군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수술을 마친 의사는, 남편 뱃속의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퍼졌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괴로웠다. 그 때 내게는 여섯 명의 아이들이 딸려 있었는데, 제일 큰아이가 15살, 막내는 겨우 1살이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두 분의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의사 말에 의하면 그이는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죽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원컨대 그 이가 너무 아프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그이를 구원하시겠다고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더이상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의사가 신신 당부 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식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매일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친정어머니에게조차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난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처지였다. 나는 주님께 눈물을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수술한 지 2주일이 지나자 의사는 아예 치료를 포기했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한 번도 그이에게 우리 아홉 식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 5일 후 이발사를 집에 불러 남편의 머리를 이발해 주려고 했으나, 그이는 머리만 감으면 그런 대로 죽하다고 하였다. “그런대로 죽하다.”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머리를 감고 난 뒤 그이는, “찬송가를 좀 가져다 줘요. 지금 정신이 아주 맑아졌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같이 찬송 좀 부릅시다”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 누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봤다는 간증을 자주 듣긴 했어도 그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남편을 보니 마음속으로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남편은 「예수는 세상의 왕」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했다. 이 찬송의 마지막 절을 부를 때 그 이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또 다른 찬송을 불렀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네 짐을 주께 맡겨라」, 「주를 위해 증거하길 두려워 말라」 등 가사가 매우 긴 찬송이었다. 식구들은 남편이 너무 피곤해 할까봐 이제 그만 부르자고 했으나, 그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내겐 하나님이 필요해요」라는 짧은 찬송을 함께 불렀다.

여섯째날 저녁 8시 30분, 그이는 내게 고백했다. “난 오늘에야 비로소, 당신이 요 석 주 동안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지내왔는지 알게 되었다요.”

나는 속으로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다. 지금 이 순간 냉정하게 저이를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이가 “우리애들은 어떡하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걱정말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삶과 죽음 가운데서 본 영원한 생명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남편을 부축하고 화장실로 갔다가 침대로 돌아오는데, 잘못해서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침대에서 넘어져 쇼크를 일으켰다. 놀란 나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기절했던 그이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는데,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그이는 한 손을 들고 기도했다.

“주님! 지금까지 한 평생 걸어오는 동안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이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기도를 마치고 깨어났다. 나는 아이들을 하나 하나 불러 아버지 앞에 불러세웠다. “아버지, 안심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세요” 큰 딸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편은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아빠는 떠난다. 아빠가 보고 싶거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만약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아빠를 만날 수 없단다.” 라고 말했다. 남편은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다시 기도를 했다. 오후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었다.

그이의 마지막 기도는 내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기도이다. 기도할 때 남편은 눈을 감고서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았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전 작가가 아니어서 주님의 사랑을 글로 쓸 수 없어요.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

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전 화가가 아니라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전 시인이 아니어서 주님의 사랑을 읊을 수 없어요. 이런 병에 걸렸는데도 어찌하여 한 번도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는지요? 예수님! 이제 주께로 갑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는 그에게 갈아입힐 옷가지를 가지러 2층에 있는 우리 부부의 방으로 갔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속으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사진 속의 그이는 총각이었고 새로 산 자전거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지금 그이는 우리 식구들을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나는 그이의 사진 속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시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넌 그것을 위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오, 내 눈에 고인 눈물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며,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사실에 대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입으로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 진실로 그 사실을 체험하진 못했어요.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후 나는 남편의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일할 때 일을 하면서 조금도 슬픈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웃이나 친척들, 심지어는 친정어머니 까지도 모두 내가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미쳐버린 것이라고 여겼다. 더이상 내게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그들은 영결예배도 빨리 끝내 버렸다.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난 그이를 입관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관을 모지로 옮길 때 나는 차 속에 누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이는 안장되었고 난 관이 매장되는 것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이 모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울음을 막아 주시기 위한 것일게다.

입원

남편이 죽은 지 석 주 후, 나도 간이 붓고 고열이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한 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것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라면 내가 잠잠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역시 남편과 사별한 한 자매가 내게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불러 주었다.

“감람을 찢서 기름을 내지 않으면 그 향기 그윽하지 못하고, 포도를 찢서 즙을 내지 않으면 포도주가 되지 못한다. 이와같은 매번의 시련은 모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 주님이 내게서 거둬가신 것을 주님 자신으로 채워주신다.”

이 찬송가는 내게 매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었는데, 제사 지내는 문제로 시어머니는 예수 믿는 식구들을 몹시 힘들게 하셨다. 성경도 보지 말

라, 찬송도 부르지 말라고 해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아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지니라.”는 말씀을 읽고 난 지 5분 쯤 지났을 때, 병원 측에서 전갈이 왔다. 딸이 1층에서 울면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힘겹게 계단을 잡고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가정이 바로 내가 기를 양이군요.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직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내려가자마자 큰딸이 문을 잡고 우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빨리 와보세요. 막내가 열이 나고 온 몸에 경련을 일으켰어요.”

“열이 났다면, 왜 진작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니?”

“할머니가 못 오게 했어요. 할머니는 막내동생의 팔자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거라서, 그애가 죽어야 엄마의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동생을 방에다 눕혀 놓고 기도하면서 온 몸을 찬 물수건으로 닦아주다가, 날이 밝자마자 동생을 안고 온거예요. 지금 주사를 맞고 있어요.”

의사는 주사를 놓고서 이제 집에 데려가도 된다고 했지만, 큰딸은 큰 소리로 만류했다. “엄마! 난 동생을 집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일단 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제발 동생을 여기다 두고 가게 해줘요.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곁에 데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고난 중에 만나 주신 예수

딸을 집으로 보내고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병실로 돌아가서 나는 거듭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서 아침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전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거예요” 잠시 후 나는 다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읽었다.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깊은 밤 침대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일깨우셨다.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죄를 내버리고 그릇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20년 동안 갖고 있던 위선과 마음 속의 더러운 생각들을 한꺼번에 회개하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했다. 3월 8일 밤부터 11일 저녁까지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고 내 입술은 죄를 시인하고 있으나 내 영혼은 마치 돼지처럼 진흙 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님, 나의 죄는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시인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저의 원래 모습 이대로 당신 앞에 돼지처럼 굴러왔을 뿐입니다” 돌연 나는 주님 앞으로 굴러갔고, 주님이 나를 들어올려 안아 주셨다. 그 순간 성령이 내게 뜨겁게 임하셔서 내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왔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슬픔으로 상처입은 이들이 온전케 되도다!” 이때부터 나에게는 세상이 달라보였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상대하든지 모든 일에 생명력이 넘쳤던 것이다.

난 병원에서 전도를 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오랫동안 앓아오던 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내게 묻곤했다. “당신이 전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금방 병이 낫는데, 어째서 당신의 병은 낫지 않는거죠?” 나는 웃으면서, 내가



장승원 그림

다 나으면 누가 여러분께 예수님 얘기를 해주겠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병원에서 새 힘을 얻었고, 그 힘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꾀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그 당시는 시어머니의 꾀박이 몹시 심하던 때였다. 그녀는 늘 나를 의심하였고 특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으나, 나는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시어머니는 79세에 돌아가셨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기 열흘 전, 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구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듣고서는 마음이 녹아져 예수님을 영접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애야, 고맙구나. 나는 이제 만족하단다. 이제 한이 없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예수를 믿으신 것을 통해 나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육신의 병은 계속 별 차도가 보이지 않아 몇 번의 대수술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나는 잠자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끊임없는 질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진실되게 체험했던 것이다.

『中國與福音』 제3기 중에서

번역·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중국 무술·쿵후



어떤 이는 “중국 쿵후”는 요즘에서야 통하는 명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의 산물인데 왜 하필 중국고대의 역사부터 얘기해야 하나?

더욱 곤란한 점은 중국 과거의 역사문헌 중 “쿵후”에 대한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이 현대적인 명칭이 또 어떻게 고대의 역사와 함께 결합해 있는 것일까?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 쿵후”는 바로 옛적부터 지금까지의 무술·무예 및 각종 장수 비결의 종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쿵후”는 중국 고유의 무술이라고 할 만하다. 한 마디로 쿵후는 중국 무술에 대한 총칭이다.

“중국 쿵후”에는 권법과 무기와 기본 무술이 포함된다.

전문가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유명한 권법은 모두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한다. 무기는 9가지의 긴 병기와 9가지의 짧은 병기가 있는데, 소위 “18가지 무예”라고 한다. 칼·창·검·몽둥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쿵후” 중 어느 권법이나 무기를 막론하고 각기의 수법과 형(型)이 있다. 그 이론과 기술로 말하자면 매우 광범위하다.

“중국 쿵후”는 일반 스포츠 종목과 달리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스포츠 항목은, 예를 들어 육상경기, 농구, 축구, 역도 그리고 권투 등 운동선수들이 30세 이후가 되면 체력유지가 쉽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선수생활을 은퇴해 버리고 만다. 그리고 종종 청소년 시기에 운동과로로 인한 운동상처를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중년 이후에 그 증세가 나타나

고생을 한다.

“중국 쿵후”는 외공과 내공이 있는데, 소위 “외적으로 근육과 피골(皮骨)을 단련하고 내적으로는 정기와 기력을 단련한다.” 튼튼한 체격과 민첩한 손놀림을 단련해 줄 뿐더러 심신을 조정해주고 오장육부를 강화하며 기와 맥을 순조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적 무술(內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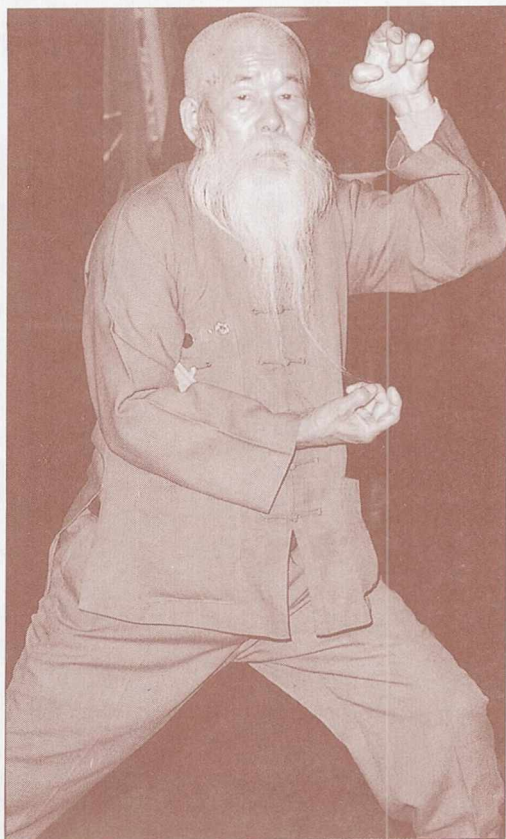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력(功力:무술의 심도)도 더욱 깊어지고 양생보건(養生保健)과 장수의 비결에 큰 효과도 있다.

“중국 쿵후”는 중국의 상형(象形)문자와 같이 부분적으로 동물의 움직임을 본뜬다. 예를 들어 소림파의 용·호·표·뱀·학의 5가지 권법과 동한 말년 명의 원화가 창설한 호랑이, 노루, 원숭이, 곰, 새 등의 5짐승 놀이, 이 모든 것이 각종 동물의 특성과 공격할 때의 모습을 모방해서, 권법에 응용을 한 것이다. 그 밖에 각종 권법, 무기, 비술을 전수하는 중요한 용어들을 노래와 율동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려 연극을 하게 해서 오래된 무술을 현대사회 속에 생활화하고 및 예술화 함으로써 정착시켜 나갔다.

“중국 쿵후”의 파는 매우 많다. 대체로 말하면 남권·북권·내가·외가로 나누어지며 비교적 유명한 파로는 소림(少林), 태극(太極), 형의(形意), 팔괘(八卦), 영춘(詠春), 비종(秘宗), 나한(羅漢) 등이다.

“천하의 무술은 소림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다. 소림파는 북소림과 남소림으로 나누어지며, 북소림에서 중국에 100년 간 성행했던 사(查), 화(華), 홍(紅), 포(炮), 담(潭)이란 5대 권법의 파와 남소림의 용(龍), 호(虎), 포(豹), 사(蛇), 학(鶴) 및 홍(洪), 유(劉), 채(蔡), 이(李), 모(莫)가 서로 어울려서 소림을 빛냈다. 기타 소림파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태극파는 진(陳), 양(陽), 무(武), 손(孫), 오(吳) 등 5파가 있으며 그 중 새로운 자세와 옛날의 자세는 비록 다르지만 그 원칙과 동작의 요령은 다를 바 없다.

태극권의 권법의 고수들은 손만 까딱해도 몇 천근의 물건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도의 민첩한 감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의 습격을 태연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쿵후”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사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태극 권법은 아주 좋은 운동으로서 많은 노인들이 즐겨 익히는 일종의 장수 비결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꼭 닫힌 방 안에서

(눅 24:33~43, 요 20:19~21:6)

在緊閉的房間裏

路廿四33-43;
約廿19至廿一6

1 星期日深夜，耶路撒冷全城的人仍然在談論羅馬士兵講的奇事。

1 주일 밤에 예루살렘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군병이 이야기한 기사를 말하고 있었다.

2 他們說耶穌的門徒偷走了他的屍體，好讓我們相信他已從死裏復活。

2 “그들(로마군병)이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와 시체를 훔쳐가고 싶. 우리한테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했다면 군.”

3 我不明白，有那麼多驍勇的羅馬衛兵守住，誰敢去偷屍體。那些門徒又怎麼說呢？

3 “난 좀 의심에 가는데, 그 많은 용감한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시체를 훔치려 하겠어? 그러면, 제자들은 또 뭐라고 말했던 거?”

4 但耶穌的朋友們也聽到士兵的告，他們怕涉嫌被捕，都躲在樓房中，把門反鎖上。不過多馬沒有在內。這時來了另外兩個朋友。

4 그런데, 예수의 친구들도 병사의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혐의를 받고 체포될까봐 두려워하여, 모두 다락방 안에 숨었고, 문을 꼭 잠갔다. 그러나, 도마만은 그 안에 없었다. 이때 다른 두 친구가 왔다.

5 耶穌已復活！我們在以馬忤斯途中，有個陌生人跟我們一起走。我們邀他跟我們一道吃晚飯。他祝謝了，把餅遞給我們，我們才認出他就是耶穌。隨後，他不見了。



5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걸어 갔는데, 우리들은 그를 청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축사를 했고, 우리에게 떡을 넘겨 줄 때, 비로소 그가 예수인 줄 알았죠. 그 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6 一星期後，他們再見面，把門反鎖緊，多馬也跟門徒在一起。耶穌再在他們面前顯現。

6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만났다. 문을 꼭 잠고,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7 多馬，摸摸我的手和我的肋旁。

7 “도마야,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8 主啊！我的上帝。

8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9 多馬，因為你要看見才相信，那些沒有看見就相信的有福了。

9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아야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 耶穌再消失在他們眼前。

10 예수는 그들의 면전에서 다시 사라졌다.

11 門徒遵照耶穌的命令，北上加利利去。有天傍晚，他們去捕魚。整夜沒有捕到一條。天亮時，他們看見岸上有個人站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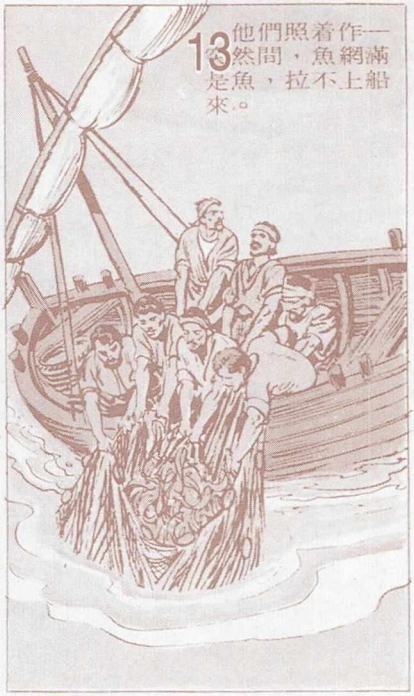


12 把你們的網撒到船的右舷。

12 “너희들은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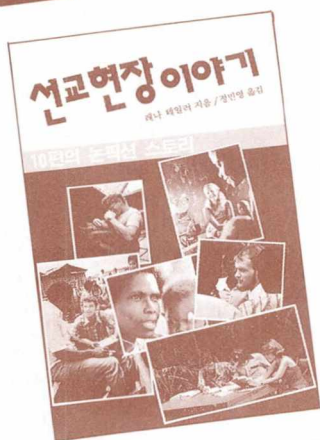
11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갔다. 어느 저녁 무렵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 밤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날이 밝으니 그들은 해안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13 他們照着作一天，然間，魚網滿是魚，拉不上船來。



13 그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예수의 분부대로 따라하니 순식간에 어망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로 끌어올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 책은 90년 ‘선교 한국’ 참석 이후,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에 동참하려고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처음 대하게 되었다. 나의 기억으로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간 얼마 안 되는 책 중에 한 권이었다. 10편의 글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편을 읽고 나면 다음 편은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여 책을 덮을 수가 없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이제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된 연유도 있었겠지만, 역자가 밝힌대로 선교 현장의 실상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진실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주제나 구절들이 선교에 처음 관심을 가진 후보생에게 마치 금을 캐는 듯한 묘한 즐거움을 주었다.



선교현장 이야기

정승태

한국 선교사들이 앞으로 많이 가게 될 2/3세계의 나라들 중에는 정치·경제 상황이 격동기에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곳의 사회 문제에는 어떻게, 어느 선까지 참여를 해야 하는지, 현지 사람들을 대할 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성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자라온 모국이나 성장 과정에서 얻은 유산인지, 현지에서 선교사들은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지인과 결혼했을 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직면해야 할 문제들, 현지 교회에서 선교사들은 언제까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인지 등등,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들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문제 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방안을 독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여러 편의 글 중에서도 제 7편 ‘행간의 의미’가 오래도록 인상깊게 남아있다. 선교사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과 후원 교회들이 기대하는 것의 차이에서 오는 갭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디자인과 사진 촬영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사역하기를 소원하는 하워드, 그러나 후원 교회 목사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선교비를 계속 지원받기 위하여 불리해 보이는 부분은 삭제해 버리고 환심을 살만한 허울좋은 부분만을 남겨야 하는가’로 고민하게 된다.

그는 결국 아내 팻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제안대로 선교편지를 보내고야 만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모국방문시 거짓 보고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사역을 진솔하게 소개함으로써 자유함을 맛보는 일련의 과정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전문인 선교가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전문인 선교사들이 같은 갈등을 겪게 되리라 생각하니 더욱 피부에 와 닿았다. 꼭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겪는 갈등은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사역을 계속하는 문제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위드는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선교 사역 자체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해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쉬운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창의적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 내가 취할 행동에 대해 미리 정리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 현실 자체에 대한 인식의 즐거움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새겨둘만한 아름다운 글귀들도 많이 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문제로부터 해방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려움들을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과시켜 마침내 다른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뿐이지요.”(p. 64)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연연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기쁘게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p. 80)

“주님을 위해 일을 잘 감당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p. 162)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보다 훨씬 쉬우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p. 163)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글귀도 기억에 남았다.

‘선교 현장 이야기’는 선교사 후보생뿐 아니라 선교 지도자, 교회 및 기관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은 직장 신우회나 교회 모임, 훈련 부서 등에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해 볼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시각을 겸비함으로써 우리의 에너지를 창의적인 것에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베푼 일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받아내지 않고는 정녕 살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지금도 귓전을 맴돌고 있다.

中國, 그리고 中國人

남현식 저 / 시사문화사 / 152쪽 / 3,000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할 때는 서방국가 여행 때와는 다르게 모든 행동이 겸손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만이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 친밀하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가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중국과 한국은 사회 체제가 다르고 따라서 중국인과 한국인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 이해할 수 없는 점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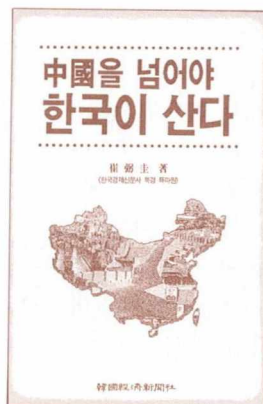
따라서 이 책에서는 중국인과의 교제법, 중국인의 사고 방식, 중국인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중국인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저자의 저술 목적과 같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中國을 넘어야 한국이 산다

신중국, 현장의 이야기

최필규 저 / 한국경제신문사 / 259쪽 / 5,000원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사의 기자로 있는 저자가 북경 특파원으로 활약하며 쓴 ‘현장의 이야기’이다. 중국경제뿐 아니라 중국을 보는 저자의 시각이 상당히 객관적이고도

예리하여 이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과연 신중국(新中國)은 이런 나라로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면이 있다.

저자는 중국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현상의 다각적인 현상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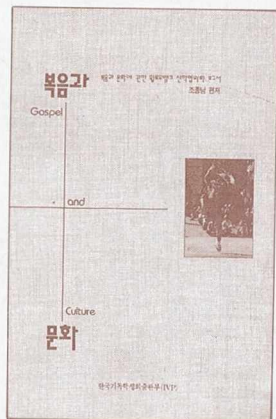
한국의 기업인들이 그야말로 ‘뭣도 모르고’ 중국 투자를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중국선교를 하겠다고 나서는 많은 이들 역시 저자의 표현대로 “호수같은 중국, 돌 던지는 우리”는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모두 “중국을 이해해야 한국이 제대로 중국선교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오늘의 중국을 날카롭게 파악하길 원하는 선교, 헌신자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복음과 문화

복음과 문화에 관한 월로우뱅크 신학협의회 보고서

조종남 편저 /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94쪽 / 1,800원



“복음전파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문화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도 문화의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입관, 가치관, 사고방식, 새로운 것에 대한 감수성 등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의 전통에 의하여 대부분 형성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내용처럼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우리 자신의 문화에 얽매어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에 대해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때는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이질감을 주지않고 매우 적절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때이다.

회심자들에게 있어서 문화와의 갈등이 항상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하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회심자는 그 문화의 기쁨, 희망, 투쟁 등과 일체감을 갖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회심자들이 비기독교적 관습과 부딪칠 때 몇몇 관습은 폐지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불신앙적 요소를 정결케 한 뒤에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다. 따라서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王先生是基督徒嗎?

(왕 선생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王 선생에게 전도 나간 孫 목사가 다가갔다.
아래의 대화는 孫 목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내용이다.

孫：對不起，打擾一下，可不可以佔用你一點時間？
(실례지만, 잠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王：沒關係，你有什麼事嗎？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지요?)

孫：我是恩惠教會的孫牧師。請問先生貴姓？
(저는 은혜교회의 손 목사입니다. 선생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王：我姓王，叫王中杰。
(저는 왕 씨입니다. 이름은 왕중걸입니다.)

孫：我想請問一下，王先生是基督徒嗎？
(실례지만 왕 선생은 그리스도인입니까?)

王：哦，對不起，我不信教。
(아, 미안하지만,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孫：那麼，請問你信什麼？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王：我什麼都不信，我只信自己。
(난 아무 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요.)

孫：王先生，你活得快樂嗎？
(왕 선생, 당신은 사는게 기쁘니까?)

王：對不起，我要走了。我的約會時間到了。
(실례지만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약속시간이 됐네요)

孫：等一下，這是我們教會的週報，歡迎你有空來參加聚會，神祝福你。
(잠깐만요, 이걸 우리 교회의 주보인데, 시간 있을 때 오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중국 대학 내의 기독교 물결

심양시 동관교회 고량의(高良義) 목사 석방

작년 4월 7일 교회를 장악하려는 정부 인사들의 압력에 항거하고 재정 비리를 폭로하여 강제로 체포되었던 심양 동관교회의 고량의(38세) 목사가 구속된 지 근 1년 만에 석방되었다. 공안당국은 그를 기소한 죄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3가지의 조건을 붙여 그의 석방을 허락하였다. 그 조건은 첫째 고량의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심양을 벗어날 수 없으며, 둘째 전도활동이 금지되며, 셋째 외국기자들과의 접촉을 금한다는 것이다. (星島日報 1995. 3. 6)

중국의 대학 내에 기독교학생들 모임 시작

1956년 여름부터 전개된 중국의 '반혁명분자 숙청운동'으로 인하여 당시 왕명도(王明道) 선생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을 뿐 아니라 북경기독교학생회와 북경 각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내에 존재했던 크리스천 학생들의 모임은 거센 핍박을 받고 중지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60년대 말 문화대혁명의 불길이 전 중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남성(河南省)과 절강성(浙江省)의 농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해 기독교 부흥의 불길이 더욱 드세게 번져갔던 것이다.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 중국의 각 도시와 거리로 또 각 대학가로 퍼져가고 있다. 최근 홍콩을 방문한 그리스도인 학자에 따르면, 현재 북경대학(北京大學), 청화대학(清華大學),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교내 이외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기적인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북경 시내 다른 대학의 크리스천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임들이 조직되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해외에 있는 청년학생 사역자들, 특별히 50년대 크리스천 학생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해외의 각 지체들에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북경의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의 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해 달라고... (『中國與福音』 4期, 95/1~2)

광서종교사무규정(廣西宗教事務規定)

1994년 5월 2일자 『광서일보(廣西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광서성(廣西省)정부는 3월 22일, <광서장족자치구 종교사무행정관리 잠행규정>을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이 규정은 모두 8장 43조로 되어 있으며 종교생활장소, 종교 교직원, 종교단체, 종교활동 및 종교계와 해외 종교단체간의 상호교류 등에 대해 적용되는 지시와 규정이다. 예를 들어 제31조 조항에 따르면 종교 교직인원이 다른 지역의 종교활동장소에 가서 교무(敎務)활동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가는 지역 및 그 교직원이 속한 지역의 종교단체 동의를 거쳐, 자치구 정부의 종교사무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또 38조 조항에 의하면 종교단체와 그 대표인사들이 해외의 종교조직과 인사들을 초청하거나 혹은 초청을 받아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자치구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과 수속을 따라야 한다. (『中國與福音』 4期, 95/1~2)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정치

당 간부 세대교체

중국 공산당은 당 간부의 세대교체로 일컬어지는 소강화를 위해 각 성(省), 시(市)의 책임자 등 당간부의 3분의 1 이상을 30~40대의 젊은 간부들로 등용토록 하는 내용의 내부 통달을 내렸다고 일본의 도쿄(東京) 신문이 27일 상해(上海)발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2. 3)

부패척결 특별법 제정 촉구

중국의 저명한 학자와 작가, 반체제 인사 등 지식인 12명은 26일 국내에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개혁조치를 취해줄 것을 전인대에 탄원했다. 이들은 또 공산당의 절대권력 유지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전인대를 통해 반(反)부패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일보 2. 27)

중국 관리 대만 방문 허용

대만은 3월 1일 중국 본토 관리들의 대만 방문을 허용하고 외국선박의 대만-중국본토간 직항금지를 해제하는 등 중국과의 접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강택민 중국국가 주석이 최근 양국 지도자간의 직접회담과 대만의 대중국투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안에 대한 또다른 반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아일보 3. 3)

등소평 이름 삭제

3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통일전선조직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제 8기 3차 대회의 공작보고에서 지난 해까지 등소평(鄧小平)의 이름이 인용되던 부분이 강택민(江澤民) 국가주석으로 대체돼 중국의 권력교체 작업이 이미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중앙일보 3. 4)

미국의 지재권(知財權)에 서명

미국과 중국은 11일 미국산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트 웨어 등의 대량 불법복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동아일보 3. 12)

강택민 외교부문 장악

강택민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등소평 사후에 대비, 이봉 총리를 밀어내고 외교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외사영도소조장에 오르는 등 당 중앙 직속기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17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3. 17)

전인대(全人大) 폐막

2주일 간의 회기를 마치고 18일 폐막된 중국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3차 전체회의는 최고 지도자 등소평 사

후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내부동요를 우려해, 대대적인 권력재편 대신 현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안정과 단결을 유달리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중앙일보 3. 18)

중, 대만에 통일 3단계 案 제시

등소평 사후 시대가 곧 도래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통일에 대해 새로운 사고 방식이 이미 등장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양측의 정치적 현실에 근거해 “新三步”로 불리는 새로운 3단계 통일방안을 마련했다고 홍콩 연합보가 23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3. 24)

군(軍)의 생산분야 참여 전면금지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공장들을 분야별로 중앙경영체제에 편입시키고 군인들도 기업체에서 철수시키는 등 전면적인 군조직 개편작업을 완료했다고 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8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것은 3백만 인민해방군이 군 고유기능인 국가안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3. 29)

상해-산둥 경쟁 표면화

중국 지도부는 이미 상해(上海)와 산둥(山東) 등 양대 파벌로 분열돼, 등소평 사망 후 이들의 대권 경쟁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연합보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택민 총서기를 정점으로 한 상해파가 현재, 화국봉처럼 표면상 대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산동 역시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점차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3. 30)

달라이 라마 방일(訪日)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1년 만에 일본 방문을 위해 29일 오전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측의 관계악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의 방일을 허용한 일본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방문이 종교적 성격임을 이해해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3. 30)

등소평 퇴원

중국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이 최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퇴원했다고 30일 북경 군병원의 한 전문가가 밝혔다. 이 의사는 등의 건강 상태에 대해 90살이라는 나이를 감안할 때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했으나 뇌 노화현상과 함께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3. 31)

경제

농업개혁 방안 추진

중국은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를 위해 농민들이 대규모 농지를 경작토록 하는 등 기존 농업생산체제를 대폭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일보 2. 13)

중국 평균임금 상승률 34%

중국의 평균임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33.8%나 상승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높은 임금상승은 올해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인건비 상승을 피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채산성을



크게 위협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3. 2)

중국 국무원, 농민소요 대처 곡물 매입 값 조정

중국 국무원은 조만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최근 농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온 정부의 곡물 매입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이같은 정책 조정은 최근 사천성, 허북성, 호북성 등지의 농촌에서 발생한 농민 소요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3. 10)

3개 경제 특구 대표 “중양보호정책” 비판

심천(深圳) 등 중국 광둥성 내 3개 경제 특구 대표들은 8일 이람청(李嵐清) 부총리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중앙정부가 앞으로 경제특구에 대해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3. 10)

외국인 투자 규제방침

최근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 등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70년대말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스탠더드지가 14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3. 14)

중국 외국인 투자 선별 수용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를 인가할 때 새로운 기준이 될 “외국 투자 산업 가이드 목록” 최종안을 마련, 내주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17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3. 18)

중국 국유재산 관리 강화

중국정부는 국경기업의 재산을 정확하게 재평가, 앞으로 국영기업에 헐값에 파는 방법 등으로 정부 손실을 유발하는 요인을 없앨 것이며, 국유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9개월 동안 전국적인 재산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문화일보 3. 24.)

중국도 주 5일 근무

리펑(李鵬) 총리는 “노동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공포, 지금까지의 1주

기준 노동시간인 44시간을 40시간으로, 중국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조선일보 3. 26)

중국 대외부채 1천억 달러

중국의 대외부채가 1천억 달러 상당에 달한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금융위기 및 외채부담에 대한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국제무역연구소의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소득에 대한 외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기업 등의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3. 29)

토지 무상이용 금지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무료 토지사용 제도가 국가세입상의 막대한 손실과 천연자원의 과잉개발로 인한 사막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지가 28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3. 30)

중국, 식량난

중국은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생산 감소와 식품고급화 등으로 근년들어 처음으로 식량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4. 1)

사회

중국 유랑인구 3천만 명

지난달 인구 12억 명을 돌파한 중국의 유랑인구가 남한 인구의 두 배에 육박하는 8천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에 따르면 유랑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5대 도시는 상해와 북경, 천진, 광둥, 심천이며 이들 도시 인구의 36%가 유랑인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일보 3. 3)

중국 부부 절반 이상 결혼생활 불행

북경의 '결혼과 가정생활 연구소'는 수도권 주변 기혼 남녀 2,100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중국 부부의 절반 이상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25% 가량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 가운데 23%가 아내를 구타한 적이 있으며 중국의 아내들도 15%가 남편을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일보 3. 3)

보트 전복, 학생 15명 익사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외진 지역인 지췌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 보트가 전복되어 15명의 10대 소년들과 여자 1명이 익사했다. 이곳의 경찰서장에 따르면 사업면허도 없는 배의 주인이 승객을 무리하게 많이 태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3. 3)

중·대만 커플 급증

대만의 남성들이 중국 본토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인과의 결혼이 급속히 늘어감에 따라 대만 정부는 본토 출신 배우자의 대만 이주 연간 쿼터를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 3. 11)

중국 관리 연회에 년 120억 불 낭비

중국 관리들은 불필요한 연회를 개최하는 데 매년 약 1백20억 달러의 공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해 전체 곡물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천억 kg이 해마다 소비되고 있다고 양성만보(羊城晚報)가 9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3. 12)

무상교육 포기

중국은 14일 공립학교들이 의무교육 연한 이후의 기간에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사립학교의 증설을 허용하는 등 사회주의 대원칙 중 하나인 전인민에 대한 무상교육 정책을 수정할 뜻을 비쳤다. (동아일보 3. 15)

사형(死刑) 다반사

중국에선 남세 영수증 위조와 음란서적 발행, 지적 재산권 위반 및 윤락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걸렸다면 사형을 당한다. 사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의 총계는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고 최고인민법원 당국자는 말하고 있으나, 국제적 인권 단체들은 중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어도 1천여 명이 사형을 당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3. 19)

지방범죄와 전쟁, 특별반 파견

중국은 치안부재에 시달리는 6개 지방(湖北, 吉林, 山西, 安徽, 雲南, 河北)의 사회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문화대혁명 이후 최초로 비상조사를반을 이들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3. 20)

중국 전국토 30%에 산성비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국토의 30%가 산성비 피해를 입고 있는 등 중국의 대기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관련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3. 23)



국제결혼 알선회사 금지

중국 국무원은 국제결혼을 알선해 주는 중매회사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고 홍콩의 대공보(大公報)가 25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외국에서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환상 때문에 국제결혼 알선회사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런 국제결혼이 대개 실패로 끝나며, 일부 여인들은 매춘부나 노예로 팔려가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이같은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중국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3. 28)

탄광 가스폭발 40명 사망

중국 하남성 중부에 있는 평딩산(平頂山)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 40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공인일보(工人日報)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건이 안전상태를 개선치 못한 회사 측의 경영상 실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3. 31)

한·중 관계

중국 폐수장 건설에 차관 제공

정부는 황해 오염의 가속을 막기 위해 중국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차관으로 제공, 폐하수처리장 등 건설을 지원키로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현재 7천 6백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중국에는 이 중 일부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차관지원이 오염확산을 저지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 환경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 2. 9)

북한 기술자 중국서 연수

대북 임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북한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초청, 기술교육을 시키기로 북한과 합의하고 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기술지도 인력의 방북을 꺼려 최근 방북한 대기업의 경우 북한 기술자를 중국

으로 불러내 교육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3. 10)

등소평 차녀 등남(鄧楠) 방한

중국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의 차녀 등남(鄧楠)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이 27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7일 간 머물 예정인 그녀는, 한중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확대를 위한 의향서 체결과 공동연구센터 설립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3. 27)

외환은행, 중국 대련에 지점 개설

외환은행이 국내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대련에 지점을 개설한다. 외환은행 대련지점은 앞으로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3. 29)

인천시, 천진(天津)에 무역센터 설립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제화에 대비해 중국 천진 시내에 대규모의 '인천 무역센터'를 건립한다. 인천무역센터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은행, 스포츠클럽, 기업 상설전시관, 회의실, 비즈니스센터, 인천 홍보관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한겨레신문 3. 30)

중국산 마약 대규모 밀매 적발

중국산 히로뽕 원료를 대량 국내에 들여온 히로뽕 밀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중국으로부터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3백kg을 밀수입한 우미오(40.선원)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초 산둥성 위해(威海)에서 원료를 사들여 중국 배에 실은 뒤 공해(公海)상에서 한국배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3. 31)

중국 각 성 관광 관계자 방한 러시

중국 내 각 성의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관광국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방한,

한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간 중국의 절강성, 섬서성, 길림성, 요녕성 등 4개성 여유국 관리와 업계 대표들이 방한, 서울과 지방을 돌며 중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일보 4. 1)

북한 대중국 교역 크게 감소

북한은 최대 맹방이자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지난해 수출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31.9%, 수입은 29.2%가 각각 줄어들었다고 통일원이 2일 밝혔다.

(한국일보 4. 2)

중국인 관광객 1백 명 중 5명꼴 무단이탈

지난 93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허용된 이후 우리 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1백 명 중 5명 정도가 단체에서 무단이탈, 불법체류 중이거나 강제출국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 4. 3)

종교 및 선교

북경 천주교 성당 다시 문열다

북경의 천주교 성당인 남당(南堂)이 폐쇄된 지 45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남당의 석옥기(石玉基) 신부(69세)는, 북경 성모성의당(聖母聖衣堂)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당은 수리를 마치고 금년 부활절에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당은 작년 성탄절에 십야미사를 갖기 위해 잠시 개방된 적이 있다.

(公教報 2. 24)

1자녀 1정책을 위반한 허북성 천주교 신자들 필박시킨

허북성(河北省)의 한 농촌에 사는 천주교도들이 1가정 1자녀 정책을 집행하는 간부들에 의해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재산을 압수당했음이 밝혀졌다.

2,0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못한 교도들은 마을의 구치소에 감금당하고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한 교우에 따르면 하북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라 낙태수술과 불임수술을 거부한 천주교도들이 간부들에 의해 많은毆박을 당하고 있다며 해외의 신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다.

(公教報 2. 24)

‘재물의 우상(財神爺)’ 중국에 다시 등장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재물 우상이 오늘날 다시 그 모습을 나타냈다. 우상의 가격은 최고 1,000원까지 하는데, 특히 설날이나 절기 때 재신상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재신야(財神爺)는 중국에서 수천 년 이래 섬겨온 대표적 우상이었으나, 공산정권 이래 퇴폐 봉건주의로 낙인찍혀 금지되었다가 근래 경제개방 풍조 아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우상에게로 마음이 쏠리면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

제2회 한중교회협의회

지난 2월말 제2회 한중교회협의회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협의회(KNCC)와 중국기독교협회(CCC) 대표들은 “21세기를 향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한중교회의 상호협력”을 주제로 토론하고 각국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18명의 양측 대표들은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증폭현상과 관련, 나눔과 봉사, 복음전도 등 선교프로그램을 한국교회와 중국교회 사이에 맺은 합의와 협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

또한 양측 대표들은 25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매 2년 혹은 3년마다 이같은 대화를 장기적으로 계속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독교연합신문/ 순복음신문 3. 11)

중국 교회 고령화, 지도자 양성 시급

중국기독교협회 총간사 대행 한문조(韓文藻)씨가 2월 16일 일본 기독교교회협

의회(JNCC)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는 동경 와세다 봉사관에서 열린 “중국 기독교회의 최근 현황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현재 중국 교회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중국 교회는 지도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젊은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보 3. 18)



광둥성 광주시(廣州市)의 한 사당에 모셔진 보살 우상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며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강력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중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도한 만큼 중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두 달 동안 하나의 기도제목을 두 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중보기도의 손길이 많아져서 중국 복음화가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1일

등소평 사후를 염려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올해는 음력 8월이 두 번 있는 해라 하여 중국인들이 불안해하며, 등소평의 죽음에 따른 정치적 혼란, 지방주의 군부의 알력과 소수민족의 반란 등을 염려하고 있다.

중국인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뒤에 숨겨진 사역을 통해 중국 복음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재 중국에서 종교 열기가 뜨겁다. 중국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종교 현상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며 강경조치를 취할 태세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신도 중에 적지않은 공산당원과 간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신화가 무너진 중국인들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종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기독교 신도들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교정책이 시행되도록.

4일

성도를 양육할 목자들을 위해

중국의 어느 성(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개종자들을 잘 대처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방송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새로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일

문맹자 교육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국 정부는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 1억 5천만이

2일

중국 청년들을 위해

중국 청년들의 의식구조상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다. 가치관이 상실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이성적 판단 기준이 결핍된 상황에 있는 중국 청년들에게, 참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인간의 가치관이 물질과 자아상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진리에 있음을 깨닫도록.

3일

중국의 기독교 부흥을 위해

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문맹자라고 보도했다.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 문자를 가르치고 있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성경과 각종 전도문서들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6일

진료소 사역을 위해

해외에 있는 한 중국계 기독교 실업인은 중국에 있는 6~8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진료소를 지을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 그들 중 몇몇은 신학, 복음전도, 제자훈련 등을 통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이 잘 진행되며 해외에 있는 많은 기독교 실업인들이 중국 내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헌신하도록.

7일

순회 복음사역자를 위해

21세의 한 가정교회 복음 전도자가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수개월 씩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 전도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8일

불법체류 조선족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자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산업재해, 신분상의 약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풍토가 개선 되도록.

9일

상하이 개발에 따른 이주민들을 위해

상하이 대개발 계획에 따라 20만 명의 가족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변두리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들의 처치가 마련되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10일

범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중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당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물질 풍조 하에서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 젊은이들, 특히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이기적이고 버릇없이 자란 중국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게 되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11일

선교사들의 영적 충만을 위해

중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느라, 영적인 자기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황폐된 영적 환경 속에서 이들이 말씀묵상과 기도예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생명력 있는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12일

농업위기를 타개할 정책이 마련되도록

15년 이래 사상 최악의 농업 위기를 맞는 당국은 충분한 곡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혜로운 조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구제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13일

장족(藏族) 교회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사천성(四川省) 서쪽 장족(藏族)이 사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는 1990년 이래로 매년 세례 교인들이 생겨 지금은 60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다.

젊은이들과 경건한 지도자들을 도전하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기금이 마련되도록.

14일

소수민족으로 나갈 선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중국 소수민족 지역에 들어가 장기간 전임으로 사역할 헌신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각 도시에 설립된 민족학원(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대학)에 들어가 소수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헌신된 전문인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55개 소수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15일

산둥성(山東省)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1994년 11월 40명 이상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제자훈련과 지도자 훈련을 위해 산둥지방에 모였다. 그들은 수천 명의 교인들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인의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다. 산둥 지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16일

중국 모슬렘 선교사역을 위해

영하(寧廈) 회족 자치구의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한족 사이에서 놀랄만한 교회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회족 모슬렘 사회속으로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도, 해외에서 파송된 선교사도 거의 없다.

중국의 모슬렘을 향한 효과적이고 민감한 복음전도가 이루어지며, 한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그 지역의 영적 부흥의 근원이 되도록.

17일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영혼을 위해

경제 개방하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이 다시 우상에게로 쏠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신과 우상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무지함, 그리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려지도록.

18일

AIDS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작년 7월 현재 중국에 1,435명의 AIDS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믿고 있다.

문물이 개방된 이후 성도덕이 문란해져 가는 중국에서 이러한 질병이 더이상 만연되지 않도록, 또한 정부가 이에 대처할 정책을 마련하도록.

19일

중국 교회의 젊은 지도자 양성을 위해

현재 중국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도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젊은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한다.

중국 각 신학교의 부흥을 위해, 진리의 말씀에 뿌리박은 신학의 성립 및 이들에게 필요한 신학서적 등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20일

증가되는 불교사원과 사당, 미신의 근절을 위해

대만인들과 해외에 있는 화교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국 대륙의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불교와 도교 사원, 사당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원은 관광객들과 행사 기간 동안 방문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복음의 빛이 미신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도록.

21일

비디오 게임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해

각 도시의 중국 청소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느라 학습시간을 낭비하자, 북경시(北京市) 당국은 18개의 비디오 가게들의 영업을 금지하였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일까지 한다고 한다.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22일

복음문서와 자료들의 공급을 위해

홍콩의 C.C.L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이 카리브 해안에서 참치잡이를 하는 중국인 어부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전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23일

대만과의 열려진 통로를 위해

현재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여러 면에서 호전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과의 본격적인 교류와 열려진 기회를 통해 기독교 문화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24일

마약치료 병원 사역을 위해

공산화 이후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마약이 지금 중국 전역에서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외국이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마약 치료 병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했다.

이 병원을 통해 마약중독환자들이 육적으로 치유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구제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25일

마약운반 조직의 소탕을 위해

한, 중간의 민간왕래와 교역이 급증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거나 중국 수사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의 마약 조직이 소탕되고 이것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26일

식량위기에 직면한 중국을 위해

자연 재해 등으로 곡물생산이 감소되어 식량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가 점점 도시로 몰려드는 가운데, 식량의 부족은 또다른 불안요소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

중국 정부가 곡물증산을 위한 적극적인 농정을 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아울러 이것을 통해 중국인들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27일

중국이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중국은 세계적으로 지진위험으로부터 가장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가 지진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령이 실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시길.

28일

엄격한 치안정책이 시행되도록

중국 각 지역이 치안 부재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사회안정을 위해 비상조사반을 파견하였다. 각종 범죄조직들이 정부 관리들과 결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부 당국에 이루어져, 범죄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단호하고 엄격한 정책이 마련 되어서도록.

29일

출판, 인쇄사역을 위해

중국의 곳곳에서 신앙서적 인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판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고, 기기들이 안전하게 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또한 번역, 편집, 인쇄 능력을 가진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도록. 출판 사역을 통해 건진한 신앙의 뿌리를 보수할 뿐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0일

중국선교 연구사역을 위해

열매맺는 중국선교를 위해 전문적으로 중국, 중국교회를 연구할 기관이 세워져야 한다.

한국 교회가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질과 인력으로 돕고 관리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이미 세워진 중국복음선교회의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사역(연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31일

탈북자들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북한을 탈출, 중국 국경지대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조교(朝僑:북한국적을 가진 조선족 교포)들에 의해 체포되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도움의 손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험한 가운데 이들을 돕는 손길을 보호하시고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위의 기도 제목은

아시아기도(OMF), Pray for China(CCRC), Chinese around the World(CAW), China News and Church Report(CMI), 亞洲週刊 및 국내 일간지 등의 소식을 참고하여 제공한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95 세계선교대회(GCOWE '95)를 위한 기도

- ▶ 200여 국가별, 종족별, 인구별 도시별 조사 활동과 연구가 잘 진행되어 지구촌의 영적 상황이 심도있게 파악되며 이에 따른 효과적인 복음화 전략들이 세워지도록.
- ▶ 한국교회가 GCOWE '95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 ▶ 대회 기간 중 필요한 600명의 외국어에 능통하며 깨어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시도록.
- ▶ 대학생 미션 2000운동(SM 2000) 대회를 통해 선교에 헌신된 10만 명의 학생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도록.
- ▶ 헌신한 대학생들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할 자들을 세워주시도록.
- ▶ 참가하는 200여 국가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 ▶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깨어나며 세계선교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중국 어린이에게 배움의 새 빛을 !”

희망공정(希望工程)
PROJECT HOPE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China Youth Development)와 연결하여 “희망공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마련해 주는 이 운동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담당: 권수영 간사)
문의: T. 533-5497, 592-0132 F.599-2786

수천 만 명의 중국어린이들이 가난으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우면 중국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중국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밝혀 줍시다.
한화 3만원이면 한 명의 어린이에게
국민학교 전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이는 희망공정
(실학 아동을 위한 기금모금 운동)에
참여하여, 복음의 빛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市 東城區 后園恩寺 甲1號

달러입금 통장명: 中國青少年發展基金會

개설점: 中國銀行總行營業部

달러 온라인 번호: 71411087

국내입금: 한일은행 081-136946-02-102

예금주: 권수영

고 신 선 단

중국선교 특별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국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홍콩의 C.C.L.(Christian Communications Limited) 사역자를 초청,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C.C.L.은 중국대륙의 복음화 사역에 필요한 문서들을 출판하고, 지도자 양육 및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이다.

· 비공개 세미나 (교단, 목회자 및 선교단체 책임자)- 1995년 4월 28일

오후 12시 30분 - 7시 30분

· 공개 세미나 - 1995년 4월 29일

오후 12시 30분 - 7시 30분

주제: 현지의 필요에 부응하는 중국선교

강사: 陳敏瀾 (C.C.L.협력목사)

祝民忠 (C.C.L.발전부장)

김성태 (총신대학원 교수)

주최: 중국어문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장소: 중화기독교한성교회(중구 정동 25번지)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33-5497, 592-0132, 594-8038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중국을 주께로 드리기 위한 기도합주회가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 및 선교 헌신자,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통해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현지 선교사

들의 생생한 사역보고를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535-4255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5월 정기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는 “한국에서의 중국선교 연구”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연구소 한윤숙 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5월 25일(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소강당이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TEL. 318-3956

대학생 미션(SM 2000)

기독교 21세기 운동이 주관하는 대학생 선교 2000대회가 1995년 5월 20일(토) 오후 3시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세계선교의 차세대 주역으로 요청받고 있는 한국의 캠퍼스 그리스도인들을 '제2의 SVM(학생선교자원운동)'의 전기로 삼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의 기독교학생들 가운데 10만의 선교헌신자가 배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5월 21일(일) 오후 3시 서울 경인 지역의 200개 지역교회에서 국가별 워크샵이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대학생 미션 2000 준비위원회로 TEL. 319-2062~3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위한

평생계획 세미나

한국해외선교회(GMF)는 모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개인적 상황의 독특한 계획을 발견하도록 세미나를 개최한다.

1995년 5월 11일(목)~13일까지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삶과 직업, 경제 운영에 대해 진정한 기독교적 관점을 부여해 줄 것이다.

장소는 사랑의 교회 본당 301호이며, 대상은 기독교 직업인, 교회 지도자, 학생,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 등이다. 회비는 15,000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 TEL. 537-2043, 594-3438

HOPE 제2회 이슬람 선교세미나

전문인협력기구(HOPE)는 제2회 이슬람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1995년 5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17일(수) 오후 12:00까지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이슬람선교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 신학생, 선교현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는 Frontiers의 총재 Greg Livingstone와 Patrick Lai 선교사이다.

참가비는 25,000원(95년 5월 8일 이후 신청자는 5,000원이 추가)이며, 5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비를 입금한 후 전화로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HOPE 사무실로
TEL. 533-6057

영적각성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제5회 기도합주회 세미나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영적각성 및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합주회 세미나가 개최된다.

1995년 5월 22일(월)~23일(화) 독립문성결교회에서 데이빗 브라이언트 국제 기도합주회 총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이번 세미

나에 기도합주회 인도자, 관심자 모두를 초청한다.

참가비는 서울, 경인 1만 5천원, 지방 1만원이며, 신청마감은 5월 12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한국 '96 조직위원회로
TEL. 555-2713

도시선교 세미나

『복음과 상황』, 기윤실, 경실련 기침협에서는 제3세계 도시의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향한 선교적 필요를 위해 비브 그릭 목사와 재키 폴링거 박사를 모시고 진지한 강의와 토론을 마련하였다.

95년 5월 26일(금) 저녁 7시~9시 30분, 27일(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이루어질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1만원(사전신청 10%할인)이다.

자세한 문의는 IVF학사회로
TEL:558-1728

'95 세계선교대회 진행요원 모집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95 세계선교대회(GCOWE '95)에 자원하여 섬길 진행요원을 모집한다.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200여개 국 기독교 지도자 4,500명이 참석한다.

자격은 가능한 이중언어 사용자(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혹은 각 분야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자세한 문의는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로
TEL. 570-7220~8

해외협력선교회(PWM) 선교사 모집

해외협력선교회(PWM)에서는 평생 또는 단기 선교사로 선교지 개척을 할 유능한 선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일반대학,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40세 미만의 남녀로 선교 소명자(전문인 사역자 제외)이다.

사역 내용은 현지 선교단체와의 협력사역인 남미 수리남의 신학교 설립사역, 브라질의 신학교육, 영어교육 및 교회설립사역, 칠레의 교역자 재교육, 말레이시아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사역, 필리핀 한국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사역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PWM선교회

TEL. 565-3431~2 (안성원 선교사)

해외협력선교회 '95 하기선교훈련원

PWM의 하기 선교훈련이 95년 8월 7일(월)부터 8월 19일(토)까지 김화 수양관에서 80명의 선교관심자 및 선교현신자를 상대로 개최된다. 본회의 소정 양식을 거쳐 등록하며 등록비는 18만 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PWM선교회로

TEL. 565-3431~2

한국선교훈련원 제12기 정기훈련생 모집

훈련기간: 96년 1월 초 - 96년 7월 말

모집일정: 지원마감 : 95년 5월 말

참고의견서 및 서류전형 : 95년 6월 중

면담 및 허입결정 : 96년 7월

자격: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신앙훈련을 받은 전임사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느끼고 이에 따라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받기를 원하는 분.

문의: TEL. 649-3197, Fax. 647-7675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 교육부, 출판부, 연구부 간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행정실

헌신된 사역자로 본부 행정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재정관리에 은사가 있는 분

(Tel. 594-8038, 535-4255 김만섭 간사)

교육부

교재개발 및 판매,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지원 및 중국선교훈련원 지원 사역을 담당할 간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Tel. 594-8038, 535-4255 김바울 간사)

출판부

격월간지 「중국을 주께로」 및 단행본 출판사역에 동역할 일꾼을 모집한다. 타자, 교정, 번역, 발송 작업에 은사가 있는 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

(Tel.: 533-5497, 592-0132 석은혜 간사)

연구부

중국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중국에 관한 연구사역에 관심있는 분.

(Tel.: 533-5497, 592-0132 권수영 간사)

연변 기독교 시행 장정

편집자 주

이번호 선교자료로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에서 결정한 『연변 기독교 시행 장정』과 『외빈 설교 허락 준칙』, 『연변교회, 처소 서리집사 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을 실었다.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원문 그대로를 싣되, 괄호 안에 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1993년 4월 16일 연변 기독교 광회 제4기 위원회 제1차 전체위원 확대회의에서 통과)

서 론

연변 기독교 광회(양회) 제4기 8차 상무위원 확대회의 결의로 연변교회와 처소를 신령하고 유력하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주 광회 실무기구인 연변 기독교 연합(연합) 당회를 설립하고 연변 기독교 시행 장정을 실행한다.

연합(연합) 당회의 명칭과 위치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라고 칭하고 연결시 기독교회에 위치한다.

연합 당회 조직

1. 성원

시무 목사, 시무 장로로 구성하되 목사가 적은 실황에 의해 교사들을 언권 회원으로 한다(특수 사정으로 필요가 있을 경우 언권 대표를 내울(세울) 수 있다).

2. 연합 당회장

시무 목사가 맡되 연합 당회를 대표하여 전 주 교회와 처소의 성역상, 행정상 제반사를 총 지휘한다.

3. 연합 당회 서기

회원 중 1인을 선거하되 연합 당회록을 기록하며 연합 당회의 모든 서식을 장관하고 보고한다.

4. 연합 당회 시찰 위원

연합 당회는 교회와 처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속 목사 및 장로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주내 각 교회와 처소를 순찰하며 신령상 형

편과 재정 형편과 행정상 형편을 연합 당회에 보고하여 연합 당회의 처리하는 것을 보조한다.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지역은 연합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연합 당회 임무

(1) 주내 각 교회와 처소의 성역상, 행정상의 일들을 총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 성찬식과 사경회, 학습반, 특별 집회 등 장악 관리한다.

(2) 주내 세례 교인들의 세례 증서를 발급한다.

(3) 주내 교회와 처소의 예배를 장악 관리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며 교회와 처소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한다.

(4) 주내 교회와 처소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교사, 전도원, 전도인, 서리 집사를 임명 임직한다.

(5) 주내 교회와 처소의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각 교회와 처소의 실정에 맞게 실시케 하며 각 교회와 처소의 재정을 감독한다.

(6) 상회에 교회 정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주내 교회와 처소의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며 증거가 확실하며 범죄가 확인될 때 권징 조례대로 권징한다.

(8) 주내 교회와 처소의 토지, 가옥과 부동산을 장악 관리한다.

6. 연합 당회 당회원 업무 분공(분담)

(1) 교역 담당:

연합(연합) 당회의 결의로 교역자(목사, 교사)들이 주내 교회와 처소의 사경회, 성경 공부, 특별 집회 등 교역상의 일들을 조직하고 장악 관리하되 전도원들과 재학중에 있는 신학생들이 실황에 따라 협력한다.

(2) 행정, 권징, 성례 담당:

연합 당회의 결의로 시무 장로들이 분공하여 주내 각 교회와 처소의 행정과 권징을 구체적으로 장악 관

리하며 성례를 협조한다. 정황에 따라 안수 집사들도 협력할 수 있다.

(3) 외교 담당:

공적인 국내의 교단, 인사들의 초청, 방문 및 성역상, 행정상의 교제는 연합 당회에서 장악 관리하며 개교회, 처소의 간단한 대외 교제는 연합 당회의 인준 아래 한다.

7. 회의

(1) 연합 당회의 소집: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결의는 다수 가결로 한다.

(2) 정기 회의: 년 6차 두 달 1차로 매 두 번째 달 셋째 주간 금요일로 정하고 회집한다.

(3) 임시회의:

① 연합 당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② 연합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상회가 회의 소집을 지시할 때

8. 회의록

연합 당회의 회의록은 회집 일시, 장소, 결의 안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구한다.

9. 명부록

(1) 주내 세례 교인, 입교인 명부

(2) 책별 및 해별인 명부

(3) 목사부터 서리집사까지의 명부

(4) 이주 제직원 명부

(5) 별세 제직원 명부

교회 직분

1. 목사

(1) 교회의 대표이며 교회의 목회와 행정을 총지휘한다.

(2) 목사 자격은 합법적인 신학교나 신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3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상회의 고시에 합격된 후 안수 받고 임직한다.

(3) 타 지방에서 온 목사는 약 6개월 간의 재훈련을 거친 후 상회의 심사에 합격되면 정식 임직한다.

(4) 목사직은 항존직이되 정년 퇴직 연령은 70세로 한다(정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5) 목사는 연합 당회의 결의로 정황에 따라 파송할 수 있다.

(6) 은퇴 목사는 당회에 참석하나 언론권만 있을 뿐이다.

2. 장로

(1) 목사를 협조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장악 관리한다.

(2)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된 신자중 무흠 입교인으로 5년간 지내고 안수 집사, 혹은 서리 집사로 봉사한 경력이 있으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되 딛전 3:1-7절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 상회의 허락으로

교회에서 추천하고 공동 의회에서 선거를 받아(통해) 6개월간 훈련을 거친 후 상회의 고시에 합격될 때 정식 임직한다.

(3) 타 지방에서 온 장로는 6개월 간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상회의 심사에 합격되면 정식 임직한다.

(4) 장로는 항존직이되 정년 퇴직 연령은 70세로 한다(정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5) 은퇴 장로는 당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언론권만 있을 뿐이다.

3. 안수 집사

(1) 목사와 장로를 협조하여 행정과 재정을 맡아 봉사한다.

(2) 안수 집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 인으로 5년간 지내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3년간 집사로 봉사한 경력이 있고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되(딛전 3:8-13), 당회의 허락으로 공동 의회에서 선거한 후 3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당회의 심사에 합격되면 안수 받고 임직한다.

(3) 안수 집사직은 항존직이되 정년 퇴직 연령은 70세로 한다.

4. 권사

(1) 교역자를 협조하여 시험든 자와 궁핍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 심방하며 구역을 맡아 봉사하는 직분이다.

(2) 권사의 자격은 3년간 집사 직무를 훌륭히 감당해 온 45세 이상된 여성(여성)으로 훌륭한 인격에 영적 경향이 풍부해야 하며 당회의 허락으로 공동 의회에서 선거된 후 3개월 간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고시에 합격될 때 임직한다.

(3) 권사는 안수 없는 항존직이되 정년 퇴직 연령은 75세이다.

(4) 타 지방에서 온 권사는 3개월 간 훈련을 거치고 당회의 심사에 합격되면 임직 봉사한다.

5. 교사(전도사)

(1) 목사를 협조하여 교역을 맡아 봉사하는 임시 직분이다.

(2) 교사 자격은 합법적인 신학교나 신학원을 졸업한 후 3개월간 연합 당회의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고시에 합격되면 임직한다.

(3) 타지방에서 온 교사는 3개월 간 재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연합 당회의 심사에 합격되면 임직한다.

6. 전도원

(1) 목사, 교사를 협조하여 교역에 동참하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2) 전도원 자격은 합법적 1년 신학과정을 마치고 3개월 간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연합 당회의 고시에 합격되면 임직 봉사한다.

(3) 타지방에서 온 전도원은 3개월 간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연합 당회의 심사에 합격되면 정식 임직한다.

7. 전도인

- (1) 교역자를 도와 처소를 담당해 나가는 직분이다.
- (2) 전도인의 자격은 25세~55세 사이의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의무 전도인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가 3개월 간 특수 교육과정을 받고 교회의 고시에 합격되면 임명받고 파송받아 임직한다.

8. 서리 집사

- (1) 목사와 장로를 도와 교회 행정과 봉사하는 일을 맡아하는 임시 직분이다.

- (2) 서리 집사 자격은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봉사에 열심 있는 자라야 하되 25세~65세 사이의 남녀 신자여야 한다. 민주 선거로 뽑힐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으나 연합 당회에서 심의 결의한 후 임명 임직한다.

9. 의무 전도원

- (1) 의무 전도원은 소속된 교회와 처소(교회)의 성역상 수요에 따라 봉사하는 직분이다.
- (2) 의무 전도원의 자격은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나 처소의 추천을 받아 성급 단기 성경 학습반을 마치고 심사에 합격될 때 증서를 받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시·현 교회, 지교회, 처소(교회), 구역 처소 규칙

1. 연변 기독교회는 연합 당회 본부를 연결 교회에 두며 각 시, 현 교회와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를 둔다.
2. 연합 당회는 연변 교회와 처소를 총괄하고 지휘하되 시·현 교회를 지도, 협력, 감독하고 산하 지교회와 처소(교회)들은 시·현급 교회를 통하여 장악 관리한다.
3. 시·현 교회는 연합 당회의 결의대로 지교회와 처소(교회)를 총괄하고 지휘하되 지교회를 통하여 산하 처소(교회)와 구역 처소를 장악 관리한다.
4. 연변 교회와 처소의 성역과 재정, 교당 건축, 구매, 국외 지원 등은 연합 당회에서 지도, 감독하되 구체적으로 연합 당회 시찰 위원을 통하여 장악 관리한다.
5. 시·현 교회, 지교회, 처소(교회)의 담당자에게 특수 사정이나 중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연합 당회에서 조사 확인한 후 조절 혹은 환하며 다른 교목인을 임명 파송할 수 있다.

시·현 교회, 지교회, 처소(교회) 조직 규칙

교역자가 적은 형편에 근거하여 교회와 처소의 교무 관리 조직을 다음과 같은 체제로 규정한다.

1. 목사와 장로 2인 이상 있는 교회는 본 시·현 광회의 협상과 결의로 광회의 실무 기관인 당회를 내와 교회를 운영한다.
2. 목사 없는 시·현 교회는 본 시·현 광회의 협상과

결의로 그 실무기관인 교무 위원회를 내와 교회를 운영한다.

3. 지교회는 소속된 본 시·현 기독교 광회의 협상과 결의로 그 실무 기관인 교무 부를 내와 교회를 운영한다.

4. 처소(교회)는 소속된 시·현 기독교 광회의 협상과 결의로 그 실무 기관인 교무조를 내와 처소를 운영한다.

5. 모든 교회와 처소의 교무 기관은 연합 당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권징 규칙

1.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의 새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즉 교회의 각급 치리회가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하급 치리회(교무기관)를 권계하며 징계하는 것이다(치리회란 당회를 말하고 교무 기관이란 교무위원회, 교무부, 교무조를 말한다).

2. 권징 목적

- (1)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2)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범죄

- (1) 교인, 직원의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치리회(교무기관)의 결의가 성경에 위배되는 경우.

- (2) 교인, 직원 및 치리회가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

- (3) 교인, 직원 및 치리회가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거나 교회와 처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

- (4) 나라의 형법 규례를 위반하는 것 등을 범죄라고 한다.

4. 소송과 재판

- (1) 범죄자의 소송은 각 교회와 처소에서 한다.

- (2) 재판은 연변 치리회(연합 당회)가 장악 관리하되 재판소를 설치하여 심리 재판할 수 있다.

5. 범죄에 대한 처벌

재판에서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는 판결로서 벌을 정하되 판결로서 정하는 벌은 다음과 같다.

- (1) 교인에게 과하는 벌

- ① 권계 ② 견책 ③ 수찬 중지 ④ 출교

- (2) 직원(목사부터 서리 집사까지)에게 과하는 벌

- ① 권계 ② 시무 중지 ③ 시무 해임 ④ 면직(직원에게는 교인에게 주는 벌을 단과 혹은 병과할 수 있다).

- (3) 치리회(교무 기관)에 과하는 벌

- ① 결의 무효 ② 결정 취소 ③ 치리회(교무 기관) 해산

부 록

*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는 외국 종교 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으며 외국인이 연변 경내에서 이단 사설이나 비 성경적인 신비주의거나 교파주의를 전파하며 집회하거나 집회처를 설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모든 국외 교단이거나 교계 인사들이 연변 연합 당회의 허락 없이 연변 각지교회와 처소와 제 나름대로 교섭하고 활동하는 것을 엄금한다.

一.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 조직

1. 연합 당회원: 류두봉 목사, 김원배 장로, 김영일 장로, 리남규 장로, 박성봉 장로, 길현두 장로, 강진생 장로, 장승림 장로, 김광수 장로.
2. 연합 당회 인권 회원: 정동길 은퇴장로, 박영호 교사, 박서용 교사, 양소흥 교사.
3. 연합 당회 확대 인권대표: 최용남 전도원, 리정순 권사, 최일현 집사.
4. 연합 당회 당회장
5. 연합 당회 서기
6. 연합 당회 시찰위원

二. 연합 당회원 업무 분공(분담)

연변 연합 당회 규칙 《연합 당회원 업무 분공》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공한다.

1. 연변 교회, 처소 교역 분공 담당
 - (1) 연길, 도문 교회: 류두봉 목사(본 교회 담당자, 전도원, 신학생 협조) 담당.
 - (2) 룡정, 화룡 교회: 박영호 교사(본 교회 담당자, 전도원, 신학생 협조) 담당.
 - (3) 왕청, 훈춘 교회: 박서용 교사(본 교회 담당자, 전도원, 신학생 협조) 담당.
 - (4) 돈화 교회: 양소흥 교사(본 교회 담당자, 전도원, 신학생 협조) 담당.
 - (5) 안도 교회: 송림 전도원(본 교회 담당자, 전도원, 신학생 협조) 담당.
 - (6) 업무: 각 시, 현 교회의 교역을 지도, 협력, 감독 하되 그 목적은 세우는 데 있으며 순회 설교, 학습반, 사경회를 협의로 조직한다.
 - (7) 각 교회 교역 분공 담당자들은 연합 당회의 당회장의 지휘아래 사역을 감당하며 연합 당회 정기 회의 서면 혹은 구두로 보고를 교납한다.
2. 연변교회, 처소 행정 처리 장로 분공 담당
 - (1) 연길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김원배 장로, 박상화 장로, 양재성 장로, 김광수 장로 담당.
 - (2) 도문 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김영일 장로, 김종만 장로 담당.
 - (3) 룡정 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리남규

장로 담당.

- (4) 훈춘 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김영일 장로, 김종만 장로(훈춘 교회 담당자 협조) 담당.
- (5) 왕청 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박성봉 장로 담당.
- (6) 화룡 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길현두 장로(강진생 장로 협조) 담당.
- (7) 안도 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장승림 장로(리정순 권사 협조) 담당.
- (8) 돈화 교회 및 산하 지교회, 처소(교회): 손요한 장로, 강진생 장로(최용남 전도원 협조) 담당.
- (9) 연변 각 시, 현 교회, 지교회, 처소(교회)의 고무 기관의 행정재정, 권징 등을 지도, 협력, 감독한다.
- (10) 각 교회, 처소 행정처리 장로들은 연합 당회장의 지휘아래 사역을 감당하며 정기 연합 당회 회의서면 혹은 구두 보고를 교납한다.
3. 연변 각 시, 현 교회 성례협조 장로 분공 담당
 - (1) 연길 교회: 김원배 장로, 양재성 장로, 박상화 장로, 김광수 장로 담당.
 - (2) 도문 교회: 김영일 장로, 김종만 장로(김원배 장로, 양재성 장로 협조) 담당.
 - (3) 룡정 교회: 리남규 장로(김원배 장로, 김광수 장로, 박상화 장로 협조) 담당.
 - (4) 화룡 교회: 길현두 장로, 리남규 장로(김원배 장로, 양재성 장로 협조) 담당.
 - (5) 왕청 교회: 박성봉 장로, 김종만 장로(김원배 장로, 양재성 장로 협조) 담당.
 - (6) 안도 교회: 장승림 장로, 강진생 장로(김원배 장로, 양재성 장로 협조) 담당.
 - (7) 돈화 교회: 손요한 장로, 강진생 장로, 장승림 장로(김원배 장로 협조) 담당.
 - (8) 훈춘 교회: 김 영일 장로, 김종만 장로(김원배 장로, 양재성 장로 협조) 담당.

맺는 말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는 주 기독교 랑회의 감독과 협력 가운데 그 권리를 행사하며 연변 교회와 처소 안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연변 기독교 시행 장정의 해석권과 수정권은 본 연합 당회에 있다.

본 장정의 수정, 추가는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에서 담당한다.

연변 기독교 연합회 당회
1993년 4월 15일

외빈 설교 허락 준칙

1. 연변 각지교회와 처소에 오신 외국인 목사나 전도사는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장의 심의를 거친 후 설교시킬 수 있다.
2. 당회장 부재시 아래의 심의에 합격된 외국 교역자는 당회 회원들의 합의를 거친 후 설교를 허락할 수 있다. 특수 사정시 연합당회 서기원에게 알리고 시·현급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후 설교를 허락할 수 있다.
3. 설교허락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소속 교단이 온전한 정통교단인 교역자
 - (2) 본인의 신앙과 인격이 바른 교역자
 - (3) 본 교회의 신앙 표어와 목회 방침에 호응하는 자
 - (4) 본 교회 예배 의식과 습관을 존중하는 교역자
 - (5) 설교시 정치, 개인 경험담, 교파주의를 삼가하는 교역자
4. 외국인의 대표 기도는 삼가면서 부탁하며 설교는 일반적으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허락하되 특수관계 사정시 주일 낮 예배에 허락할 수 있다.

예배 폐회 후 외국인 설교자 대표 기도자 인사 올린 손님에게 응당한 대접을 올려야 한다.
5. 외국인 설교자 이름, 직분, 교회 주소를 등록하고 연합당회에 문서로 1계도 1차씩 제기한다(보고한다).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

1993년 5월 4일

연변 교회, 처소 서리집사 선거 및 임직에 관한 규정

지금 연변 교회와 처소는 집사 선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서리집사직을 향촌적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집사를 무계획적으로 선거하거나, 비세례교인을 집사로 선거하거나 술, 담배에 인박인 사람을 집사로 선거하거나, 비세례교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등 일이며, 이로인해 지금 집사 선거를 둘러싸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는 국면까지 나타나는 형편이다.

이러한 국면에 립각하여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는 《연변 기독교 시행 장정》에 근거하여 서리집사 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一. 정기 선거 및 임직

1. 서리 집사 선거는 년1차 가지되 매 년말 11월에

선거한다. 연합당회의 통일적인 포치와 감독아래 각 시, 현 교회 교무회의의 구체적인 관장 아래 각 개 교회와 처소에서 집사를 선거한다. 특수 경우 연합 당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문제 있는 교회와 처소는 시·현 교무회에서 사람을 파송하여 선거를 장관할 수 있다.

2. 서리 집사 자격

서리 집사는 무혼교인으로 2년 이상 지낸 세례 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남자는 술, 담배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녀성은 참소하지 않는 자)봉사에 열심있는 자로 하되 선거 연령은 23세~ 65세 사이로 한다.

3. 선거 방법

연합 당회의 통지를 접한 후 시, 현급 교무회의의 구체적인 장관 아래 개 교회, 처소별로 공동의회(무혼 세례 교인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하는 방법으로 선거하며 투표수에 의해 선출된다.

4. 서리 집사 수련회

선거된 서리 집사는 연합당회에서 보낸 통지를 받고 제정한 날에 제정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진다.

5. 집사 임명, 임직식

서리 집사의 임명, 임직은 시, 현 교무회에서 제기된 서리 집사 등록부를 연합 당회에서 심의한 후 각 시, 현급 교회별로 제정한 날에 집결하여 임명장을 발급하며 임직식을 거행한다.

二. 임시 선거 및 임직

1. 교회, 처소의 집사가 세상 뜨거나, 이주하거나,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가거나 범죄로 권징 받은 경우, 본 교회와 처소는 연합 당회의 결의로 시, 현 교무회의의 장관 아래 보충 선거 혹은 임명할 수 있다.

2. 선거된 집사를 시, 현 교무회에서 집사 직분에 관한 학습을 시킨다.

3. 집사 임명, 임직은 연합 당회의 결의로 시, 현 교무회에서 위탁 받고 가서 임명하고 임직시킨다.

*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선거, 임직도 서리 집사 선거, 임직과 대동소이하되, 각 교회와 처소에서는 《연변 기독교 시행 장정》에 규정된 조건에 구비된 자를 제출, 선거 할 수 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자격은 장정 규정대로이고 그 선거 연령은 장로는 35세~65세이고 안수 집사는 30 ~ 65세이고 권사는 45 ~65세로 한다.

연변 기독교 연합 당회
1993년 5월 10일

중국은 지금



강성광 저
신국판/255쪽/값 5,000원

개혁과 개방 후 급변하는 중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이 책은 중국선교 관심자에게 그리고 중국을 단기간 여행하거나 혹은 사업을 위해 방문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유학,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자는 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후 홍콩에 거주하면서 대륙을 자주 왕래하며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느 날 중국이 당면할 여러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폭넓은 시각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영구(외대 중국어과 교수)

1부 중국은 지금

1.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상황과 변화
2. 교육 문제 및 새로운 추세
3. 농촌 현실과 문제
4. 위생과 의료 문제의 이해
5. 민공의 실태와 이해
6. 흔들리는 가정
7. 미신 열풍
8. 급증하는 자살률
9. 퍼져나가는 마약의 마수
10. 벼락부자들
11. 신장을 팝니다

2부 복음을 들고 중국을 알고

12. 중국 교회의 올바른 이해
13. 중국 선교의 가능성
14. 중국 선교의 실제적 준비
15. 지역별 선교전략

급변하는 중국의 실상은
무엇인가?

현지에서 선교사가
수년 간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아 엮은 이 책을 통하여
오늘날 중국의 실상을
생생하고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조이선교회

전화 925-0415(영업), 929-3655(편집)

팩스 923-3016

중국어문선교회는 이렇게 일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사역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역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외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를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방한 중국인 사역

국내에 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도 및 제자화 양육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승선전도사역: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올라가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533-5497, 592-0132
팩스 / 599-2786

섬기는 사람들

고문/방지일 목사, 김지일 장로, 대표/박성주 장로, 총무/이요한, 행정실 실 장/김만섭, 재정간사/강영욱, 기획협력간사/문 민, 해외협력간사/루디아, 전산협력간사/김형동, 교육부 운영위원/김성곤, 간사/김바울, 협력간사/안거안, 연구부 운영위원/석은혜, 간 사/권수영, 협력간사/배다니엘, 출판부 운영위원/석은혜, 간 사/차이나정광숙·이민선, 협력간사/한영혜, 홍보협력간사/김정하, 훈련원 운영위원/장희락, 간 사/김바울, 선교국 운영위원/박애린·정선영, 간 사/임화평·안성자, 인천지부 협력간사/김성수,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주미애·최동신,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정선영(국내)·이성은(해외)·윤승일(해외), 협력선교사/주성지·고대위·이샤론·강성광·김상희·예보람·주애화 · 주은파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엮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컴퓨터 및 프린터 주변기기

MAIN BOARD

- 386DX-40
- 486(VESA)
- 586(팬더엄)PCI

HDD-FDD

- FDD-1.2MB, 1.44MB
- HDD-250MB, 340MB
420MB, 540MB
삼성·컨팅·코너
W/D, 씨게이트, 맥스티

VIDEO

- ISA 미켈란젤로 JR256C
TVGA 65K
- ISA 한글마당JR16
한글마당JR24
- VESA 한글마당WINX24
한글마당WINX12.4
한글마당WINXP24
- PCI 한글마당WINX(PCI)

CPU-RAM

- 1MB모듈램 • 1486DX2-50
- 4MB모듈램 • 1486DX2-66
- 8MB모듈램 • 팬티엄(586)
- 16MB모듈램 60,66
- 32MB모듈램

MONITOR

- 14", 17", 20"
- 샤프론 바이로그린
- 싱크마스터
- 금성 그린
- 현대 솔로몬

PRINTER

- 잉크형
DJ-500K(HP) DJ-505K(HP)
DJ-560K(HP) ST-800H(삼보)
SI-1000H(삼보) OBS-3630(큐
닉스) 마하젯(삼보)
- 도트
LQ-570H+(삼보) LQ-1570H+
(삼보) LQ-1270+(삼보)
SP-2412NW(삼성)
SP-2421NW(삼성) SP-241
- 레이저
Myiasor-3105V-SF-III(큐닉스)

CASE

- EL-590 • EL-690
 - HG-488
- (DESK·MIDDLE·BIG)

SOUND CARD

- 옥소리 1.8 2.8 3.6 16BIT
- 한상의 만남
- 사운드 브라스터
- 2.1, 프로, 16BIT
- 멀티킷

기 타

- CPU냉각팬 • TV 수신카드
- 프린터 카드 • 시리얼 카드
- ISA슈퍼1/0 • VESA슈퍼1/0
- 마우스 • 세진103KEY
- MGP • PCI • SCS(1/0)

한글 FONT

- 한글바람 3.0
- 한글도깨비 5.1
- 옴니 블랙 BOX PRO

MODEM

- 9600 BPS
 - FAX 모뎀
 - 초고속 14,400BPS
19,200BPS
- 선승, 메아리, 스마트, 액센트
한화

CD-ROM

- PANASONIC
- CR-562B(680MB)
- 더블스피드(320MS)

저렴한 가격 · 신속한 공급 ·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 공급 · 편리한 구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6

을 지 컴 퓨 터

(주)을지서적 내 컴퓨터 부

TEL.777-1776

775-3403

FAX.755-4487



중국선교 효과의 극대화 - 단기선교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至上命令)입니다.

한국 교회의 헌신된 기독청년들이 이 명령을 따라
각각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단기선교사역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는 정도의 충동적인 단
기선교에 그치고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못한 단기선교로 인해 오히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본 선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선교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단기선교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제 : 중국선교 효과의 극대화 -단기선교

일시 : 1995년 6월 26일(월) 오후 7시~ 9시

강사 : 김성복 목사 (갈릴리세계선교회 대표)

장소 :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 편)

참석대상 :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문의 : TEL.594-8038, 533-5497, 592-0132

FAX.599-2786

주최 :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잡지

1995년 5, 6월호(통권33호)

발행처 /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 박성주

발행·편집인 / 이동화

편집장 / 석은혜

편집기자 / 한영혜

차이나

권수영

이민선

편집디자인 / 정광숙

광고·홍보 / 김정하

중국을 주제로

등록일자 /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 바 - 2078

발행일자 / 1995년 4월 10일

인쇄인 / 김수민(신성기획사)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533-5497

팩스 / 599-2786

훈련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팩스 /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 032-872-0742

사랑의 집: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 873-2570

스마트라인지로번호

7602362

편집후기

개나리, 진달래, 목련…….

봄이 분명 오긴 온 모양인데, 봄을 텅 시간조차 없는 사
람은 어쩌면 봄쌍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그 중에 우리 출판부 간사들이 끼어 있으니, 우리는 우
리 스스로를 무어라 불러주어야 할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명의 봄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도
봄을 유보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싶다.

중국에 거듭난 새생명의 봄기운이 충만해지기까지, 우리
의 수고가 열매를 맺기까지, 잠시 출판부의 문 앞에 봄을
세워두기로 하자.

그래도 창 밖, 봄 꽃들의 한사한 머소가, 가꾼씩은 우리
의 위로가 되니까 말이다.

국의 정기구독료(1년)

비행기편

1지역	일본, 대만, 마카오 책값 21,000 우편료 9,720 합계 30,720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1,000 우편료 13,320 합계 34,320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1,000 우편료 19,320 합계 40,320
4지역	유럽, 중남미,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1,000 우편료 21,720 합계 42,720

총판/ 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중앙회관내 / TEL. 722-9577, FAX. 722-9578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4.4.1-1996.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4.4.1-1996.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594-8038, 533-5497, 담당자:기드온)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제로 독자카드(1995년 5,6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어 주계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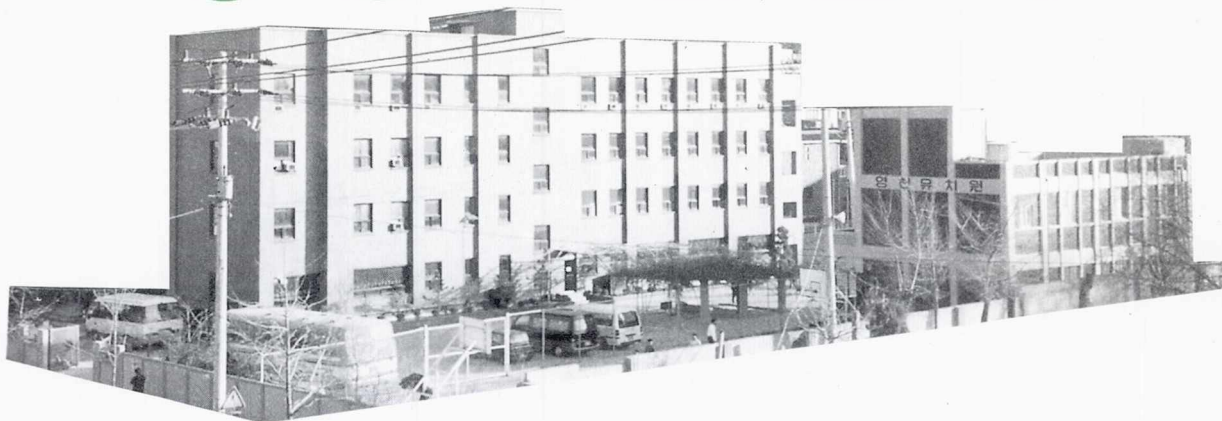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정광숙 Tel.533-5497, 592-0132)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 신규구독 ☐ 재구독 ☐ 주소변경
-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 1년 21,000(6권) ☐ 2년 42,000(12권) ☐ 3년 63,000(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 생년월일
- 배달주소(우 -)
- 전화: (집) (직장) 팩스:
- 교회명 직분
-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 변경주소(우 -)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성광선교센타



• **선교정보 자료실**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선교활동 및 전략 등에
관한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 **도서관**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 **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 **세미나실**
30~200석까지 다양



• **유치원**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 (단, 국교부터
고교생은 50%)

• **레스토랑**
저렴한 가격의
정성이 담긴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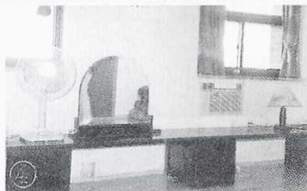
• **한식당**
300석의 한식 온돌 식당



• **게스트 하우스(특실)**
TV, 냉장고, 욕실, 주방



•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 **의료봉사**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 (20분 소요)

성광선교센타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 치 호 목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0642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허즈



1. 품질보증

- 새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일대학,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가족 연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시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 세계적 고객은 ;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bse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ine, British Petroleum, 외 1,500여개의 정수장과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 외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용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식장용
 • 선박용 • 주유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정수 시스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음.
- 타회사 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 열성과 패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됨.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고발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보사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리점 개설문의:
(02)582-4505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코카콜라



● 독일펩시콜라



● 맥도날드사



● 국제적십자사



● 롯데호텔



● 스위스항공



● 하이네켄



● 카타딘코리아

KATADYN KOREA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9
이레빌(구본신사옥)